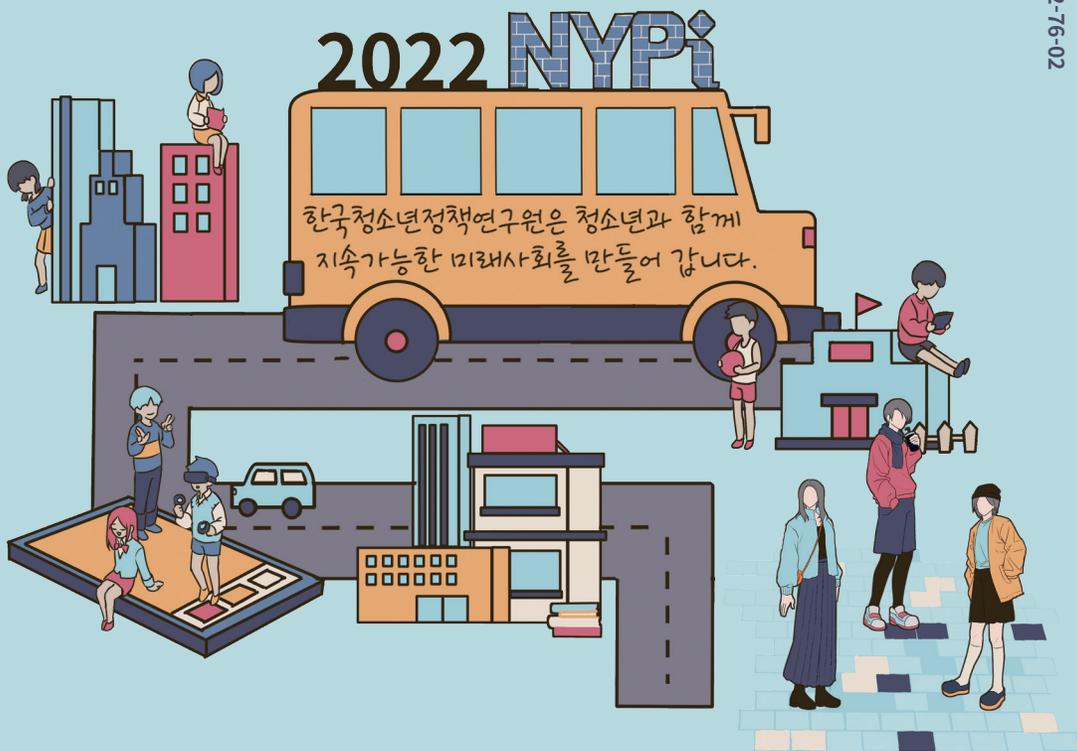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V

: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김희진 · 서고운 · 조혜영 · 민윤경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민윤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연구보고22-일반04-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저 자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민윤경

연구진 연구책임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민윤경(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 김다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2-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김다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민윤경 부연구위원	—

보고서를 펴내며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또 이들의 성장환경과 부모의 지지 정도 등에서도 차이가 큼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검정고시 준비 등을 통한 학력 취득 지원을 기본으로, 이제는 학교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진로 지도나 이와 관련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이한 상황과 특성을 지닌 학교 밖 청소년 개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각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 있게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추진된 협동연구로서, 2018년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질적자료들을 종단적으로 심층분석한 결과입니다. 2021년에 시도했던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과 유사하게 추진되었으나, 이제 2~3회차 질적자료가 축적된 신규 패널(비교적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10대 중·후반 학교 밖 청소년)의 데이터까지 활용하여 좀 더 다양한 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에 수행된 심층분석의 주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기 이행: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비교를 중심으로’,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취약한 상황·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분석’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연구’의 4개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분석에 참여하였습

니다. 또한, 분석 주제에 따라 기존 및 신규 패널 데이터를 각각 활용하거나 함께 비교·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심층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과 종합적으로 정리된 정책제언은 보고서 마지막에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나아가며, 때로는 고군분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삶의 여러 측면과 지원 요구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협동연구보고서를 위해 수년간 축적된, 방대한 분량의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종단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에 애써주신 공주교육대학교의 조혜영교수님과 한국교육개발원의 민윤경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필진으로 심층분석에 참여해주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김미정부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협동연구보고서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 같이 애써 준 원내 연구진인 서고운 연구위원, 김다인 연구원과 심층분석 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조언해주신 청소년분야 및 질적연구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김 희 진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협동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 진로발달 과정,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 20대 중·후반인 기존 패널과 10대 후반이 대부분인 신규 패널들의 질적 종단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기 이행’,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분석’,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 연구’의 4개 주제로 분석되었음.
-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청소년의 삶의 경험에 대해, 특히 오래전 학교를 그만둔 기존 패널과 이보다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최근의 신규 패널 데이터를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는 지원의 유무에 따른 자립과정 및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음.

■ 연구내용

- 심층분석 주제별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기 이행’ 분석은 기존 및 신규 패널 종단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학교를 그만둔 이유,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살펴보았음.
-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분석은 기존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궤적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자립과정에 영향을 준 여러 차원의 맥락들을 탐색하였음.

-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중단 분석’은 신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과 그들이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대처하고 극복해나가는지를 살펴보았음.
-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 연구’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준비 경험을 분석하였음.

■ 연구방법

-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질적중단자료 심층분석을 기획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학교 밖 청소년 및 질적연구 전문가와 본 연구진이 함께 주제별 심층분석에 참여하였음. 이 과정에서 수시로 심층분석 주제 결정, 해당 학교 밖 청소년 사례 선정 과정에서 협의회를 진행하였고, 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기 이행’ 분석은 기존 패널 총 27명과 신규 패널 총 24명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분석하였음.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 방법과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였음.
-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분석은 기존 패널 총 13명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분석하였음. 사례연구를 통하여 개별 사례의 결혼 유무, 일 경험 등을 살펴보고,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하여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였고 이를 통하여 진로 발달 및 자립과정의 특징을 탐색하였음.
-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중단 분석’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총 7명의 신규 패널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분석하였음. 사례연구방식을 활용하여 전사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귀납적, 연역적 분석방법을 반복하며 의미단위를 코딩하고 범주화하여 차원을 도출하였음.
-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 연구’는 총 8명의 신규 패널 사례에 대한 종단적 면접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방적 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 과정을 통하여 학교를 그만둔 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경험들을 분석하였음.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1)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기 이행

-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와 같은 개인 수준, '가족 내 갈등'과 같은 가족 수준, '따돌림'과 같은 또래 관계 수준, '교사와의 문제'와 같은 학교 수준에서의 범주로 구분되었음.
-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를 그만두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와 결합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신규 패널은 목표를 갖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학업중단숙려제와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기존 패널보다 많았음.
-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거의 비슷하였는데, 신규 패널의 경우,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목표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등과 같은 이유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음.
- 자립은 물리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립, 물리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과 심리적인 자립, 심적 태도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타남.

2)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 결혼 혹은 동거로 본인의 가족을 형성한 청소년들에게는 새로 형성된 가족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큰 의미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았으며, 미혼 상태인 청소년들은 다양한 형태로 진로발달을 경험하고 있었음.
- 진로 및 자립과정은 학력 취득, 일 경험, 심리·정서적 측면의 개인적 차원,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의 가족적 차원, 지인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적 관계 차원,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제도,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사관학교와 같은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되었음.

3)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중단 분석

- 취약한 상황별 청소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정신건강 문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음. 또래와의 갈등은 은둔경험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학교를 그만두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음.
- 가정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부모와의 갈등을 겪기도 하였고, 지역·물리적 환경에 따른 제약으로, 지역의 인프라 부족과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 부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취약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 차원으로는 개인적인 노력, 의지의 중요성이 도출되었으며, 가족 차원으로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심리·정서적 지지와 경제적인 지원이 중요하게 나타났음.
- 친구들 혹은 지역사회 내 교회 관계자, 주변의 어른 등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도움이 되기도 하였고, 꿈드림센터 혹은 이와 유사한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지원체계가 취약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

4)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중단적 질적 연구

- 학교를 그만둔 지 1년이 지난 후에는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였으며, '진로를 고민하고 막연히 준비'하는 양상을 보였고, 지원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를 그만둔 지 2년이 지난 후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양상을 보였고, 지원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었음.
- 학교를 그만둔 지 3년이 지난 후에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었고, '취업과 직장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그리고 '진로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4개 주제로 수행된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학교를 그만두기 전 단계에 필요한 지원과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필요한 지원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학교를 그만두기 전 단계 지원

-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 교사와의 면담
 - 학교를 그만두려는 이유 및 문제점 파악 시 적극적인 해결 노력 수행
 -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
-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학교 내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
-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 꿈드림센터의 기능 다양화 및 강화
 - 지역사회청소년관련기관접근성, 역할강화
 - 지역사회 네트워크/연계망 구축
 - 진로 및 취업 지원 확대
- 취약한 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세 파악 및 맞춤형 지원
 - 읍면지역과 같은 작은 규모 지역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어려움 파악
- 대입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전형 논의 필요
 - 대학 입시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학교를 그만두려는 이유를 잘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학업중단숙려제와 같은 제도가 강화되어야 함.
-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학교를 그만둔 후 방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중심 체계로써 꿈드림센터의 기능이 보다 다양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접근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연계망)를 확대·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취약한 환경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취약한 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부터 취약한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학교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고,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인적 관점에서 어려운 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회복탄력성 강화 및 동기부여가 우선시되어야 함.
 - 인프라 부족과 같은 지역의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한 대인관계의 단절, 심리적 문제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 입시 지원을 강화해야 함. 대학 입시를 위한 심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전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학교 밖 청소년의 지 역사회 지원방안 연 구Ⅴ: 질적 종단자 료 심층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4-01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개요	5
II.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성인기 이행: 기존·신규 패널 비교를 중심으로	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2. 분석방법	14
1) 조사대상 및 내용	14
2) 자료 분석 방법	17
3. 분석결과	18
1) 학교를 그만둔 이유	18
2)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관한 다층적 분석	32
3)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이후 경험: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비교	37
4)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42

5) '자립'에 대한 생각을 통해 살펴본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의 특징	51
2.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6
1) 요약	56
2) 정책적 시사점	59

III.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 6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5
2. 분석방법	69
1) 분석개요	69
2) 분석방법	73
3. 분석결과	74
1) 개별 참가자들의 진로 궤적	74
2) 학교 밖 후기청소년 진로 및 자립 과정 분석	76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5

IV.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3
2. 분석방법	105
1) 분석개요	105
2) 분석방법	107
3. 분석결과	111
1) 취약한 상황별 사례	111
2)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지체계	123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33
1) 요약	133
2) 정책적 시사점	135

V.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1
2. 분석방법	144

1) 참여자 선정기준	144
2) 참여자 특성 및 소개	145
3) 자료분석	148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149
3. 분석결과	150
1) 1차 년도 결과	152
2) 2차 년도 결과	161
3) 3차 년도 결과	173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80
VI. 결론	189
1. 요약	191
1)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기 이행」 연구 요약	192
2)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연구 요약	193
3)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분석」 연구 요약	195
4)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 연구」 요약 ..	196
2. 통합적 정책 제언	298
참고문헌	201

표 목차

표 I-1.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현황	5
표 I-2.	협동연구보고서 장별 심층 분석 주제 및 분석 개요	6
표 II-1.	2018년-2021년 학교 밖 질적 패널 구축 및 분석 주제	12
표 II-2.	기존 패널 연구참여자별 특성 및 현황	14
표 II-3.	신규 패널 연구참여자별 특성 및 현황	15
표 II-4.	기존 및 신규 패널 면접조사 내용	16
표 II-5.	학교를 그만둔 이유	18
표 II-6.	학교를 그만둔 이유(의미단위 포함)	29
표 II-7.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한 다층적 분석(기존 패널)	33
표 II-8.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한 다층적 분석(신규 패널)	34
표 II-9.	자퇴에 대한 후회 여부와 그 이유(기존 패널)	43
표 II-10.	자퇴에 대한 만족도 변화와 그 이유(기존 패널)	43
표 II-11.	자퇴에 대한 후회 여부와 그 이유(신규 패널)	45
표 II-12.	자퇴에 대한 만족도 변화와 그 이유(신규 패널)	46
표 II-13.	자퇴에 대한 후회(기존 패널)	47
표 II-14.	자퇴에 대한 만족도(기존 패널)	48
표 II-15.	자퇴에 대한 후회(신규 패널)	49
표 II-16.	자퇴에 대한 만족도(신규 패널)	50
표 III-1.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주요 특징 및 삶의 주요 궤적 (진로 중심)	70
표 IV-1.	분석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106
표 IV-2.	분석 대상 학교 밖 청소년별 취약한 특성	109
표 IV-3.	심리적, 정신건강 관련 취약성	114
표 IV-4.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취약성	117
표 IV-5.	가정환경적으로 취약한 상황	119
표 IV-6.	지역/물리적 환경 제약, 지역 격차	123
표 IV-7.	학교 밖 청소년의 지지체계 요약	124
표 V-1.	참여자 특성	145

표 V-2. 참여자의 진로준비 관련 주요활동 및 계획	146
표 V-3.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 중단적 질적 분석결과	151

그림 목차

그림 IV-1.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질적종단자료 분석단계	108
그림 VI-1. 통합적 정책 지원	199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도권 공교육을 떠난 청소년들은 과거에는 중퇴자, 중도탈락자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로 지칭되면서 일탈의 이미지가 더해졌고(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학교를 떠난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대체로 이렇게 지칭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패널조사에서 청소년들은 평일 낮시간에 학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정규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한 불편함과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이는 많은 사회환경적인 변화 속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정적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률에 따라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도 8년여가 지났다. 또 해당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여러 번 수행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었는지, 어떠한 특성과 지원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점차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지어 유관기관, 지자체, 지역사회 전체, 정부 부처,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는 깊지 않으며,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선불리 학교 밖 청소년을 정의하고 한 단면만을 보고 단정 짓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단적으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났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각 청소년의 경험은 매우 다르며, 그래서 필요로 하는 지원도 상이하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

1)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한 특성과 상황에 주목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효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즉, 공교육 체계에서 학생 청소년들 각자의 개성과 특성, 재능 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원도, 재원도 부족하며, 부정적인 인식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홍보하거나 지원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재 모습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근거에 기반한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며,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된 본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여러 전문가가 각자의 연구 필요성과 주제를 가지고 방대한 질적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풍성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은 이들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조명하고, 어떤 지점에서 어떠한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도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질적종단자료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생각·의식의 변화, 삶의 궤적, 시간에 따른 지원 요구의 양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을 통해 다양한 면모를 지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들이 어떠한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로 하는 지원을 도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개요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패널조사의 데이터가 점차 축적됨에 따라 기획되었다. 2013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양적 종단연구(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에 참여하였던 청소년 중 성별, 거주지 규모,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를 고려하여, 2018년의 1차년도 연구에서 60명의 질적 패널을 구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1차 면접을 실시하였다(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2019년에는 이들 중 48명을 대상으로 추적이 가능했고, 2차 면접을 실시하였으며(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 2019), 2020년에는 42명이, 2021년에는 37명이 심층면접과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하였다(김희진 외, 2020; 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2021a). 2022년에는 컨택 가능한 기존 패널 중 그동안의 면접에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또 더욱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7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환경적 변화로 최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와 2014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본격화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만족도, 개선요구 등에 대한 파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패널 구축과 마찬가지로 성별, 학교 밖 이행 경로, 거주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규 패널을 구축하여 2020년에 33명을 대상으로 1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김희진 외, 2020). 2021년에는 지역 규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패널을 추가하여 총 38명이,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24명의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이 면접에 참여하였다(표 I-1). 이러한 기존 및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의 조사 참여 현황은 표 I-1과 같다.

표 I-1.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존 패널 (20대 중후반)	면접조사 : 60명	면접조사 : 48명	면접조사 : 22명, 패널관리조사 : 20명	면접조사 : 18명, 패널관리조사 : 19명	면접조사 : 27명
신규 패널 (10대 후반)			면접조사 : 33명	면접조사 : 38명	면접조사 : 24명

* 출처: 김희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15의 해당 내용 업데이트

주: 2020년에 신규 패널의 구축에 따른 부담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에서 2020년 연구의 초점이 대도시 지역임에 따라 2020년에는 대도시 지역 패널을, 2021년에는 중소도시/읍면 지역 패널을 면접조사하고 당해 다른 패널들을 대상으로는 패널관리를 위한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기존 및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방대한 분량의 질적자료는, 학교 밖 청소년 질적종단 DB라는 이름으로 축적, 관리되었다. 본 보고서의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은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과정, 현재 생활과 심리정서적 상태, 진로발달 및 자립 실태, 지역사회 지원 요구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한 인식과 상황·환경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종단적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종단자료 분석은 2020년에 수행된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서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생각과 진로관련 경험, 외부 도움 경험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도된 바 있다(김희진 외, 2020).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2021년에는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3개의 주제로 질적 종단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김희진, 서고운, 김미정, 류정희, 권지성, 2021b). 올해에도 협동연구로서, 총 4개의 주제로 질적 종단자료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각 분석에서 활용된 패널과 사례 수, 분석방법 등은 표 I-2와 같다. 이러한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을 기획하면서 가능한 주제와 분석 대상이 크게 중복되지 않도록 분석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전문성의 차이를 두어 다양한 관점으로 자료가 분석되고 결과가 도출되도록 의도하였다.

표 I-2. 협동연구보고서 장별 심층 분석 주제 및 분석 개요

연구주제	분석 사례 수 (연령대)	분석방법	chapter
1.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성인기 이행: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비교를 중심으로	기존 패널 27명 (만 23~28세), 신규 패널 24명 (만 16~20세)	일반적인 귀납적 주제 분석	2장
2.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발달 및 자립과정	기존 패널 14명 (만 25~28세)	사례연구 및 반복적 비교분석법	3장
3. 취약한 상황·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분석	신규 패널 7명 (만 17~20세)	사례연구 접근, 귀납적, 연역적 자료 분석 병행	4장
4.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 연구	신규 패널 8명 (만 18~20세)	Glaser와 Strauss(1967)의 코딩방법을 적용한 개방 코딩 및 범주화, 축 코딩·선택적 코딩 등 활용	5장

분석 주제와 분석 대상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및 사례 등을 선정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들과 수시로 협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본 질적패널조사에 대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분석방법과 결과 도출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도와 타당성 제고를 위해 본 조사와 데이터에 익숙한 질적연구 전문가들과 함께 중간보고회 형식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중간보고 심의 및 자문결과는 해당 연구자에게 전달하여 분석원고 수정에 반영토록 하였고, 워크숍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질적자료의 특성상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고, 또한 종단적으로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분석을 위한 전사자료 전달 시 모두 암호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익명성을 기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였다.

○ ————— 제2장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성인기 이행:
기존·신규패널 비교를 중심으로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분석방법
- 3. 분석결과
-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성인기 이행 - 기존·신규 패널 비교를 중심으로²⁾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패널과 다년간 면담을 진행한 질적 종단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수행되었다. 면담을 위한 청소년 패널 구축을 위해 2013년 양적 종단연구 패널로 구축한 776명 중에서 5차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217명을 대상으로 이행경로별(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등)로 각각 20명씩 60명을 추출하였다(윤철경 외, 2018). 이 때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와 성별(남, 여) 등도 함께 고려하여 지역과 성별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윤철경 외, 2018).

20대 초·중반인 기존 패널이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최근 상태와 지원 욕구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는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33명을 추가로 구축하였다(김희진 외, 2020). 이처럼 2018년부터 구축된 기존 패널, 2020년부터 구축된 신규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된 면담을 통해 지난 5년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분석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들의 면접조사 참여 현황 및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주제를 요약하면 표 II-1과 같다.

2018년의 1차년도 연구는 질적 패널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한 첫 해이므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전이과정 전반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윤

2) 이 장은 외부공동연구원인 민윤경 부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하였다.

철경 외, 2018). 특히, 학업 중단 계기, 학교의 의미, 학업 중단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학업 중단 전후 인간관계의 변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만족도, 미래관, 지역사회 및 국가에 바라는 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에 대한 대처, 이행경로별(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등) 진로 준비 등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윤철경 외, 2018).

표 II-1. 2018년-2021년 학교 밖 질적 패널 구축 및 분석 주제

구분		2018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기존 청년패널 (20대 중반)		60명 면접조사	48명 면접조사	22명 면접조사, 20명 패널관리조사	18명 면접조사, 19명 패널관리조사
신규 청소년패널 (10대 후반)		—	—	33명 면접조사	37명 면접조사
분석 주제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전이과정 진반 탐색	학교 밖 청소년들 의 관계 양상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유형별 특징과 유형별 지역사회 지원 방안	현재와 미래 계획, 진로 탐색
	신규	—	—	학업 중단 계기, 학교의 의미, 학업 중단 이후 변 화, 현재 생활 탐색 및 생활시간 분석	진로 발달, 생애 사건, 학 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 및 지원 요구, 코로나19 경험, 생활시간 분석

* 출처: 김희진 외(2020), 김희진 외(2021a), 윤철경 외(2018), 장근영 외(2019)

2019년의 2차년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계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래, 학교, 지역 사회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이를 학업 중단 이전, 학업 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장근영 외, 2019).

2020년의 3차년도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김희진 외, 2020). 한편, 2020년 새로 구축된 신규 패널에 대해서는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 1차년도에 수행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계기, 학교의 의미, 학업 중단이 미친 영향, 자신에 대한 생각 및 진로 계획, 학교 밖 이후 지원 경험과 필요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탐색하였다(김희진 외, 2020). 여기에 추가로 현재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생활을 하는지, 하루 일과는 어떤지 등과 관련한 생활시간을 분석하였다(김희진 외, 2020).

2021년 연구에서는 기존 패널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학업 중단 이후 삶의 궤적을 분석하고, 2차적으로 현재의 삶과 진로 모색의 특징을 바탕으로 유형을 도출한 후 유형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김희진 외, 2021a). 신규 패널과 관련해서는 2020년과 2021년의 진로 변화를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중요한 생애 사건, 지원받은 경험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 코로나19 경험, 생활시간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김희진 외, 2021a).

이처럼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질적 패널분석 연구는 동일한 연구 대상자를 통해 축적한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022년 5차 년도를 마지막으로 패널 면담이 종료되는 바, 올해 연구에서는 먼저 그동안 기 분석되었던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들을 종합하고 그 원인을 보다 다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하나이기보다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어떤 원인이 좀 더 중요한지, 그러한 원인을 강화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기존 연구 결과에 더하여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다층적·입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이유, 그 결심을 단행하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 등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거기에서 일정한 특징이 발견된다면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원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에 대해서 각각 따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이 두 그룹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으므로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경험을 비교하고자 한다. 20대 중후반인 기존 패널과 10대 후반인 신규 패널 간에는 비단 나이 차이뿐 아니라 그 사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센터 구축 및 활성화 노력 등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중단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기존 패널의 경우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특징을 ‘자립’에 대한 개념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원활하게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1) 조사 대상 및 내용

패널조사의 특성상 해가 거듭하면서 연구참여자가 패널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면담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2022년 면담에 참여한 최종 면담참여자는 기존 패널 27명, 신규 패널 24명이다. 올해 면담에 참여한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연구참여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2. 기존 패널 연구참여자별 특성 및 현황

ID	1차조사 응답자 유형	성별	출생 연도	만 나이	1차 조사 지역규모	학업 중단 시기	현재 하는 일
1	직업형	남	94년	28	중소도시	고2	대기업 공장 기술직(정규직)
2	무업형	여	95년	27	중소도시	고2	아르바이트, 육아
3	직업형	남	97년	25	중소도시	고1	골프장 근무
4	무업형	남	95년	27	대도시	고2	퇴사 후 쉬는 중
5	직업형	여	97년	25	중소도시	고1	공연 관련 업무(정규직)
6	무업형	남	95년	27	읍면 지역	고1	음식점 운영
7	직업형	남	97년	25	대도시	고1	공장
8	무업형	남	99년	23	중소도시	중1	군 재입대 예정
9	학업형	여	96년	26	중소도시	고1	IT 개발 업무
10	직업형	남	98년	24	대도시	고1	병원 보안업무(정규직)
11	무업형	남	95년	27	중소도시	초5	물류창고 정리 업무
12	학업형	남	97년	25	중소도시	고1	아르바이트
13	직업형	남	97년	25	중소도시	고1	아르바이트
14	직업형	여	97년	25	대도시	중3	아르바이트
15	학업형	여	95년	27	중소도시	고2	특별히 하는 일 없음
16	학업형	여	96년	26	중소도시	고1	대학원 진학

ID	1차조사 응답자 유형	성별	출생 연도	만 나이	1차 조사 지역규모	학업 중단 시기	현재 하는 일
17	무업형	여	97년	25	중소도시	중3	병원 간호조무사
18	학업형	여	97년	25	대도시	고1	출판사 편집자
19	학업형	여	97년	25	중소도시	고1	회계정산 관련 업무
20	직업형	남	96년	26	대도시	고1	특별히 하는 일 없음
21	무업형	남	95년	27	중소도시	고1	학원 강사/가상화폐 사업
22	학업형	남	96년	26	대도시	고1	홈쇼핑 회사 웹 관리 업무(정규직)
23	직업형	남	95년	27	읍면지역	고1	전기 관련 업무(정규직)
24	무업형	남	95년	27	대도시	고1	건설 관련 업무
25	학업형	남	97년	25	대도시	고1	공익근무/ 아르바이트 병행
26	학업형	남	96년	26	대도시	고1	공무원 시험 준비
27	직업형	여	96년	26	대도시	고1	신용평가회사 재직(계약직)

표 II-3. 신규 패널 연구참여자별 특성 및 현황

ID	1차조사 응답자 유형	성별	출생 연도	만 나이	1차 조사 지역규모	학업 중단 시기	현재 하는 일
1	학업형	여	04년	18	중소도시	고1	대학 진학 준비 중
2	무업형	여	05년	17	대도시	중2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 예정
3	무업형	남	04년	18	대도시	고교 미진학	대학생
4	학업형	여	03년	19	대도시	고1	대학생
5	무업형	남	05년	17	대도시	중1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6	직업형	남	06년	16	중소도시	중1	축구 관련 고등학교 재학 중
7	학업형	여	03년	19	대도시	고1	대학생
8	학업형	여	03년	19	중소도시	고1	대학생
9	학업형	여	03년	19	중소도시	고1	대학생
10	학업형	여	03년	19	대도시	고1	대학생
11	직업형	남	02년	20	대도시	고1	대학생
12	학업형	여	05년	17	중소도시	중1	대학 진학 준비 중
13	학업형	여	05년	17	읍면지역	중2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14	학업형	남	03년	19	읍면지역	고1	대학생
15	학업형	여	03년	19	읍면지역	초4	그림책 제작관련 진학 예정
16	무업형	남	04년	18	중소도시	고2	대학 진학 준비 중
17	학업형	여	05년	17	중소도시	고1	대학 진학 준비 중
18	학업형	여	04년	18	읍면지역	고1	대학생
19	직업형	남	05년	17	읍면지역	고교 미진학	아르바이트
20	학업형	여	04년	18	중소도시	중2	대학생

ID	1차조사 응답자 유형	성별	출생 연도	만 나이	1차 조사 지역규모	학업 중단 시기	현재 하는 일
21	직업형	여	05년	17	대도시	고1	내일이룸학교
22	무업형	남	03년	19	읍면지역	고2	아르바이트
23	무업형	여	05년	17	중소도시	초5	대학생
24	무업형	여	04년	18	중소도시	고2	검정고시 준비/아르바이트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에 대한 면담 질문지는 표 II-4에 제시하였다.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면담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만 신규 패널에게만 추가된 질문이 몇 가지 있다. 괄호 안에 신규 패널이라고 명시한 질문은 신규 패널에게만 한 질문이고 그 외 모든 질문은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

표 II-4. 기존 및 신규 패널 면접조사 내용

구분	면접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살고 있는 곳(이사 등 확인): 거주형태(자취, 부모님 집, 친구 등) • 마지막 학교 그만둔 시기 재확인(고등, 대학교 복귀 여부) • 현재 주로 하는 일: 변화 여부 확인
현재생활 및 진로발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생활 탐색: 학업, 직업준비, 취업, 무업, 군대 등 응답자 상황에 따라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상황과 비교하여 진로관련 변경 내용 탐색 - 본격적인 진로 결정 전, 검정고시,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경험 등 조사 - 학업/취업의 경우 현 상황과 목적/이유, 현재 활동, 만족도와 요구 등 • 진로관련 과거 경험(신규 패널) • 현재 진로발달 상황 • [무업인 경우] 하루 일과 및 일정, 만족도와 원하는 생활과 요구 • 직업 결정 유무 및 직업 준비 상황 • 최근 관심사나 고민(건강, 경제적 어려움, 거취나 생활문제 등)
학업 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생각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경과에 따른 학업 중단의 의미 변화 등
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인식/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0대의 경험 및 현재의 삶에 미친 영향
경제적 상황 및 자립 실태, 미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제 상황 및 주거 상황: 주 수입원, 소비현황, 재테크 현황 • 부모/형제의 경제적 지원 상황 • 주거상황(부모님과 거주 또는 독립생활) 및 주거 마련 시 어려움 • 대출, 빚, 신용불량 상황 • 성인기 이행과 자립의 의미 및 자립 여부 • 미래에 대한 걱정/불안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관계 (지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한 인식(자존감 포함)과 만족 정도 • 심리 정서적 상태 • 소중한 사람 및 역할 모델 등 • 가족 및 친구, 이성 관계, 학업/취업 현장, 지원체계에서의 관계 및 중요도 등 • 지원 기관에서의 관계(신규 패널)

구분	면접내용
가족구성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인과 동거 혹은 결혼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경험이 동거/결혼에 미친 영향 동거/결혼 생활 중 어렵거나 만족스러운 점과 그 이유 [결혼하지 않은 경우] 결혼 시 가장 큰 장애물/어려운 점, 필요한 도움
지역사회 및 정부 지원과 세부 정책과제, 사회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에서의 주요 경험과 인식(신규 패널)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중단 이후 현재까지 도움 경험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지역사회 내 지원 유무 및 내용, 미흡한 내용 및 지원 요구 자립 관련 지역 사회 지원 요구 지역사회 지원 및 전달체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지원을 위해 타지역 이동 경험 유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개선 중앙부처 정책의 지자체, 기초지자체로의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과 관련된 사회 인식, 낙인/차별 경험 유무 사회에 대한 인식

* 출처: 김화진 외(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 연구 IV: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p. 103-104, pp. 173-174의 면접조사내용을 요약 제시하였음.

2) 자료 분석 방법

본 장에서 분석할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관하여 종합적·다층적으로 살펴보고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면담 내용을 비교한 후 그 둘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도출한다. 둘째,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학교를 그만둔 경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립'에 대한 인식을 통해 기존 패널 및 신규 패널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존 패널의 경우 2018년 인터뷰 자료와 2022년 인터뷰 자료를 함께 분석하였고, 신규 패널은 2022년 인터뷰 자료를 주된 분석 자료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2020년 자료를 참고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귀납적 자료 분석(Inductive analysis)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면담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단위를 파악하고 주제를 범주화하는 데 귀납적 자료 분석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귀납적 자료 분석은 먼저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직화하고, 조직화한 자료를 의미 있는 단위로 분리한 후, 그 의미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는다(Bogdan & Biklen, 2007;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에서 재인용).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이며, 이는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과정으로 진행된다(유기웅 외, 2018).

이에 연구자는 우선 전자자료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한 의미들을 도출하고(개방 코딩), 이어 범주를 선정해서 선정된 범주에 맞게 자료를 분류하였다(범주화). 그 후 마지막으로 다시 자료를 면밀히 살펴 놓친 자료는 없는지 혹은 잘못된 범주에 들어간 자료는 없는지 등을 여러 차례 재확인하였다(범주 확인).

아울러 질적자료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드 노트, 전년도 전자자료, 진로 발달 상황 요약표, 선행연구 보고서 등을 모두 활용하여 삼각검증과정을 거쳤다.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2인으로 하여금 연구의 결과를 검사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외부감사 과정을 수행하였다(Creswell, 2015).

또한 한 가지 추가로 염두에 둔 것은 기존 연구보고서에서도 기존 및 신규 패널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관련해서 이미 분석한 적이 있는바, 기존 연구 결과와의 일관성을 위해 선행 연구의 코딩 분류와 범주명과 비교하여 그 둘을 가능한 한 서로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범주명 및 코딩 분류가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이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3. 분석결과

1) 학교를 그만둔 이유

2022년 면담 조사에 응한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대상으로 한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련된 이유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5와 같다.

표 II-5. 학교를 그만둔 이유

영역	범주	하위범주
개인 수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하는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에게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놀고 싶은 마음
	의미 없고 도움되지 않는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학교생활이 진로에 방해가 됨
		학교의 필요성(의미, 흥미)을 느끼지 못함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음
		비용, 효율, 시간적 측면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	

영역	범주	하위범주
가족 수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가족 내 갈등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님과의 갈등 가족구성원 간 갈등
또래 관계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과거의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학교생활이 힘들
		과거의 따돌림/괴롭힘 원인이 현재의 학교폭력 피해로 이어짐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 학교폭력	
	또래 관계, 사람 관계가 힘들	
	주변 친구의 학업 중단	
학교 수준	교사와의 문제	교사의 무관심
		교사와의 갈등
		교사의 폭력
	학교 제도, 분위기	교칙을 여러 번 어겨서 퇴학, 무단결석 등
		엎매이는 학교생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분석한 결과 그 이유는 크게 개인 수준, 가족 수준, 또래 관계, 학교 수준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개인 수준 영역을 구성하는 범주에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학교생활이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 및 정신 건강 약화의 세 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가족 수준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가족 내 갈등의 하위 범주가 파악되었다. 또래 관계 영역에서는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주변 친구의 학업 중단 등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준 영역에서는 교사와의 문제, 학교 제도나 분위기 등이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로 분석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범주의 하위 범주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 수준

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름의 진로 목표가 설정된 경우, 혹은 아직 나에게 맞는 길이 뭘지는 모르지만, 학교 안에서는 이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 그리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경우 등이 있었다. 먼저 '원하는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원하는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두 명 다 공교롭게도 외국 유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외국 유학이라는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일단 유학 자체에 흥미가 있을뿐더러 제도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거의 전액을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든요. 원래 유학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해서 지원도 해주면서 동시에 원래 이공계 쪽으로 해서 대학원까지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이 기초과학이 더 튼실하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처음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 기존 패널 2018년 21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둘째, ‘나에게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에 따라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정확한 진로를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진로를 찾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들은 학교에서의 활동이 오히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일단 진로가 정확하지 않았고 그런데 생기부나 이런 것도 너무 다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딱 결정을 해서 뭔가 생기부를 채우고 이런 형식이잖아요. 보통 고등학교가. 그런데 그런 게 저는 아직 뭔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는데 당장 이거는 눈앞에서 쓰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게 진짜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또 하게 되고 그냥 뭔가 그리고 꾸며지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든다고 해야 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 신규 패널 2022년 24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셋째,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에 따라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뒷부분에서도 언급되지만 학교를 그만둔 후의 다양한 경험은 학교를 그만둔 후 수년이 흐른 후 면담에서 학업 중단 결정을 만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낫겠다.** 이것저것. - 기존 패널 2018년 7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마지막으로, 무작정 놀고 싶은 마음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학교는 긍정적인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대부분 학교생활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놀아야 되니까. 더 놀고 싶어서. (...) 학교 출석도 안 좋았고, 학교 가서 그냥 자다가 점심시간에 급식 먹고, 오후에 밥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수업 보고 그냥 무단으로 나왔어요. - 기존 패널 2018년 6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② 의미 없고 도움 되지 않는 학교생활

학교생활이 의미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범주에는 학교생활 자체에 적응하지 못함, 학교생활이 진로에 방해가 됨, 학교의 필요성(의미, 흥미)을 느끼지 못함,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음, 비용·효율·시간적 측면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등의 다섯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학교생활이 의미 없고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그런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 또한 다양하였다. 전학을 많이 다녀서, 과거 경험으로 인해, 살이 찌고 심리적으로도 계속 불안하여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면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약간 뭔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그때 감정기복이 심해서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대해서 진짜 학교에서 별말 아닌데 혼자 울고 그래서 뭔가 사회성이 결여된 느낌이었고 **제가 다이어트 강박이 있었는데 살이 찌니까 또 학교에 나가기 싫었고** 집 밖을 나가는 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 신규 패널 2022년 22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둘째, '학교생활이 진로에 방해가 됨'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중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회의가 들고, 대학 진학을 위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등 학교생활이 진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다는 이유가 있었다. 이들의 경우 나름의 비교적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세웠다는 특징이 있다.

저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다른 대학 진학의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쓰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 신규 패널 2022년 16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셋째, 학교의 필요성(의미, 흥미)을 느끼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은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목한 학교를 떠난 이유였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면을 살펴보면 단순히 공부 의욕이 없고 학교라는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껴서라는 응답까지 세부적인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그 세부적인 이유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서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있고, 이들이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파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를 그만두겠다 생각한 계기는) 그건 기억이 안 나오. **그냥 안 갈래, 귀찮아 이런 생각밖에 없어서.**
- 기존 패널 2018년 15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술 같은 게 나중에 도움이 될까 생각이 나서 시간을 버리는 행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 신규 패널 2022년 19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넷째,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내용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 이는 대학 진학 중심의 인문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 중심의 특성화고에 다녔던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1학년 때는 잘 다니다가 2학년 때 OO에 있는 OO고등학교라고, **거기 과들이 좀 적성에 안 맞고 그래서.** 처음엔 그 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2지망 3지망에 적은 그 학교로 갔는데, 학교 빠지고 그런 것도 많았어요.
- 기존 패널 2018년 4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마지막으로, 비용이나 시간 등의 측면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돈도 덜 들고 효율적이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밝힌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진로 목표가 분명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이고 이면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라는 제도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쓰는 돈이랑 밖에서 쓰는 돈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년도를 따져봤을 때는 (...) 자퇴를 하면 인강으로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 기존 패널 2018년 18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③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둘 당시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상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 외 요인 즉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기타 가정사 등으로 인해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외에 학교 요인, 주로 또래 관계의 문제가 건강 악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한 개인에게는 평생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 클래스를 하다가 만나 보니까 애들이랑 너무 어울리기가 힘든 거예요. (중략) 몸도 그때 갑자기 안 좋아졌던 거예요, (중략) 그렇게 쉬다가 나갔는데, 안 그래도 못 보다가 그랬는데 다시 나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랑 어울리는 게. 그러다가 또 몸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서 집에서 한동안 있다가 이젠 진짜 아닌 거 같다고 해서 자퇴를 하는 게 맞을 거 같다

- 신규 패널 2022년 21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2) 가족 수준

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도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로 보고되었다. 여기에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모님이 학교 대신 직업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돈을 배우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아무래도 계속 집이 기초수급이라서 그래서 아마 돈이 되는 일만 찾았던 것 같아요.

- 기존 패널 2022년 23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② 가족 내 갈등

가족 내 갈등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님과 의 갈등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으로 본인이 고통을 느낀 경우 두 가지 하위범주가 보고되었다. 첫째,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한 관계 악화가 학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가출로 이어지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학업과 병행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둔 경우였다.

아버지랑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 그때 집에서 쫓겨나 있으면서 알바 하느라고, 학교 다니면서 알바 하는 게 처음에는 다니면서 해볼까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 신규 패널 2022년 22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둘째, 가족구성원 간 갈등이 학업중단의 원인이라고 보고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가족구성원 간 갈등의 종류로는 단순한 엄마의 잔소리부터 부모님의 불화 및 이혼까지 종류와 정도가 다양했다. 특히, 자신과의 직접적인 갈등이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도 예민한 청소년에게는 학업 중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에 중학생까지 쭉 저희 가족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이혼하셔서 어머니 혼자 저랑 누나를 키웠는데요, 저 중학교 때 누나가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누나랑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싸우는 과정들이 저한테 스트레스로 남아서 계속 힘들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 기존 패널 2018년 25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3) 또래 관계

청소년기에 또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후 학업 중단에 대해 후회하는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또래 관계는 학업 중단의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학업 중단을 후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생활을 지탱하게 하고 학교생활을 그만두게 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래 관계 영역에서는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주변 친구들의 학업 중단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①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은 과거의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현재까지 학교생활이 힘들, 과거의 따돌림/괴롭힘 원인이 현재의 학교폭력 피해로까지 이어짐,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학교폭력 등의 세 가지 하위범주가 있다. 첫째, 과거의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학교 생활이 힘든 사례였다.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 실제 따돌림과 폭력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정신적 상흔으로 남아 평생을 괴롭히는 기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는 과거의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현재 학교생활이 힘들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에서 (과거에 친구들에게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반복해서 생각이 나다 보니까 학교 다니기 힘들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 기존 패널 2018년 25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과거의 따돌림/괴롭힘이 계속되어 현재까지도 왕따를 당하게 되어 학교를 그만두었다

는 경험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또래 관계에서의 왕따/괴롭힘 문제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기 때문에 청소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교사, 부모, 학교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있었고요 친구 문제로 마음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괴롭힘을 엄청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엔 단순히 학교 가기 싫다는 생각에서 자퇴를 선택한 것도 있고. 일단은 그게 제일 커요. (...)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랑 중학교도 같이 들어가고, 중학교 때부터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고등학교까지 같이 진학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 기존 패널 2018년 5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마지막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면담을 통해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2010년대 들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에 비해 제도권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면담을 통해서도 따돌림, 학교폭력 등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랑. **그래서 따돌림 당해서 멘탈이 좀 약해져서 못 버텼어요.**
- 기존 패널 2018년 17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학교 다닐 때 일진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솔직히 비현실적이지만 일진이라는 친구들은 아예 학교를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진이라는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중략) **그냥 괴롭히는 게 재밌어서 아니면 애가 반응이 내가 때릴 때 반응이 재밌어서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그런 폭력,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 자체가 저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진이라는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제도가 그때 방안이 있었으면 저는 제가 학교 인문계라는 학교를 진학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 기존 패널 2022년 11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② 또래 관계, 사람 관계가 힘들

또래 간 괴롭힘이나 폭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역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원인으로 상당수 보고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 간에 유대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의 학교생

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바 이 부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전학 오고 1년쯤 다니긴 했었는데 저는 중간에 들어오고 다른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10명 안 되는 애들이 올라와서 거기 제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잘 못 어울리고 겹돌았거든요 **왕따나 따돌림이 심하진 않았는데 은따라고 하는 은은하게 겹도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 신규 패널 2022년 15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③ 주변 친구의 학업 중단

주변 친구의 학업 중단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학교를 그만두면 얼핏 자유롭게 자신이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학교에 얽매이지 않는 점이 좋아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주변 친구들의 학업 중단에 자극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 면담에서 보고되었다.

처음에 그만둔 애가 가수 한다고 그렇게 그만뒀는데 그게 되게 재미있어 보였거든요. '자기 길을 찾아가네' 약간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 기존 패널 2022년 26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4) 학교 수준

① 교사와의 문제

교사와의 문제에는 교사의 무관심, 교사와의 갈등, 교사의 폭력 등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다. 교사와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교사의 무관심'으로 교사에게 여러 번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는데도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교사의 태도들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는 선생님의 대처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몇 번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선생님의 대처였었던 것 같아요. (...) 담임 선생님만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뒀을 건데, 아무리 형이 그러고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 사건을 치고 또 내가 전학을 갔을지라도 그때 담임이 나를 붙잡아줬으면 내가 학교까지 중단하지 않았을 것 같다.

- 기존 패널 2022년 8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별로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자주 말했었는데 가장 크게 그만뒀어겠다고 생각한 게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제 상황이나 제 얘기를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고 물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에 그냥 다 잊으시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그랬냐고 몰랐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종략) 더 나아질 건 없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만두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 신규 패널 2022년 11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둘째, 교사와 갈등을 겪거나 선생님들이 다 싫었다고 보고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었다.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든 학교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했던 교사의 말이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는 데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참여자의 보고는 교사 역시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지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학교 문제라고 하면 선생님이랑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가면 수업 듣기 싫어서 자주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담 넘어서. 저희 선생님이 조금, 자기 학생인데 마음에 안 들면 너 어떻게든 퇴학시키겠다 그랬던 선생님이라서, 그래서 별로였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재량 다니지 마라, 재량 놀러 다니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 기존 패널 2018년 7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끝으로, 일반적인 경우로 보이지는 않지만 교사의 폭력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견딜 수 없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2000년대 들어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2010년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³⁾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체벌은 더 이상 '사랑의 매'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인가 대안 학교 등 제도권 밖의 교육 시설, 특히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교사의 폭력이 행해지는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웃고 맨날 남자선생님한테 (...) 쓰레받기 줄이 쇠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로 종아리를 탁하고 맞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여기 멍이 들고 그래도 웃었어요. 계속 웃으면서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울증이 탁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 신규 패널 2022년 2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② 학교 제도, 분위기

학교 제도, 분위기의 하위범주로는 교칙을 여러 번 어겨서 퇴학을 당하거나 무단결석하여 학교를 그만둔 경우와 엽매이는 학교생활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경우 두 가지가 도출되었다. 먼저, 교내 싸움, 담배 등으로 징계를 여러 번 받아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3) 출처: 연합뉴스(2010.08.19.). 광노현, 초중고 체벌규정 '즉시 삭제'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614432?sid=102>에서 2022.08.01. 인출.

보고가 있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연구참여자의 경우 이러한 교칙위반을 ‘별 거 아닌 걸’로 인식하고 있으며, 몸에 밴 습관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이 연구참여자의 경우 본인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고 계속 다니고 싶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의 나쁜 습관은 조기에 교정되어야 하는 만큼 학교에서 습관적 폭력, 담배 등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비행청소년을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교정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다섯 번을 다 걸려서.. (...) 놀다 보니까 그냥, 별 거 아닌 걸로 많이 걸렸어요.
싸움도 걸리고 담배로도 몇 번 걸리고. (...) 학교는 다니고 싶었어요.

- 기존 패널 2018년 1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학교의 반복되는 패턴, 일찍 등교해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스템, 틀에 박힌 학교 수업 등 얽매이는 학교생활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보고가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학교시스템은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고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현세대와는 맞지 않는다. 향후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더 이상 틀에 박히고 얽매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패턴이 너무 계속 똑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학교 가서 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리고 끝나면 집 가고. 또 다음 날 학교, 공부하고 집 가고 이 똑같은 생활 패턴이 싫었어요. 계속 똑같은 패턴 자체가 싫었어요.

- 기존 패널 2018년 7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표 II-6. 학교를 그만둔 이유(의미단위 포함)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기존 패널	신규 패널
개인 수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함	원하는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한일 이공계 구비 유학생 준비를 위해(21)	- 교환학생 준비를 위해(14)
		내에게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함(24)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사회생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7)	-
개인 수준	학교생활이 진로에 방해가 됨	높고 싶은 마음	- 높고 싶은 마음에 학교 결석(6) -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은 마음에 무단결석(11)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 전학을 많이 다녀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음(8) - 강제 전학 후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20)	- 과가 양따 주동자로 몰린 경험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12) - 실이 찌고 심리적으로도 계속 불안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20)
		학교생활이 진로에 방해가 됨	-	-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아깝고 다른 대학 진학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16) -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인지 회의가 됨(24)
학교생활	의미 없고 도움 되지 않는 학교생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돌아갔다고 생각함(2)	-	-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3)	-	-
		대학을 가는 데 학교가 득이 안 됨(9) 계속 늦잠 자고 학교 가는 게 귀찮음(14) 학교 나가기 귀찮고 재미가 없음(15) 학교라는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음(18) 학교생활의 의미를 잃고 필요성을 못 느낌(19) 학교에 큰 의미가 없음(22) 학교에 대한 건 다 싫음(24) 검정고시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둠(27)	-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3) -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15) - 학교에서 배우는 미술 같은 게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생김(19) - 공부 의욕이 없음(22)	

영역	의미단위		
	범주	하위범주	기존 패널 / 신규 패널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하고 진학 후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고 다른 진로를 탐색하고 싶었음(4) - 교육과정의 맞지 않음(23)
		비용, 효율, 시간적 측면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시간 등의 측면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함(18)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함을 느낌(2) - 민첩이 심해서 학교생활이 어려움(17) -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정함(20) - 건강상 문제(3) - 몸이 아픔(21)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돈을 버는 것이 시급함(3) - 집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아 돈이 필요했음(7) - 어머니가 직업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라고 권유함(10) - 돈을 벌어야 했음(23) - 가정 형편이 어려워 취업 금수번호를 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음(26)
가족 수준	가족 내 갈등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님과과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적인 아버지와와의 갈등(13)
		가족구성원 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의 잔소리(3) - 엄마와 누나의 싸움과 힘든 얘기를 묵인해 하는 게 괴로움(2) - 부모님의 이혼(26)
또래 관계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과거의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학교생활이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따돌렸던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에 오고 학교생활이 힘들(25)
		과거의 따돌림/괴롭힘 경험으로 현재의 학교폭력 피해로 이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때부터 안 좋았던 친구들과 고등학교까지 진학하면서 왕따를 당함(6)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기존 패널	신규 패널	
		<p>좋지 않은 소문과 떠돌림, 학교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사건을 겪음(8) - 집단 괴롭힘(12) -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떠돌림을 당함(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함께 일으킨 문제를 본인 혼자 저지른 것으로 몰려서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당함(18) 	
			<p>또래 관계, 사람 관계가 힘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관계(1) - 또래 관계의 문제(5) - 친구의 떠돌림 피해에 대한 좌절감(12) -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은 느낌이 있어서 힘들었음(15) - 짝이 좋지 않은 친구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음(19) -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21) - 아는 친구가 거의 없음(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관계의 문제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음(5) - 자신의 얘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교사를 보면서 그만둬야겠다고 결심(11)
			<p>주변 친구들의 학업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에 자극받음(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준	교사와의 문제	교사의 무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미흡한 대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갈등(7) - 선생님들이 다 싫었음(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들의 심한 통제와 폭력 행사(2) 	
학교 제도, 분위기		교직을 여러 번 아껴서 퇴학, 무단결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5번 받아 퇴학 처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이는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다니는 패턴에 대한 실증(7) - 밤 10시까지 아자를 해야 함(26) - 일찍 등교해야 하는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고 늦게까지 아자 시키는 게 맞지 않았음(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싫어함(1) - 틀에 박힌 학교생활(2) - 학교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는 게 힘들었음(10) 	

2)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관한 다층적 분석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면담 자료를 분석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그 동안 선행 연구들에서도 강조한 것과 같이 어느 하나의 요인만이 결정적인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희진 외,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이 요인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에 여기에서는 관련 요인들을 보다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한 후 그것이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학교를 그만둔 원인들이 여럿 있을 경우 이들 원인이 모두 비슷하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하나는 주된 원인이 되 다른 원인은 주된 원인을 강화하거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경향성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청소년들과의 면담 내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여 표 II-7, 표 II-8과 같이 개인별로 학교를 그만둔 원인들을 학교를 그만둔 주요 원인과 결합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원인과 결합 요인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참여자가 학교를 그만둔 원인으로 a, b, c를 병렬적으로 밝힌 경우는 모두 주요 원인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패널 연구참여자 9번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원인으로 엄마이는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의 힘들을 동일한 정도로 언급하여 이 둘을 모두 주요 원인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기존 패널 연구참여자 3번의 경우 1)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2) 어려운 가정 형편에 3) 엄마의 참견이 계속되다 보니 =>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옥한 마음에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였다. 이 경우 앞의 세 가지 원인은 주요 원인으로, 뒤의 원인을 결합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적용하여 주요 원인과 결합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7.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한 다층적 분석(기존 패널)

ID	학교를 그만둔 주요 원인	결합 요인
1	교칙을 여러 번 어겨서 퇴학	
2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교칙을 여러 번 어겨서 퇴학/무단결석 등
3	아버님이 돌아가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가족구성원 간 갈등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4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음	교칙을 여러 번 어겨서 퇴학/무단결석 등
5	과거의 따돌림/괴롭힘 원인이 현재의 학교폭력 피해로 이어짐	교사와의 형식적 상담
6	놀고 싶은 마음	
7	엄매이는 학교생활, 교사와의 갈등, 다양한 경험(아르바이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돈을 내는 것이 아까움
8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학교폭력	교사의 미흡한 대처
9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10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돈을 버는 것이 시급	
11	놀고 싶은 마음	교칙을 여러 번 어겨서 퇴학/무단결석 등
12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학교폭력,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음	부모의 권유
13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님과과의 갈등	가출로 인해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어려움
14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교칙을 여러 번 어겨서 퇴학/무단결석 등
15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6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음,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무단결석에 대한 교사의 지적
17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 학교폭력	
18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비용, 효율, 시간적 측면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19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비용/효율/시간적 측면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20	강제 전학 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함	교칙을 여러 번 어겨서 퇴학/무단결석 등
21	원하는 진로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22	학교의 필요성(의미)을 느끼지 못함	가족구성원 간 갈등
23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돈을 버는 것이 시급	
24	학교의 필요성(의미, 흥미)을 느끼지 못함, 교사와의 갈등	
25	가족구성원 간 갈등, 과거의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학교생활이 힘들	교사의 무관심
26	엄매이는 학교생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가족구성원 간 갈등, 주변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둔 데 자극받음
27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음, 엄매이는 학교생활, 학교의 필요성(의미, 흥미)을 느끼지 못함	교사의 학업 중단 권유

표 II-8.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한 다층적 분석(신규 패널)

ID	학교를 그만둔 주요 원인	결합 요인
1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얽매이는 학교생활	혼자 공부해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함
2	얽매이는 학교생활, 교사의 폭력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
3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4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음	
5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교사의 미흡한 대처	
6	원하는 진로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7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 학교폭력	교사가 만류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음
8	가족 내 갈등,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학교폭력	
9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학교폭력,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음	
10	얽매이는 학교생활	
11	틀에 박힌 학교생활	교사의 무관심
12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13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원하는 진로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14	원하는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5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학교의 필요성(의미)을 느끼지 못함	부모님의 권유
16	학교생활이 진로에 방해가 됨	
17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	
18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 학교폭력	
19	학교의 필요성(의미)을 느끼지 못함,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비용/효율/시간적 측면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20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21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
22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학교의 필요성(의미)을 느끼지 못함	가족구성원 간 갈등
23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음	부모님의 권유
24	학교생활이 진로에 방해가 됨, 나에게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원인들은 다년간의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나, 여기에서는 그 외에 다층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의미 있는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반면, 많은 경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어서인지 기존 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물론 연구참여자 중에는

교사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한 경우도 있었고 몇몇 청소년들의 경우 교사가 아무리 설득해도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교사의 무관심 및 미흡한 대처가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의 따뜻한 관심 및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 대해 교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학우들의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업 중단을 오히려 독려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 때문에 선생님인 내가 무슨 꼴이나 이게. 일론 나와라 나와서 말을 해라. 그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생각이 나죠. - 기존 패널 2022년 8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그런 상황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출석일수가 모자라니 학교를 매일 나오든지 아니면 결단을 해라 해서 그럼 자퇴하겠다고, 그래서 자퇴를 한 거죠. - 기존 패널 2022년 16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잘 안 되어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은 찾아가셨는데 별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서.. - 기존 패널 2022년 25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그때 당시 엄마가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다른 학교 애들이 위협 준다, 해결을 해달라,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까지 하긴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을 한 지 얼마 안되셨나 봐요,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 걸. 그래서 알겠다고만 하고 다른 애들한테는 연력이 오니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다 보니까 그냥 자퇴를 하게 된 거 같아요. - 신규 패널 2022년 5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뭔가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친구 문제로 힘들었는데 제 상황은 더 나아지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자퇴를 막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났어요. (...) 반을 옮겨주시거나 했으면 계속 다녔을 것 같아요. - 신규 패널 2022년 7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불편한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는지 같이 얘기하고 바꾸었다면 좀 더 다니거나 다른 학교에 가거나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학생이 그만 둔다고 했으니 왜 그만두는 건지 이유를 들었으면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 신규 패널 2022년 15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둘째, 또래 관계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는 신규 패널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수치상으로는 매년 학교폭력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 조사

에 따르면 언어폭력의 경우 2013년 학생 천 명당 13.6%이던 것이 2021년에는 7.4%로, 집단 따돌림은 2013년 6.6%에서 2021년 2.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9.6.).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정신적 상흔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원하는 진로에 집중하자고 결심하고 학교를 그만둔 후 실제로 진로에 매진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또래 관계의 어려움과 다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더욱이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 측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포자기하며 떠밀리듯 학교를 그만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들 청소년들은 면담을 통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더불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은 교사 및 학교 측의 대처에 아쉬움을 표하였으며, 어른들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기억으로 환기되어 어른이 된 이후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단 따돌림 및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엄정한 대처와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도 많았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집단으로 맞고 구타 당하고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진 애들이 얼굴 때리고 해서 상처도 많이 나고 멍도 많이 들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선생님의 대처였다고 생각을 해요.**

- 기존 패널 2018년 12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의 필요성(의미, 흥미 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 역시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래 면담 내용을 참고한다면 그 답은 쉽고 간단할 수도 있다.

하고 싶은 걸 찾아줬으면 다니지 않았을까요? 무작정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직업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걸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좀 더 다니지 않았을까요?**

- 기존 패널 2022년 22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학교를 그만둔 이유 중 학교생활이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상기해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향후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입학 및 대학 교육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진로 발달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을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이후 경험: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비교

본 절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이후 경험에 대하여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비교하고 그것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패널의 경우 국비 유학생을 준비하고자 학교를 그만둔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진로와 관련한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직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냥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가게나 차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 기존 패널 2018년 24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그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별로 없었으니까 자리가 생기면 가고, 또 질리면 그만두고 그랬어요.
(...) 처음에 엄마 소개로 회사에 들어갔어요. 공장, 거기서 몇 개월 안 하고 3, 4개월 하고 또 어디서 서빙 하거나 볼링장에서 일하거나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 기존 패널 2018년 14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스무 살 이후는) 그 좀 놀면서 알바 했어요

- 기존 패널 2018년 17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일단 학교 그만두고 1년은 편하게 놀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는 친구랑 친구의 아버지가 OO 계시는데 그쪽 가서 빵집 있잖아요. 거기서 좀 일하다가

- 기존 패널 2018년 26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반면, 신규 패널의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할 일을 명확히 정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학교를 그만둔 후 바로 검정고시를 보거나 토익 공부를 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여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등 진로 관련 활동들을 적극 수행하였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에는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에 대학교 입학을 희망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봤었어요
- 신규 패널 2022년 1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그때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가고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이쪽으로 빨리 취업을 하자는 생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틀만 잡았던 것 같아요.
- 신규 패널 2022년 1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저는 원래부터 학교를 다닐 때부터 대학교를 무조건 가야겠다고 생각했었던거예요. 학교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목표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 신규 패널 2022년 17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이처럼 기존 패널의 경우 진로 자체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고민조차 하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신규 패널들의 경우에는 기존 패널에 비해 진로에 대한 큰 목표는 가지고 학교를 그만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진로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도 있고, 특정 시점에 진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청소년들은 의논할 상대가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신규 패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신규 패널 10번 연구참여자의 경우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있고 전공 공부 는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으며 “그런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신규 패널 10번 연구참여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적성에) 맞을 것 같다가보다는 **별로 아무 생각 없이.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매번 음식점에서 일하기는 싫고.
- 기존 패널 3번 연구참여자 2018년 인터뷰

대학교 가려면 과를 정해야 하잖아요. 거기서 막막해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도 해보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대학교는 과를 딱 정해서 거기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못 정했어요. 과를 못 정해가지고, 그게 되게 싫었어요 하나를 딱 정해야 한다는 게 - 기존 패널 5번 연구참여자 2018년 인터뷰

진로가 확고하긴 한데 요즈음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 제가 생각했던 건 그냥 이론적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막상 실무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론이랑 현실이랑 조금 거리가 있더라고요.
- 신규 패널 8번 연구참여자 2022년 인터뷰

저는 **적성 검사,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신규 패널 2022년 10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지금은 사실 그림 학교를 가게 돼서 멀해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뭔가 진로 쪽으로 상담이나 그런 걸 도와주실 때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지 직업 체험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직업을 정한 아이들한테 뭔가 거기서 **심화돼서 거기 하고 싶은 분야에 전문가들 만나보거나 그런 체험이나 수업이 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 신규 패널 15번 연구참여자 2022년 인터뷰

즉, 학교를 그만둘 당시 어느 정도의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던 청소년들도 이를 위해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는 데까지는 순조롭게 계획을 실행하지만 대학 지원 시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그래서 어느 과에 가야 하는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탐색 및 계획은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진로 설정에 대한 지도 및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또 다른 차이점은 기존 패널이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는 현재와 같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프로그램이 아직 제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학업 중단 이전과 이후 상담을 받은 적도 없었고, 학업 중단 이후 가이드라인도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담센터인가? 그거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 기존 패널 1번 연구참여자 2018년 인터뷰

제가 처음에 학교를 나왔을 당시에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관에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몰랐고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전혀 제시가 안 됐어요. 학교에서 자퇴할 때는 뭔가 학업중단속려제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저는 거치지 않았고. (...) 게다가 학교에서 어디로 가봐라 하는 얘기조차 안 해줬으니까

- 기존 패널 25번 연구참여자 2018년 인터뷰

요즘은 학교 밖 지원센터 있잖아요. 저 땐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지금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00에 있을 땐 1년 반 정도 거기 멘토 했었거든요. 나 때도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졸업식 같은 것도 하고 어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캠프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 기존 패널 9번 연구참여자 2018년 인터뷰

반면, 신규 패널의 경우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꿈드림센터의 다양한 활동, 알바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탐색, 꿈드림센터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어디 막 놀러 다녔어요, 꿈드림에서도. 그러니까 박물관도 구경 가고, 그리고 식물 같은 것도 심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한 거 같아요. (...) 제가 못 하던 경험들을 거기서 해줬으니까, 연결시켰으니까, 프로그램을. 집에만 있던 나를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끌어내준 거. 네, 그게 도움이 된 거 같아요.

- 신규 패널 2022년 5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 시간만 허비했을 것 같은데 꿈드림센터에 나가니까 사회를 좀 더 알 수 있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학교 다닐 때랑 다르게 **그래도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구나**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 신규 패널 2022년 5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꿈드림에서 하는 알바 지원 프로그램이요 (...) 프로그램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처음 경험해봤고 **꿈에 대한 확신도 생겼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어요. - 신규 패널 2022년 17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꿈드림센터의 도움이) 많이 컸어요. 그것도 있었고 단기간에 정말 많은 걸 했다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가지가 카페도 있고 컴퓨터 쪽에서 선생님께서 뭘 어떤 걸 들으셨는데 **저를 꼭 기뻐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셨대요..**

- 신규 패널 2022년 2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선생님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해주시는 편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나 이런 것도 다 원래 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꿈드림에서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그때 맞춰서 했었거든요

- 신규 패널 24번 연구참여자 2022년 인터뷰

그러나 학교나 교사로부터가 아니라 부모님이 우연히 센터에 대해 알게 되어 권유했다는 사례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를 그만둘 당시 모든 청소년들에게 센터에 대한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저희 엄마가 먼저 검정고시 준비하느라 (꿈드림센터를 알게 돼서) **엄마의 권유로 다니게 됐어요.**

- 신규 패널 6번 연구참여자 2022년 인터뷰

또한 꿈드림센터의 지원 정도도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원비를 전액 지원해줘서 학원에 다니고 식사비용이나 버스비도 지원받은 경우도 있는 반면 책 이외에 수업을 지원해 주는 건 거의 없었다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미술학원은 꿈드림센터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셔서 다니고 있고** 그 외에도 학원 때문에 나오게 되면 **점심 식사비용이나 버스비나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계세요.

- 신규 패널 15번 연구참여자 2022년 인터뷰

책 같은 건 가끔 주시는데 **책 이외에 수업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 신규 패널 2022년 17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시에서 하는 꿈드림에서 사무직을 했었기 때문에 꿈드림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꿈드림이 편차가 큰 것 같더라고요.** 지역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물론 좋은 데를 다녔지만 **저보다**

지원을 못 받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신규 패널 2022년 10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어떻게 보면 OO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곳보다 학습 기관이 부족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어렵긴 했겠어요 - 신규 패널 9번 연구참여자 2022년 인터뷰

아울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꿈드림센터의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거나 꿈드림센터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면담에서 확인된 내용들 중 하나는 수능시험 준비 및 대학 응시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수능시험 준비를 막막해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데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수능 시험을 포기하고 검정고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데 검정고시 전형이 있는 학교는 대학 위세가 낮은 대학이 많아서 아쉬움을 표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또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지원할 때 복잡한 입시 전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해매는 청소년들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꿈드림센터에서 수능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었다.

아무래도 네임 벨류가 떨어지는 대학에 가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네임 벨류가 떨어지는 곳에 갔죠. (...) **검정고시 성적은 거의 최고 등급으로 나왔는데 검정고시로는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정돼 있어요.** 당연히 검정고시랑 수능 성적이 같을 수 없으니까요 - 신규 패널 3번 연구참여자 2022년 인터뷰

검정고시까지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지원을 받으면서 충분히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수능의 영역으로 뛰어드니까 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같이 공부할 사람이, 그게 지원도 부족하고** 나 혼자 걸어가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열정들이.. - 신규 패널 17번 연구참여자 2022년 인터뷰

아무래도 검정고시가 어려웠던 건 없는데 **대학교를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이었어요. 검정고시전형이라는 것도 저는 신청서 넣으면서 처음 알았고.** (...) 아예 그걸 표로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아무래도 학교별로 검정고시 성적에 대한 쳐주는 게 다르니까 수시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했던 게 힘들었어요. - 신규 패널 8번 연구참여자 2022년 인터뷰

셋째, 신규 패널의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된 이후 학교를 그만두면서 기존 패널보다 숙려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숙려제를 경험한 청소년 중 상당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편하게 쉬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는 청소년도 있긴 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는 숙려제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숙려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크며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안내조차 명확히 되지 않으므로 숙려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숙려제를) 꽤 오래 했는데 한 달인가 저는 그때 애들 수업하는 중간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게 진짜 좋았어요. (...) 그냥 뭔가 쉬는 느낌.

- 신규 패널 14번 연구참여자 2022년 인터뷰

(숙려제를) 위클래스에서 하거든요. 위클래스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신규 패널 2022년 17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숙려제는) 있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제가 그냥 그때 바로 한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하다가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추다가 해서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 신규 패널 2022년 11번 연구참여자 인터뷰

수업은 듣지 말고 위클래스에 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 출석 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석을 몇 번하고 아예 안 나갔어요.

- 신규 패널 20번 연구참여자 2022년 인터뷰

4)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다음으로는 자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경험들을 분석하여 그 의미와 함께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년간의 면담을 통해 자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자퇴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청소년들도 여러 해가 흐르면서 후회한다며 심경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반대로 후회한다고 했던 청소년들도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현재 자신의 인생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나 혹은 여전히 후회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들의 자퇴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9. 자퇴에 대한 후회 여부와 그 이유(기존 패널)

후회여부	이유(2018년 면담)
후회함/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편한 곳이었는데 일 시작하니까 많이 그리움 - 학교가 별로 재밌진 않았지만 교복 입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 - 또래친구가 없음 -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본 것은 괜찮지만 고등학교의 추억, 친구관계를 잃었음 - 학창시절이 없음 - 친구들이랑 같이 고등학교를 못 보낸 게 아쉬움
후회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둔 후 더 놀았음 - 자퇴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을 거의 없음 - 아무런 대책 없이 그만둠
후회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둔 건 전혀 후회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있음 - 검정고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문제 있어서 그만뒀다고 생각함 -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존감이 너무 낮아짐
후회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웠음 -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함 - (자퇴 후) 많은 걸 해본 것 같아서 좋음 - (자퇴가)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었음 - 일찍 사회를 경험한 것이 엄청 큼
후회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일찍 자퇴했으면 대학 가는 시간을 단축했을 거라고 생각함 - 학교 가는 시간을 줄이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음
후회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졌고 어른스러워짐 - 공부하는 습관을 기름 - 기술을 배움

표 II-10. 자퇴에 대한 만족도 변화와 그 이유(기존 패널)

만족도 변화	이유(2022년 면담)
만족도가 전보다 낮아지거나 계속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음 - 고등학교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음 - 동생이나 엄마가 학창시절 친구를 만나는 것을 보면 부러움 - 학교생활을 하면서만 배울 수 있는 공동생활이나 또래 친구와의 추억 등이 아쉬움 - 친구 관계가 적어진 거랑 친구들과 추억이 없음 -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음 - 보통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 친구나 다양한 선택의 폭을 생각하면 계속 다녔을 것 같음

만족도 변화		이유(2022년 면담)
	공부를 좀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 공부를 더 하고 직장을 구했으면 지금과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함 - 학교생활을 계속 했으면 대학교 진학에 관해서도 생각했을 것 같음
	딱딱한 삶	- 너무 혼자서 아등바등 살았음
	세상의 부정적인 편견	-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음
만족도가 전보다 높아지거나 계속 높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함	- 해방된 느낌이 듦 - 하고 싶은 걸 함
	경제활동을 통한 저축에 재미를 느낌	- 돈을 모으는 것이 재미있음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성장하고 가치관도 많이 열렸음 - 열심히 살았음 -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짐

먼저 기존 패널의 경우 2018년에 자퇴를 후회한다고 한 경우 그 이유를 범주화하면 ‘학교생활/또래 친구에 대한 그리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 ‘무분별/무계획적인 생활’, ‘세상의 부정적인 편견’ 등이 도출되었다. ‘또래 관계’는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학교를 그리워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그만큼 학창 시절의 또래 관계가 청소년 생활 전반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으로 바쁜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과 달리 대학 생활을 즐기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일이 바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학교를 그만둔 후 원하는 만큼 실컷 더 놀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그만둔 후 계획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무분별/무계획적인 생활’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둔 건 전혀 후회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거나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다는 이유 등 ‘세상의 부정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경험을 후회하거나 아쉽다고 보고한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다.

반면, 학교를 그만둔 걸 후회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축적함’, ‘효율적 시간 활용’, ‘나를 성장시킨 계기’ 등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응답을 한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으로 오히려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였고 그러한 경험이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좋았으며, 학업 중단 이후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지고 어른스러워졌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기술을 배우는 등 학업 중단이 스스로를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기존 패널의 2022년 면담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학업 중단을 후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학교생활/또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학업 중단을 후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상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자신이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해 후회한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좀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너무 혼자서 아등바등 산 것 같아 후회스럽다는 의견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이 제시된 이유로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수록 공부 혹은 학력의 필요성을 더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한다.

반면, 학업 중단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도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어서 등으로 비슷하였으며, ‘경제 활동을 통한 저축에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추가로 제시되었다.

표 II-11. 자퇴에 대한 후회 여부와 그 이유(신규 패널)

	후회여부	이유(2020년 면담)
후회함/ 아쉬움	학교생활/ 친구들과의 추억	- 또래 친구와 추억이 적은 게 아쉬움 -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
	시간 활용의 어려움	- 빈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심심함
	내 뜻대로 되지 않음	-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 - 꿈을 이루는 것이 힘들 때가 있음
후회하지 않음	감옥 같은 학교	- 학교가 싫었음 - 학교가 감옥 같았음
	학교폭력에서 벗어남	-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그만둔 거라서 후회하지 않음
	학교 밖 경험이 도움이 됨	- 학교 그만둔 후의 시간이 도움이 됐음 -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많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음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음 - 지금 생활이 좋음 - 학교를 그만두니까 자유로움
	친구들의 부러움	- 친구들이 부러워함 - 친구들도 바쁘게 사는 나를 부러워함

표 II-12. 자퇴에 대한 만족도 변화와 그 이유(신규 패널)

후회여부		이유(2022년 면담)
만족도가 전보다 낮아지거나 계속 낮음	학교생활/또래 친구에 대한 그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 조금 후회됨 - 학창시절 추억을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갑자기 밀려들 때가 있음 - 감성적인 추억의 느낌을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없고 외톨이가 된 느낌 -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음
	무분별/무계획적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만둔 게 후회스러움 - 생각보다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았음
만족도가 전보다 높아지거나 계속 높음	다양한 만남,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음 - 학교에 다녔으면 못 했을 것을 많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보다 원하는 방향도 빨리 찾고 많은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함
	효율적 시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그만두고 흡스쿨링한 것이 마음에 들었음 - 학교를 그만둔 덕분에 시간을 많이 벌어서 더 열심히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음
	목표한 바를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두고 실패하지 않아서 - 고등학교 자격증을 따서 나름 만족함 - 자격증도 따고 자퇴한 후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음 - 대학교에 진학해서 만족스러움 - 대학도 잘 들어갔고 학교를 그만둔 후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러움 -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음 - 여러 가지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의지가 있어서 후회하지 않음 -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자신감이 생김

신규 패널의 경우 2020년 면담에서 자퇴에 대해 후회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보면 기존 패널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친구들과의 추억’이 학업 중단을 후회하거나 아쉽다고 느끼게 하는 주요 이유로 보고되었다. 그 외 시간 활용이 어렵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반면, 기존 패널과 달리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이나 세상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학업 중단을 후회한다는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자퇴를 후회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교가 감옥 같고 싫었으며,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그만둔 거라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등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학업 중단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견도 제시된 반면, 학교 밖 경험이 도움이 된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학업 중단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긍정적 이유도 다수 제시되었다.

신규 패널의 2022년 인터뷰 중 자퇴에 대한 만족도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기존 패널과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신규 패널 역시 ‘학교생활/또래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학업 중단을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었다. 학업 중단 후 ‘무분별/무계획적인 생활’로 인한 후회 역시 기존 패널과 비슷하게 발견되었다.

반면, 학업 중단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로 신규 패널 역시 기존 패널과 유사하게 ‘다양한 만남,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목표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는 기존 패널과 구분되는 신규 패널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신규 패널은 진로 목표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할 일을 명확히 정한 후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를 그만둔 후 자신의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면서 학교를 그만둔 데에 오히려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스스로 의지가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 밝히는 등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역시 기존 패널과 다른 차이점이다.

이러한 자퇴에 대한 기존 및 신규 패널의 생각을 통해 연구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로서 ‘의미’있는 다양한 경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스스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주목한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교의 필요성과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청소년이라도 사회에 나가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학업 중단을 후회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13. 자퇴에 대한 후회(기존 패널)

ID	후회여부	이유(2018년 면담)
1	후회함	학교는 편한 곳이었는데 일 시작하니까 많이 그리움
2	조금 후회함	학교가 별로 재밌진 않았지만 교복을 입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
3	후회하지 않음	자유로웠음
4	후회하지 않음	(자퇴 후) 많은 걸 해본 것 같아서 좋음
5	후회함	본인은 일을 하는데 대학생인 친구들이 부러움
6	후회하지 않음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함
7	후회하지 않음	(자퇴가)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었음
8	많이 후회함	후회가 많이 됨

ID	후회여부	이유(2018년 면담)
9	후회하지 않지만 아쉬움	아르바이트도 해 보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본 것은 괜찮지만 고등학교의 추억, 친구관계를 잃었음
10	다소 후회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지 못함
11	후회하지 않지만 아쉬움	가끔씩 좀 심심함
12	아쉬움	학창시절이 없음
13	후회하지 않음	일찍 사회를 경험한 것이 엄청 큼
14	후회함	일 다니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음
15	후회하지 않음	더 일찍 자퇴했으면 대학 가는 시간을 단축했을 거라고 생각함
16	후회하지 않지만 아쉬움	학교를 그만둔 건 전혀 후회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있음
17	많이 후회함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존감이 너무 낮아짐
18	후회함	또래 친구가 없어서
19	후회하지 않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졌고 어른스러워짐
20	많이 후회함	학교를 그만둔 후 더 놀았음
21	후회하지 않음	공부하는 습관을 기름
22	후회는 하지 않지만 아쉬움	친구들이랑 같이 고등학교를 못 보낸 게 아쉬움
23	후회하지 않음	학교 가는 시간을 줄이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음
24	후회하지 않음	기술을 배움
25	후회함	자퇴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음
26	후회함	아무런 대책 없이 그만둠
27	후회함	검정고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문제 있어서 그만뒀다고 생각함

표 II-14. 자퇴에 대한 만족도(기존 패널)

ID	이전	이후	이유(2022년 면담)
1	0점	5점	돈을 모으다 보니까 살짝 재미있음
2	1점	1점	공부를 더 하고 직장을 구했으면 지금과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함
3	5점	5점	이미 한 일에 후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함
4	9-10점	1점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5	7점	7점	해방된 느낌이 듦
6	10점	10점	하고 싶은 걸 함
7	10점	8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음
8	3점	5점	학교를 나와서도 배운 게 있으니까
9	10점	10점	열심히 살았음
10	9점	9점	특별히 이유를 말하지 않음
11	8-9점	0점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음
12	7점	7점	일진에 대한 처벌 제도가 있었으면 학교를 다녔을 것임

ID	이전	이후	이유(2022년 면담)
13	10점	3점	고등학교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음
14	8점	8점	각자 만족하는 삶을 찾아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함
15	9점	9점	여전히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16	7점	2-3점	동생이나 엄마가 학창시절 친구를 만나는 것을 보면 부러움
17	6점	3점	학교생활을 하면서만 배울 수 있는 공동생활이나 또래 친구와의 추억 등이 아쉬움
18	8점	9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성장하고 가치관도 많이 열렸음
19	6점	1점	너무 혼자서 아등바등 살았음
20	7점	3-4점	학교생활을 계속 했으면 대학교 진학에 관해서도 생각했을 것 같음
21	5점	10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짐
22	7점	7점	친구 관계가 적어진 거랑 친구들과 추억이 없음
23	10점	10점	특별히 이유를 말하지 않음
24	내용 없음		
25	10점	7점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음
26	10점	2-3점	보통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듦
27	10점	6점	친구나 다양한 선택의 폭을 생각하면 계속 다녔을 것 같음

표 II-15. 자퇴에 대한 후회(신규 패널)

ID	후회여부	이유(2020년 면담)
1	후회하지 않지만 아쉬움	또래 친구와 추억이 적은 게 아쉽긴 하지만 후회하지 않음
2	후회하지 않음	학교가 싫었음
3	후회하지 않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음
4	후회하지 않음	지금 생활이 좋음
5	조금 후회함	빈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심심함
6	후회하지 않음	학교 그만둔 후 시간이 도움이 됐음
7	후회하지 않음	친구들도 (학교를 그만둔 걸) 오히려 부러워함
8	후회하지 않음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그만둔 거라서 후회하지 않음
9	전혀 후회하지 않음	중학교 때부터 학교가 감옥 같았음
10	후회하지 않음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많았음
11	후회하지 않음	학교가 감옥 같았음
12	후회한 적이 있음	친구랑 연락했는데 학교 다닐 때가 생각나서 후회가 됐음
13	후회하지 않음	친구들도 바쁘게 사는 나를 보며 오히려 부러워함
14	후회하지 않지만 아쉬움	대학도 빨리 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워서 후회하지는 않지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
15	내용 없음	
16	후회하지 않음	학교를 그만두니까 자유로움

ID	후회여부	이유(2020년 면담)
17	후회하지 않지만 아쉬움	학교에서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학교를 그만둔 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18	후회는 하지 않지만 힘들 때가 있음	필요에 의해 자퇴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지만 힘들 때가 있음
19	후회하지 않음	오랫동안 고민한 후 자퇴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음
20	후회하지 않음	괜찮다고 생각함
21	후회하지 않음	후회한 적이 아예 없음. 애들이랑 노는 건 조금 아쉬움
22	후회하지 않음	후회한 적 없음
23	후회하지 않음	후회라기보다는 학교를 나오고 단점이 있으니까 그게 좀 싫다 정도
24	후회하지 않음	아직까지는 후회한 적 없음

표 II-16. 자퇴에 대한 만족도(신규 패널)

ID	이전	이후	이유(2022년 면담)
1	7점	9점	고등학교 자격증을 따서 나름 만족함
2	9점	8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 조금 후회됨
3	9점	10점	학교를 그만둔 선택으로 많은 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좋음
4	6-7점	8-9점	자격증도 따고 자퇴한 후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음
5	8점	4점	너무 어린 나이에 급하게 결정을 한 것 같아 후회됨
6	8점	9점	학교를 그만둔 후 다시 다니니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짐
7	9점	10점	대학교에 진학해서 만족스러움
8	9점	10점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해야 소용 없으므로
9	10점	9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만둔 게 후회스러움
10	8점	10점	대학교 잘 들어갔고 학교를 그만둔 후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러움
11	8-9점	8-9점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음
12	7점	5점	혼자 다 해야 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음
13	8점	9점	스스로 의지가 있어서 후회하지 않음
14	10점	5점	감성적인 추억의 느낌을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없고 외톨이가 된 느낌
15	7점	9점	학교 그만두고 홈스쿨링한 것이 마음에 들었음
16	10점	10점	학교를 그만둔 덕분에 시간을 많이 벌어서 더 열심히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음
17	8점	6점	생각보다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았음
18	10점	10점	학교를 그만두고 실패하지 않아서
19	9점	9점	여러 가지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음
20	5점	10점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음
21	9점	6.8점	학창시절 추억을 쌓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갑자기 밀려들 때가 있음

ID	이전	이후	이유(2022년 면담)
22	8.5점	10점	예전에는 이게 맞나 확신이 없었는데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자신감이 생김
23	7.5점	9.5점	학교에 다녔으면 못 했을 것을 많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보다 원하는 방향도 빨리 찾고 많은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함
24	9점	9점	10점이긴 하지만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음

5) ‘자립’에 대한 생각을 통해 살펴본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의 특징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의 특징으로서 ‘자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패널의 경우 2018년과 2022년 면담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이전과 지금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규 패널의 경우 2022년 면담 자료만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자립’에 대한 인식에서 두 집단의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두 패널들 자료를 함께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II-17. ‘자립’에 대한 인식 분석

범주	의미 단위
물리적 독립	집 나와서 혼자 독립해서 부모님 도움 없이 생활하는 거,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 거
경제적 자립	돈 버는 것,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부모님 돈이 일절 안 들어가는 거, 경제적 독립, 안정적 수입/정기적인 경제적 활동
물리적 독립 + 경제적 자립	독립해서 지원 없이 사는 거, 혼자서 의식주를 책임질 수 있는 상태, 멀리 떨어져서 자기 혼자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
경제적 + 심리적 자립	경제적/심리적 독립, 스스로 돈 벌고 알아서 잘 하는 것
심적 태도	노력/참을성을 키우는 것, 혼자 스스로 해나가는 것, 책임감, 점잖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자기 의지가 있는 것, 스스로 컨트롤, 정신적으로 철이 들어야 어른임

자립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정의를 범주화한 결과, 크게 1) 물리적 독립, 2) 경제적 자립, 3) 물리적 독립 + 경제적 자립, 4) 경제적 + 심리적 자립, 5) 심적 태도의 다섯 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물리적 독립으로서의 자립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 집 나와서 부모님 도움 없이 생활하는 것 등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립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 거**

- 신규 패널 연구참여자 19번 20122년 인터뷰

두 번째, 경제적 자립은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자립으로 본다. 세 번째는 앞의 물리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를 자립으로 정의한다. 네 번째, 경제적 자립+심리적 자립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경제적으로 돈 벌고 심리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일을 알아서 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립 완전 **재정 상태**가...

- 기존 패널 연구참여자 26번 2022년 인터뷰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부동산을 등기를 쳐서 거기에 전입을 해서 **혼자 독립해서 지원 없이 산다는 거** 거기서부터 자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기존 패널 연구참여자 21번 2022년 인터뷰

저는 자퇴하고부터 용돈을 아예, 제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 응답자 심리적 자립도 좀 높은 편인 거 같아요.

- 신규 패널 연구참여자 21번 2022년 인터뷰

마지막으로 심적 태도는 물리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립이 아닌 ‘책임감’, ‘자기 의지’, ‘정신적 성숙’ 등을 자립이라고 본 것으로 그 외에도 ‘점잖음’, ‘자기 컨트롤’ 등의 태도가 추가로 언급되었다.

정신적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 많이 먹어서도 철없고 잘못된 행동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정신적으로 철이 들어가 어른 ...

- 기존 패널 연구참여자 13번 2018년 인터뷰

다음으로 스스로 자립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기존 패널의 경우 대부분 20대 초였던 2018년에는 자립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2022년에는 거의 자립했거나 자립하는 과정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립했다라는 답변이 다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등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아 성인기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관찰되었다. 아울러 자립이 무섭고 자립의지도 많지 않다, 경제적 자립을 최대한 안 하고 싶다 등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퇴행이 의심되는 답변도 일부 확인되었다.

반면, 신규 패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아서인지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자립하지는 못 했지만 자립의지가 있다, 자립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수준의 답변 정도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 패널과 마찬가지로 자립 자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자립하고 싶지 않다

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상적인 성인기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결혼했기 때문에 자립했다고 보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아직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아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자립했다고 보는 인식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 결혼해서 비록 부모님으로부터는 독립하였더라도 배우자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등 의존의 대상이 단순히 부모님에서 배우자로 바뀐 경우 이를 자립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면 (정서적으로 의지할) 새로운 상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 기존 패널 연구참여자 9번 2018년 인터뷰

이상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자립'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성인기 이행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기존 패널의 경우 전에는 자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지만 몇 년 후에는 자립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 있어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립하지 못 하였거나 자립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일 것이다. 기존 패널 중 여전히 상당수가 자립하지 못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신규 패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규 패널에서 자립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이 이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20대 중후반의 나이인 기존 패널에서도 상당수가 자립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립을 크게 심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으로 구분했을 때, 이들의 경우 둘 중 한 쪽, 혹은 양쪽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면담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이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측면에서의 도움은 1) 또래, 교사, 부모 등 인간관계에서 받은 정서적 상흔 치료, 2) 사회의 편견 극복, 3)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자기주도성 함양 등이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1) 학교를 그만둔 후 일자리 제공, 2) 구체적인 진로 목표 설정 및 진로 설계와 추진 방법에 대한 교육, 3) 안정적 일자리 취업에 대한 교육 등이 요구된다. 이 때 경제적 측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질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주에서 향후 성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의미한다.

표 II-18. '자립'에 대한 인식과 경험(기존 패널)

ID	자립에 대한 정의	자립 여부와 이유	
		2018년	2022년
1	노력/참을성을 키우는 것	아직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80% 정도 자립했다고 생각함
2	혼자 스스로 해나가는 것	한 게 없어서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결혼했고 애기가 있고 집도 있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립했다고 생각함
3	책임감	아직 돈이 없음	먹고 살 수 있으므로
4	점잖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옛날에는 까불고 그랬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하고 행동함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립했다고 생각함
5	혼자 해나가는 것	30% 정도 자립한 것 같음. 의지가 많이 부족	경제적, 심리적으로 훨씬 전에 자립했다고 생각함
6	책임감 없이 할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	하기 싫어도 꼭 참으면서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살	결혼했음
7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것 자기 의지가 있어야 함	부족하지만 자립했다고 생각함	자립했다고 생각함
8	혼자 사는 거, 경제적인 측면	혼자 나가서 살아봤으나 힘들었음	자립이 무섭고 아직은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자립의지도 많지 않음
9	알아서 해결하고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는 것	경제적으로는 자립했고 정서적으로는 자립하지 못한 것 같음	거의 자립을 했음
10	자기 배는 자기가 일해서 채우는 거, 자신을 위한 독립	아직 어른이 되기 싫음	아직 집이 완전하지 않아서 자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11	책임지는 사람, 돈 버는 것	자꾸 일에 빠져서 아주 많이 부족함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 자립했다고 생각함
12	직장을 다니고 누구의 도움 없이 행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아직 대학 졸업도 못 했고 취업도 안 해서 30-40% 정도	직장을 쉬고 있어서 자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13	정신적으로 철이 들어야 어른임,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것	정신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음	아직 정서적으로 어머니한테 많이 기대고 있어서 자립하지 못했다고 생각함
14	집 나와서 혼자 독립해서 부모님 도움 없이 생활하는 거	결혼하면 자립이 가능할 것 같음	경제적 자립은 조금 됐지만 심리적 자립은 아직 안 됨
15	혼자서 일어서는 게 자립이지만 곁에 누가 있어야 함	자립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함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16	돈을 부모님에게 빌리지 않는 거 또는 따로 사는 거	아직 자립하지 못함 (2년 안에 자립할 거라고 생각함)	경제적 자립을 최대한 안 하고 싶음. 심리적 자립도 완전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17	자신의 자유를 책임질 수 있는 거	아직 자립하지 못함. 나이만 먹은 성인이라고 생각함	(어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쉽게 바람
18	경제적, 심리적 독립	경제적으로 거의 자립했다고 생각함	자립하긴 했지만 여전히 소소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음

ID	자립에 대한 정의	자립 여부와 이유	
		2018년	2022년
19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것	자립하지 못 했음	경제적으로는 자립했으나 심리적으로는 아직 생각하는 게 어린 것 같음
20	경제적 독립	아직 자립하지 못함 (4년 정도 뒤에 할 수 있을 것 같음)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있어서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21	독립해서 자원이 없이 사는 거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므로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음)
22	경제적으로 혼자 독립하는 거	자립하지 못함 (서른 초중반에 자립할 것 같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서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23	혼자 스스로 벌어들여 먹고 쓰는 데 지장 없는 것	자립했다고 생각함	자립했다고 생각함
24	스스로 돈 벌고 일어서 잘 하는 것	아직 자립하지 못함(돈을 막 씌)	자립했다고 생각함
25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	아직 자립하지 못함(대학교 졸업할 때쯤 자립할 거라고 생각함)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26	재정적 독립	아직 자립하지 못함(자립하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릴 것 같음)	자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함
27	스스로 다 할 줄 알게 되는 방법을 아는 것	3년 정도 혼자 살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옴	조금씩 자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함

표 II-19. '자립'에 대한 인식과 경험(신규 패널)

ID	자립에 대한 정의	자립 여부와 이유
1	혼자서 의식주를 책임질 수 있는 상태	아직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2	혼자 생계 급여 다 할 수 있는 돈도 벌고 혼자만의 집도 있는 상황	아직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3	경제적 자립	자립하고 싶지 않음
4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부모님 돈이 일절 안 들어가는 거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5	자립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음	부모님과 함께 살면 돈을 아낄 수 있어서 독립 생각은 없음. 심리적 자립이 된 것 같지 않음
6	스스로 미래를 가꿔 나갈 수 있는 힘	자립하고 있는 중
7	독립이랑 비슷한 느낌	아직 되게 어린 것 같아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건 없음
8	정신적, 경제적 독립	자립의지도 있고 자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9	자립은 독립이라고 생각함	자립하지 못함
10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음
11	내가 쓸 돈을 내가 벌 때	혼자 살면서 혼자 선택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받아들임
12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ID	자립에 대한 정의	자립 여부와 이유
13	경제적 측면	심리적으로는 자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 자립할 생각이 없음
14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하는 거	자립했다고 생각함
15	경제적, 심리적으로 혼자 해내고 책임지는 것	자립의지는 있으나 아직 자립하지는 못함
16	자립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지 않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쪽으로는 자립했다고 생각함
17	정신적으로 연결되는 물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것	자립의지는 있지만 아직 자립하지는 못함
18	돈을 벌어서 안정된 삶을 얻는 거	자립 자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음
19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 거	자립할 생각이 없음
20	물리적, 정신적 독립	엄마랑 떨어져 살고 있다는 점에서 자립했지만 엄마랑 연락하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자립하지 않은 것 같음
21	경제적, 심리적 자립	경제적 자립은 80%, 심리적 자립은 90%
22	멀리 떨어져서 자기 혼자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	자립의지가 있지만 아직 자립하지는 못함. 자립을 위해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음
23	가족에게 아무 의존 없이 혼자 설 수 있는 상태	경제적 자립은 1/5, 심리적 자립은 2/3 정도
24	안정적 수입, 정기적인 경제적 활동	아직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아서 완전히 자립하지는 못함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본 장에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주제가 분석되었다. 첫째,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종합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그 이유들을 다층적으로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및 함의는 무엇인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자퇴 경험에 대한 인식에 있어 과거와 현재의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살펴본 성인기 이행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주제 분석은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개인 수준 영역에서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미 없고 도움되지 않는 학교생활,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가족 수준 영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가족 내 갈등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또래 관계 영역에서는 집단 따돌림

과 학교 폭력, 또래 관계·사람 관계가 힘들, 주변 친구의 자퇴가, 마지막으로 학교 수준에서 교사와의 문제, 학교 제도·분위기의 범주가 학업 중단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좀 더 다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무관심, 미흡한 대처 등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한다. 둘째, 또래 관계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는 신규 패널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발견되었는데 이 경우 학생들은 학교 측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학교를 그만둘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은 그들에게 평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왕따 및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및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필요성(의미, 흥미 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역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이에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진로지도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 주제인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이후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에 있어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비교를 통해 발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패널의 경우 대부분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반면, 신규 패널의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할 일을 명확히 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에는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은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신규 패널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신을 가진 진로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채 단기적 목표만을 설정한 경우가 많아서 단기 목표를 이룬 후에는 다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였다.

둘째, 기존 패널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아서인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반면, 신규 패널의 경우에는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한 활동 및 경험이 의미있고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꿈드림센터 정보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점, 지역에 따라 꿈드림센터의 지원 정도가 다르다는 점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셋째, 숙려제와 관련해서도 기존 패널보다 신규 패널이 숙려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많은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숙려제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숙려제가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경험들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이 자퇴를 후회하는 주요 이유로는 기존 패널의 경우 '학교생활/또래친구에 대한 그리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 '무분별/무계획적인 생활', '세상의 부정적인 편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후회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축적함', '효율적 시간 활용',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규 패널의 경우에도 '학교생활/또래친구에 대한 그리움', '시간 활용의 어려움', '내 뜻대로 되지 않음' 등이 학업 중단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이유로 확인된 반면, 신규 패널에서는 기존 패널과 달리 '세상의 부정적인 편견'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면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점이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전에 비해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었거나 혹은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세상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면담 자료로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바,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 외 신규 패널이 학업 중단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로는 감옥 같은 학교가 싫어서, 학교폭력에서 벗어남, 학교 밖 경험이 도움이 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음, 친구들의 부러움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 기존과 신규 패널의 자퇴에 대한 만족도 변화와 그 이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에 '의미' 있는 다양한 경험,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이 있다면 학교를 그만두고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립'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자립'을 '물리적 독립', '경제적 자립', '물리적 독립+경제적 자립', '경제적+심리적 자립', '심적 태도' 등으로 인식하였다. 기존 패널의 경우 2018년에는 스스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2022년에는 거의 자립했거나 자립하는 과정이라는 답변과 함께 자립했다라는 답변이 다수 있었다.

신규 패널의 경우에는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자립 자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자립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정상적인 성인기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모두 아직 자립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함께 자립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중단 연구를 통해 그 동안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도출되었으며(예, 김희진 외, 2020; 김희진 외, 2021a), 본 연구에서도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학업 중단전과 후,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 등에서 다양한 부문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여기에서는 그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간과한 부분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전, 혹은 학업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겪는 교사의 무관심 및 미흡한 대처를 포함한 교사와의 갈등 관계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서 기능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특히 대학 진학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을 진행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퇴학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다(김종우, 주수산나, 2018). 면담 중 교사가 자신에게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학교를 더 다녔을 것이라며 아쉬워한 청소년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방증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교사와의 면담, 학교를 그만두려는 이유 및 문제점 파악,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적극적 해결 노력 등이 수행된다면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성급한 결정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하고 교육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업 중단 전 숙려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숙려제가 청소년들에게 매우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으나(김종우, 주수산나, 2018) 이들 연구들은 숙려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숙려제가 이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숙려제가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학업 중단 과정에서 학업 중단을 명칭 그대로 진지하게 ‘숙려’할 수 있는 장치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전보다 많아졌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으로서 꿈드림센터의 위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분명하게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에 기대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므로 꿈드림센터의 기능을 보다 다양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개인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으나 수요 조사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심리적·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심리 상담, 경제 활동 지원, 진로 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이 사회의 성인으로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제반 사항들을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년간의 패널 면담 자료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진로 목표가 명확한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했던 자퇴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진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무계획적인 생활을 하거나 당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아무 것도 명확하게 이룬 것 없이 학교를 그만둔 결정을 후회하기에 이른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본 연구 결과는 목표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궁극적으로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진로 교육의 강화는 비단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지만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무의미한 학교 생활을 지속하는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러한 적성과 흥미에 따른 교과목 선택까지 함께 수반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아울러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1차적으로 사회에서 소수자가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남들보다 빨리 고교 졸업장을 따더라도 검정고시

전형으로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소외의식을 경험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급한 지원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것이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이들을 배려하는 대입전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제3장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분석방법
- 3. 분석결과
-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장에서 분석할 중단 자료는 2013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연구의 양적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해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인터뷰 자료이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양적 조사는 2018년부터는 질적 조사로 전환이 되었으며, 2018년에 첫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진 후 2019년, 2020년에는 해마다 조사가 이루어졌다(김희진 외, 2020; 윤철경 외, 2018; 장근영 외, 2019).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구 주제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질적 조사는 2022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질적 조사에 기반을 둔 연구보고서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에는 질적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학업중단 계기와 학업중단 이후의 삶과 경험 등을 분석하였다(윤철경 외, 2018). 2019년에는 2차 년도에 걸친 질적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고, 2년간의 변화와 자아, 가족, 또래,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장근영 외, 2019). 2020년에는 3차 년도 질적패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도시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김희진 외, 2020). 2021년에는 2018년부터 축적된 질적 중단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의 특징, 부정적 생애사건과 심리·정서적 특성, 자립 및 진로실패 등을 살펴보았다(김희진 외, 2021b).

2018년부터 주기적으로 참여해 온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제 20대 중·후반에 이르러 후기청소년기 혹은 성인기로 접어들고 있다. 1994년부터 1997년에 태어난 이들은 2013년 조사 시점에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2022년 현재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에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삶의 궤적을 지나왔다. 이들의 생애과정에서 학업중단이라는 결정은 선택 이전의 생애과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고 또 그 이후의 삶의 과정에도

4) 이 장은 외부공동연구원인 조혜영 교수(공주교육대학교)가 집필하였다.

일정정도의 영향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업중단 후 10여 년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로 양적 분석이나, 질적 횡단 분석 등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가 주를 이루었기에 단기적 시각에서의 요구에 대한 대응, 결핍에 대한 보충 등의 정책 대안을 모색해왔다. 일부 질적 연구들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나 반응이 달라짐을 보이고 있는데, 학업을 그만 둔 시점에서 갈등이나 방황을 하며 불안을 느끼는 등 부정적 정서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반면(김영희, 2015; 이은자, 송정아, 2017), 학업 중단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며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사례들을 보고하기도 한다(육성필, 남옥남, 박지란, 박성혜, 김은영, 2017). 그리고 학업 중단 직후에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안감이나 주변의 낙인, 혹은 아쉬움 등으로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됨을 보이는 연구들도 있다(조아미, 이진숙, 2014; 조혜영, 김영란, 2018; 황연경, 홍은영, 2018). 본 연구에서는 보다 장기적 진로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학업 중단 과정과 그 이후 어떠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진로를 개척해나가는지, 어떠한 장애와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등에 대한 증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진로궤적 등 생애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의 배경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이라는 선택이 갑자기 이루어진 이벤트가 아니기에 개인의 선택에 작용하고 있는 관련 배경 요인들은 학업중단 이후 생애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배경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인 학교 부적응이나 가족 내 갈등, 개인적·심리적 문제 등이 학업중단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는 경향임을 보이고 있다(명소연, 조진옥, 2016; 이은자, 송정아, 2017; 조혜영, 김영란, 2018; Feldman, Smith, & Waxman, 2017). 결국 학업중단 과정에서 작용한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는 생애과정에서 축적된 궤적에 의해 설명될 것이며, 학업중단이라는 선택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개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생애과정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 이론은 ‘발달의 과정이나 결과는 개인이 지속해 온 삶의 궤적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Rumberger, 2011: 146; 윤철경 외, 2013: 39에서 재인용).

생애과정관점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삶의 궤적을 설명하는 보고서에서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았으

며, 중요한 변수들을 개인적, 관계적, 제도적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3: 40-41). 개인적 수준에서는 심리·정서적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계적 수준은 학교와 가정으로 구분되며, 학교에서는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의미한다(윤철경 외, 2013: 40-41). 제도적 수준은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의미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3: 40-41).

한편,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선행 보고서에서는 조사 시점 이전 13개월 동안의 경험 혹은 학업중단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로 경험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윤철경 외, 2013). 먼저, 학업형은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직업형은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니트형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 비행형은 가출을 하거나 시설 거주로 범주화하였다(윤철경 외, 2013: 203). 2014년 연구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외에 무정형을 추가하였는데, 이 유형은 어느 유형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우며,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유형을 의미하고 있다(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211).

진로유형에 대한 단기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비교적 초기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무업형의 경우 개인적 차원, 부모의 관심 차원, 진로 관심이나 미래에 대한 낙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직업형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개인의 심리·정서적 측면이 건강하고, 타 집단에 비해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 진로탐색활동, 교육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 319-320). 그리고 학업형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직업형보다 낮지만,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수준, 비행성향, 학교 규칙 위반 수준 등이 낮으며, 학업 중단 후 검정고시를 통한 졸업장 취득에 대한 의지가 크고, 진로탐색활동과 교육 기대수준, 미래에 대한 낙관성, 학력 증시 태도 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5: 319-320).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을 분석한 2016년 연구에서도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성윤숙, 2016). 이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단조사에 참여한 일반 패널 분류에서 학업복귀형, 학업지속형, 학업직업전환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고, 4차 패널에서의 유형은 3차 조사결과 이후 1년 간 경험을 토대로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으로 유형분류를 하였다(성윤숙, 2016). 이들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전환, 직업학업형전환, 긍정적 경로전환, 부정적

경로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6가지 분류로 구성하였다(성운숙, 2016). 학업형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 경로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직업형의 경우 경로 전환이 많은 편으로, 무업형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다(성운숙, 2016).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분석을 시작한 2018년 보고서에서는 2013년부터 5년간 양적 패널조사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표본 추출하여 질적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진로이행 경로별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8). 2013년에 1차 구축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776명 중 5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217명을 대상으로 학업, 직업, 무업형 등 이행경로별 20명씩 60명을 추출하였으며, 거주지와 성별을 안배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윤철경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을 통해 기존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진로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면, 학업형은 대체로 자격증이나 고시를 위한 공부와 학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직업형은 미래의 일과 목표를 위해 공부하거나, 현재 버는 돈을 저축, 현재 진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 당장의 생활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학원비나 등록금 부족 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였다(윤철경 외, 2018). 무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무기력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참여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윤철경 외, 2018: 215).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를 배경으로 본 장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단기적 시점에서 구분된 진로유형에 따른 삶의 궤적은 과거 10여 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삶의 궤적은 학력 취득, 일 경험, 진로와 취업 현황, 가족 및 거주형태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자립을 위한 실제적 과정은 어떠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참여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기존 패널 참가자들 중 면접자료 분석 대상자들의 경우 연령대가 후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에 해당되는 참가자들이므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 사례,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는 사례, 학력 취득 과정에서 학업 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 중단 후 단기적 시점에서는 대체로 직업형, 학업형, 무업형 등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일 경험을 하거나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학업중단 후 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 생활 사건이나 인물 등에 대한 회고적 스토리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경험, 가족, 친지, 주요 사회적 자본 등은 어떠한 배경으로 작용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스스로 가족

을 이룬 경우 가족의 존재가 자신의 진로에 어떠한 의미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끝으로 현재적 시점에서 학업중단 직후, 학업중단 후 단기적, 중장기적 지원 방안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방법

1) 분석개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인터뷰 자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질적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선정은 목적표집에 의거하였다. 애초에 목적 표집은 인터뷰 참가자를 섭외할 때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식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인터뷰 자료에 대한 질적 중단 분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진로궤적을 중심으로 2013년에 범주화된 진로유형인 직업형, 학업형, 무업형으로 범주화된 청소년들로부터 선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22년 인터뷰까지 참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가능한 다양한 생애경험을 한 사례들을 포함하고자 결혼 등 자신의 가족을 이룬 참가자들을 포함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이들은 남자 7명, 여자 6명이었으며, 이 중 결혼(혹은 동거) 한 참가자가 4명이었다. 출생년도는 1994년부터 1997년으로 2022년 현재 만 나이는 25세부터 28세에 이른다.

표 III-1.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주요 특징 및 삶의 주요 궤적(진로 중심)

구분	이름 (가명)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학업 중단 시기	학업을 그만둔 이유	최초 학교 밖 유형	최종 학력	진로관련 주요 상황				현재 취업 경로	가족/ 기타	
									2013~2018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1	인○준	남	94년	중소 도시	고2	싸움, 졸업 등 퇴학 대신 자퇴로 처리	직업형	고교 중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주점 아르바이트 • 식당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아르바이트 • 학업중단 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점 서빙/전기 관련 자격증 공부 병행(대학 진학 생각) •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장 배달 아르바이트/군면제/대학진학 포기 • 자녀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공장 정규 직 취업/특수 운송 차량 자격증 취득 계획/자퇴로 귀직 어려움 경험 	가족 소개 자녀 2	결혼, 자녀 2
2	강○	남	95년	중소 도시	고1	학교결석이후 자퇴	무업형	2년제 대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토바이 사고 • 2년제 대학 진학(제과제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척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운영(점포 1개 확장) • 결혼/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운영 • 경제적 여유 • 결혼, 자녀출산 	가족의 지원	결혼, 자녀 1	
3	최○연	여	95년	읍면 지역	고2	학교 무단 결석 (출석일수 부족)	무업형	고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퇴 후 감정고시, 결혼 및 출산 • 식당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취업성공패 키지 상담 • 미용사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음식점 서빙) • 온라인 쇼핑몰 잠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음식점 서빙) • 미용사 진모는 자녀 양육 후 생각할 예정 	지역 사회	결혼, 자녀 1
4	조○빈	여	97년	중소 도시	중3	집단따돌림	무업형	학점 은행 이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터 생활(일시) • 감정고시 중졸학력 취득(위 센터 지원) • 미용실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매장 카운터) • 고졸 자격 검증 시 준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원무과/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병원취업 • 학점은행제로 학사 취득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병원취업 • 학점은행제로 학사 취득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병원으로 이직 • 다른 진로 생각중 	구직 사이트	-
5	박○혁	남	95년	읍면 지역	고1 직후	경제적인 이유(배우고 싶은 게 없어서)	직업형	고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빙, 발일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 P대학 1년 진기기능사 과정 이수(전기관련 현장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관련자격증 공부/전기관련 회사 취업 • 확고한 진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관련 업무 • 관련분야 공기업 취업에 대한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관련 업무(장규직) • 공기업 취업 희망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관련 업무(장규직) • 공기업 취업 희망은 접어둔 상태 	국비 지원 기능사 과정	-

구분	이름 (가명)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학업 중단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	최초 학교 밖 유형	최종 학력	진로관련 주요 상황				현재 취업 경로	가족/기타
									2013~2018년	2018년	2019년	2021년		
6	서O빈	여	96년	서울	고1	학교생활 부적응, 중1 성폭행피해로 자해경험	직업형	고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퇴→바리스타→실업고→중단→식당 아르바이트, 경정고시/내일배움카드 세무관련 자격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경력직 퇴사/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학원보조, 부도민회사 경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지역 세무사무소 취업(정규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사 사무실 정규직→중견기업 계약직으로 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증,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
7	강O든	남	97년	수도권	고1	아버지 폭력 피해 가솔, 아르바이트/학업병행 어려움	직업형	2년제 대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솔 후 폐간물, 고시원 등 전전/편의점 사빙, 주빈보조 1년 후 가정 복귀 경정고시 고졸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공장 근무/P대원에서 학업 후 아버지 회사를 이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위산업체 중단 P 대학 졸업 영양 재발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증으로 입원 식당 사빙 아르바이트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점 아르바이트 부상으로 힘든 일 어려움 우울증으로 의가사 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과 적 어려움
8	오O석	남	95년	수도권	고1	국비유학 준비에 학교 교과목이 도움이 되지 않아 자퇴	무업형	학사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정고시 합격 아르바이트/주식투자 국비유학 실패 군에서 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 준비 주식투자 장학금 가능한 대학 진학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 준비 주식투자 학비 없이 대학 진학 결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점은행제/가상화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학점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화폐관련 사업 학원 강사 물류, 전산정보관리 등 아르바이트 경험 회사 취업 	—
9	인O하	남	95년	수도권	초5	무단결석,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은 마음	무업형	고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세 때 입국/초1 배지, 학교부적응 18세 취업/중학교 경정고시/산업체군 복무/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취업/방송통신고 재학 장기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업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직 방송고 2년 사회복지, 관광분야 학과 진학 희망 컴퓨터활용능력 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 관련 사무 업무 방송통신고 졸업 컴퓨터 프로그램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창고 정리업무 구비원으로 컴퓨터프로그래밍 학원 기초과정 수강 결혼 계획 	이주 배경
10	박O원	남	97년	수도권	고교 미진학	집단 괴롭힘	학업형	2년제 후학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고 진학, 직업학교/P대학 진학 사회복지무원 청소년수련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복무 멘토링, 밴드 활동 사회복지무원 소산(재) 컴퓨터 프로그래밍 중상기업 취업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대폰 대리점 아르바이트 대학 휴학 중 유튜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토바이 배달대행 배달 중상(화물) 중 자동차 배달 계획 '음악 유튜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인 소개 	—

구분	이름 (가명)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학업 중단 시기	학업 중단 이유	최초 학교 밖 유형	최종 학력	진로관련 주요 상황				현재 취업 경로	가족/기타	
									2013~2018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11	정O이	여	96년	수도권	고2	학교생활 싫증, 재학 중인 특성화고 정채 불안	학업형	2년제 대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졸 검정고시 햄버거 체인 및 미트 아르바이트/종퇴자 무시 경험으로 대학 진학 결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 행정/물리 치료 보조/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2년제 대학 재학)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식당) 해외 어학연수 예정 외국어 공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조무사 근무 H사 준비(학점은 현재 공부 중) 간호사 준비 우울증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조무사-아르바이트-실업급여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 없으나 간호조무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 사이트 	-
12	인O린	여	96년	수도권	고1	친구관계, 적성에 안 맞는 공부, 학교결석	학업형	대학원 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 진학-자주 결석, 지퇴 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 취득 대학 수시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전문학교에 서 전산재무, 전산 회계 자격증 수업 (취업성공패키지) 복지관련 학과 대학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시험 준비 독서실 총무 알바 심리치료 수강 시 어려움 경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약국)/ 대학원 병행 자퇴경험이 심치로 남아있음(학업, 취업, 경제적인 면에서 위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 인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황 장애 경험 (불안과 취업 스트레스) 	
13	성O연	여	97년	수도권	고1	검정고시로 대학 진학 결정	학업형	4년제 대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햄버거 체인점 아르바이트 가솔/17세 고졸 검정고시 합격 19세 대학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련과 재학 취업성공패키지 활용 전사회계 자격 취득(회계 관련 중소기업 희망/ 결혼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사 사무실 근무/ 대학 4학년 재학 중 인강으로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사 사무실 내일채움동장(3년 기한)후 이직 고민(학교 자퇴이력 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직/정신면련 업무 이직을 위한 이력서 작성 과정에서 학교자퇴 경험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 사이트 	-

2) 분석방법

인터뷰 전사자료에 대한 분석은 사례연구(Yin, 2003) 및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유기웅 외, 2018; Ezzy, 2002; Glaser & Strauss, 1967)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서는 청년기 참가자들의 결혼 유무, 학업중단 이후 단기적 시점에서의 대응유형(직업형, 학업형, 무업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례들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2018년, 2019년, 2021년과 2022년까지 총 4개 년도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뷰 질문지는 구조화된 형태이지만,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파생되는 질문들이 달라졌기에 반 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 분석은 개방코딩을 위해 개별 사례들의 인터뷰를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적 시점에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자료를 먼저 정독하며 읽은 뒤 2018년, 2019년, 2021년 자료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하였다. 각 년도 별 인터뷰 자료를 통해 학업중단 후 1차 조사 시점인 2013년부터 1차 인터뷰 시점인 2018년까지 5년간 진로와 관련된 주요 경험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진로 경험은 학업중단과 관련된 주요 사건, 학업중단 이후의 학력 취득, 취업 준비, 일 경험, 가족이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1년 각 년도 진로상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변화 등은 각 년도의 인터뷰 시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별 사례들의 종단적 궤적에 대한 1차 분석 후 2차 분석은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주요 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과정은 면접 전사자료 반복 읽기 부터 시작하여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과정을 거쳐 주요 주제를 도출하게 된다(유기웅 외, 2018). 각 사례들을 종합하여 생애과정에서 주요하게 개입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주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각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들의 자립과 독립적 가족 형성과정에서 중요하게 기여한 지원 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개입 요인들을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제도적 지원 차원을 중심으로 핵심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한편, 질적자료 분석의 엄격성을 도모하기 위해 삼각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들에 대해 분석하였던 기존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본 연구 분석의 핵심 주제와 기존 자료 분석에 활용된 주제를 비교하여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에 대해 다루는 주요 논문들에서 분석한 핵심주제들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하위 주제들과 비교함으로써, 핵심 주제 분포의 치우침이나 누락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질적자료 분석 과정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을 거침으로써 범주화 과정의 왜곡을 줄이고자 시도하였다.

3. 분석결과

1) 개별 참가자들의 진로 궤적

개별 사례들에 대한 삶의 궤적을 중단적으로 분석한 주요 핵심은 다음의 표 III-2와 같이 요약하였다. 개별 사례들의 경우 현재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2013년 학업중단 이후 진로 유형에 따라 장기적으로 어떠한 삶과 진로를 거쳐 왔는지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10여 년 동안 이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작업은 풍부한 삶의 맥락을 단순화시킬 소지가 있기에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진로 궤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 경험, 가족 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표 III-1 참조).

(1) 결혼 후 가족을 형성한 후기 청소년 진로 궤적

2013년에 직업형이었던 안○준, 무업형이었던 강 ○과 최○연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한명 이상 두고 있었다. 초창기 직업형으로 범주화되어 다양한 일 경험을 하였던 안○준은 정규직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무업형이었던 강 ○의 경우 대학 졸업까지 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이루었다. 다만 최○연의 경우 자녀 육아로 자신의 진로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진로 궤적에서 새로 형성된 가족은 이들의 삶에서 주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모두 자신의 집을 마련하였으나, 주거 마련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거를 하며 생활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3년 무업형이었던 조○빈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을 하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 취득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삶의 궤적은 학업중단 이후 다양한 일 경험, 학력 취득, 동반자와의 만남, 새로운 진로 모색 등이 병행되고 있었다.

(2) 미혼 상태인 후기 청소년 진로 궤적⁵⁾

2013년 직업형이었던 박○혁, 서○빈, 강○든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였으며, 강○든은 학사학위도 취득하였다. 학업 중단 후 단기적 시점에서 일 경험이 있다는 데에서 직업형으로 범주화되었지만, 10여년의 삶의 궤적에서 이들의 진로 과정은 개인적 요인 및 가족 요인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순탄치 않게 전개되어왔다. 직업형이라는 단기 진로 선택도 가정의 경제여건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박○혁), 검정고시 취득 후 별 생각 없이 지내다 직업 적성을 찾아 진로를 모색한 경우(서○빈),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출 후 학업중단을 한 뒤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경우(강○든) 등 그 배경은 각기 달랐고, 그 이후의 진로 궤적도 개인과 가족 배경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013년 무업형이었던 오○석과 안○하도 모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였으며, 오○석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를 취득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단기적 시점에서는 무업형이었으나, 이들의 진로 궤적에서 나타난 진로포부와 대응방식은 첨예하게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오○석은 국비유학을 꿈꾸다 실패하였고, 서울의 4년제 대학 컴퓨터관련 학과 전액 장학금 수령을 꿈꾸며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 왔지만 그마저 실현되지 않았다. 그 대안으로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안○하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진로에 대한 별 관심 없이 직업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생산직 일을 하고 있었다.

2013년 학업형이었던 박○원, 장○이, 안○린, 성○연은 모두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학업중단 이후 단기적 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였지만, 고졸 학력 취득 후 모두 대학 진학에 뜻을 둔 것은 아니었다. 박○원의 경우는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방송통신고를 대안적으로 선택하였고 관련 기술 분야 대학까지 진학하였으나, 졸업을 미뤄두고 있었다. 장○이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만을 염두에 두었으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 학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대학을 다녔다. 안○린과 성○연의 경우는 고졸 검정고시 점수를 활용하여 수시 입시로 대학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관련 전공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성○연의 경우 별도의 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취업을 하였고, 안○린은 아르바이트와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었다.

5) 각 패널별 상세 내용은 표 III-1(p. 70) 내용 참조.

2) 학교 밖 후기청소년 진로 및 자립 과정 분석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과정과 학업중단 결정, 그리고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여러 차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학업중단은 개인 행위자의 삶의 공간적, 시간적 맥락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들의 생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생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되어 진로궤적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윤철경 외, 2013).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들은 개인적 차원, 가정 배경, 가정 밖에서 형성된 사회관계, 제도적 지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학업중단 후 생애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개인적 차원

① 학력 취득

중단 자료 분석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취득하였다. 이들은 검정고시나 방송통신고등학교, 혹은 2년제 고등학교 진학을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였다.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

○ 가족과의 약속(고졸, 대학진학)

먼저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자퇴를 한 사례들이 있었다. 학교에 다니기보다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경제활동을 하고자 했던 박○혁(직업형), 학교에 나가기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를 자퇴한 장○이(학업형),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 관심과 교우 관계 어려움 등으로 자퇴한 안○린(학업형), 고등학교 성적이 예상 외로 부진하여 학교를 그만둔 성○연(학업형) 등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에 대한 다짐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들은 가족의 만류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가족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박○혁: 처음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부모님이 그러면 그만 두고 1년 안에 검정고시를 합격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자퇴를 하고, 하고 싶은 거를 해도 괜찮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자퇴를 하고 또 1년 안에 합격을 해서 그 후로는 따로, 아마 그때부터 제가 뭐를 하든 상관 안 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잘 하니까 (2021).

성○연: 학교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끌려서 학교에 갈 때 죽어도 안 가겠다고 반 안 찾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아버지가 따라오라고 했는데 밖으로 막, 안 가려고 도망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얘가 진짜 학교 가기 싫구나 느끼지 않았나.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검정고시 어떻게 볼 거고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냥 믿어주신 것 같아요. (2018)

안○린: (어머니는) 대학교는 꼭 가야 된다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했고 내가 자퇴했다고 하는 게 평생 너의 주홍글씨가 될 거라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2019)

장○이: 엄마가 자주 대학교 가라고 했어요. 검정고시 봐서 (중략) 어머니가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자는 공부를 많이 안 시켰으니까 엄마는 심지어 시골이다 보니까 학교를 중학교까지만 다니셨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회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시를 많이 당해서서 너는 그런 무시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신 것 같아요. (2019)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고, 친한 친구들 중 일부가 먼저 학업을 중단한 것을 목격한 조○빈(무업형)의 경우 중학교를 자퇴하였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생활을 하던 중, 쉬터 생활 과정에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취득하였고,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 속에서 자신이 취업 가능한 분야로 간호조무사를 염두에 두었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졸 학력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조○빈: 중졸 같은 경우는 필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필수였는데 자퇴가 가능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중졸은 무조건 따야겠다. 그건 원래부터 무조건 따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고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용실 같은 데나 알바는 학력에 제한이 없는데, 제가 지금 따도 늦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업에 들어가거나 자격증 같은 걸 따는 부분에서 학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중략) 자격증 같은 것도 편하게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호조무사나 그런 것들도, 사회복지사 이런 거 다 고졸 학력 이상해야 응시 자격 자체가 있더라고요. (2018)

○ 진로 관심 분야 및 취업을 위한 진학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우연한 기회에 관심 분야 흥미를 발견하고 관련된 분야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례도 있었다. 강 ○(무업형)의 경우 보호관찰 중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조리나 제과 제빵 등 관련 분야에 관심을 키우게 되어 지역의 2년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서○빈(직업형)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고 일을 하던 중 다시 학교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제빵 분야 학과가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하였었다. 하지만, 강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 전문대에 진학하였지만, 서○빈의 경우는 학교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

강 ○: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쳐서 입원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 사고친 것들 때문에 보호관찰이 떨어졌었는데, 보호관찰에서 전 학교도 안 다니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바리스타를 추천을 했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냥 무상으로. 저희는 보호관찰에서 두 명 정도 뽑혀서, 다른 애들은 돈 내고 받는 강의를 전 무료로 받았죠.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하고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공부가 처음으로 재미있어서 학교를 복학하고. (중략) 제가 1년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2년제 학교를 알아보다가 그런 학교가 있어서 복학을 했어요. (중략) 제가 복학한 학교는 그래도 어른들이랑 다녔어요. 초중고등학교 합쳐져 있는데 졸업을 못한 어른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졸업장 타려고 왔던 학교들이었어요. 전 학교도 많이 알아보고 간 건데, 기간도 2년제여서 저랑 졸업시기도 딱 맞았고 그렇게 자유로운 학교라서 복학을 했던 것 같아요. (2018)

서○빈: 엄청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저랑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대학을 무조건 좋은 대학, 엄청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그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엄마가 바리스타 자격증 따보는 거 어떨것냐고. 그때 한창 카페 많이 생길 때였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들어가서 하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거기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도 하고. 그런데 친구들 오는 거 보고 부럽고 교복 다시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가면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실업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업계는 인문계보다 공부를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안 좋게 노니까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시고, 저도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 학교에 제빵과가 좀 높은, 제빵과도 공부를 잘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시간만 어영부영 보내느니 차라리 빨리 나와서 다른 걸 찾아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죠. 고등학교 졸업장은 필요하니까, (2018)

○ 대안적 선택으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

개인적 배경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주말에만 등교가 가능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고졸 학력을 취득한 사례들도 있었다. 박○원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스트레스성 정신과 치료, 틱장애 등을 겪어왔고, 중학교 과정에서 힘든 학교생활을 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권유로 일반고에 진학하기보다는 방송통신고에 진학하였고, 이 때 D직업학교 1년 과정을 병행하였다.

박○원: 중학교 졸업하고 고1 때부터 D직업학교도 다니고 방통고는 2주에 1번씩 주말에만 가니까 평일에 직업학교 1년 과정이고 (중략) 일반고에 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일반고에 가면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평소에 로봇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기계 관심 있었으니까 컴퓨터도 관심 있어서 그쪽으로 진로를 개척해보라고 하셔서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중략)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2007년까지는 멀쩡했어요. 틱도 없고 근데

2008년 가을운동회를 9월에 했는데 그때 친구들한테 구타당하고 그때 다음 달에 틱 판정 받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힘들었던 거예요. (2019)

안○하의 경우도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으로 10세 때 한국에 입국한 뒤 학교에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였다. 이주민센터의 도움 등을 받으며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취득하였고, 직업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으며, 고등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였다. 주중에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이력서를 써야 할 경우 채워야 하는 내용이 너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중학교 학력과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고자 했으며, 추후에 기회가 되면 대학까지 다니고 싶어하였다.

안○하: 이력서 쓸 때 너무 낮으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엔 일만 잘 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채우려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고, 대학교는 시간 되면 가고. (중략) 공부는 지금 방통고등학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하기 위한. 학력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2018)

안○하: 옛날 어릴 때는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취업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낮으니까 고등학교도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냥 방통고등학교로 일단 계기는 저는 필요해서 났어요. (2021)

○ 고졸 학력 수준에 대한 일반적 인식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최○연의 경우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보고 고졸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여 함께 취득하였다. 서○빈과 강○든의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은 필수 요건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최○연: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중략) 중졸보다는 고졸이 나오니까, 애기 엄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작성을 하면 중졸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생각해. 고졸을 적을 수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엄마 아빠 학력 적는 게 있는데 고졸이라고 하면 기본 평다는 치니까, 대학교 안 나왔어도. (2018)

서○빈: 아무래도 중학교 졸업은 아닌 것 같아서, 고등학교라도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때 그래서 (2021)

강○든: 그냥 친구들이 놀리는 게 기본 안 좋아가지고. 스무 살 때 친구들은 다 대학교 들어갔는데 저보고 너만 중졸이다 이렇게 놀리니까 (2018)

강○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게 된 것 같아요. (2021)

나. 대학 진학의 의미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뒤 대학 졸업 학력을 취득하였으며, 대학 졸업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선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 극복의 의미, 가족 등 주변에서 대학 졸업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기대에 부응,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 등을 들 수 있었다.

○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편견 극복

고등학교를 그만 둔 후 고졸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무시를 경험하고 자신의 역량이 폄하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례도 있었다. 일터에서 서울권에 있는 사립대에 재학 중인 동료로부터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였다는 비하 발언을 들었는데, 그 경험은 자신의 엄마가 당했던 학력 무시 경험과 유사했다.

장○이: 자퇴하고 바로 생각은 안 했는데 자퇴하고 바로 직장을 구했는데 엄마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직장 상사들은 다 관찮았는데 그런 걸로 무시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일단 경험하는 게 좋지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 선배가 저한테 그런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무시 안 당하려면 일단 공부해야겠구나. (2019)

장○이: 큰 사건이라고 하면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어준 애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걔가 제 심기를 건드려서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너는 머리가 나빠서 자퇴한 거다 이러면서 그걸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댓글 이런 걸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대 체대생이다 이거예요. 보는데 맞춤법이 다 틀려요. 네가 나한테 할 소리는 아는데 이러면서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무시당하는 걸 못 참아서 대학 들어갔고... (2022)

○ 학력에 대한 주변의 기대

성장과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대학 졸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들어왔던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중퇴 이후 고졸 학력을 넘어서 대학 입학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든 자신의 학업 중단 선택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이 실현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 검정고시 접수를 활용해 수시 입학을 한 사례들도 있었다.

성○연: 검정고시를 따야 고등학교 졸업이 되는 거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좀 더 미래가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만큼 믿음을 주신 거니까. (중략)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대학은 나와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길 많이 듣다 보니까 대학은 나와야 나중에 돈도 더 잘 벌 수 있다 이런 게 그때는 머리에 자리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나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꿈이 있다기보다는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18)

성○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자퇴하고 어쨌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사촌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큰 파장을 일으킨 거고 뭔가 어느 정도 그런 상처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것 때문에 좀 더 촉박한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잘 돈 벌고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갔을 때 다행이라고 가족들은 어느 정도 안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그 사회 인식 자체가 안 좋으니까 예전에 자퇴했을 때 보다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촉박하게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2019)

안○린: 저는 사실 그 학업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서, 사실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전문대 가도 딸 수 있고 심지어는 학점은행제로도 딸 수 있잖아요. 제가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지 않았다면 그런 동기부여가 없었을 것 같고, 엄마랑 너무 저의 상황을 싫어하셔서, 그런 상황이 싫어서 대학교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2018)

○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대학 진학을 넘어서, 자신의 학업 중단 이력에 대한 만회와 함께 더 좋은 학력에 대한 열망과 취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까지 진학한 사례도 있었다. 안○린은 학업 중단이라는 생애과정의 사건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원에서 상담 전공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안○린: 사실 제가 어쨌든 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학력을 갖추고 싶다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입학 같은 거 준비하면 제 실력이 안되지만 좀 더 좋은 학교 가고 싶다 그런 걸 고등학교 자퇴한 걸 좋은 학교에 가서 상쇄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을 공부하는 게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상담자가 먼저 내면을 돌봐야 된다. 항상 청소년기를 공부하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죠. 자퇴가 됐던 게 상처가 됐던 경험이었거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2022)

○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

대학 진학으로 고등학교 학업 중퇴라는 사건을 상쇄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공부를 위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신이 구상한 진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대학 공부를 선택한 사례도 있었다.

강 ○: 제가 가고 싶었어요. 대학교도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 많이 했었고. 서울로 가지나 가족들이랑 너무 떨어져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갔어요. (2018)

강 ○: 일단 제가 공부를 했고, 조리 공부를 했잖아요. 알아봤죠, 인터넷으로. 보건대학교도 있고 △J대학교는 커피만, 바리스타과만 있고. 서울에도 많은데, 그리고 △△도 내에선 없더라고요. 아, W△대 있고. 그런데 별로, 그냥 △G이 끌려서 거기로 간 것 같아요. (2018)

강 ○: 네. 이게 그냥 공부가 아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공부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커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커피 자격증을 따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싶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복학을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고, 대학교 가서도 다른 공부. 요리 쪽 공부를 했고, 커피 공부를 한 게 제일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해요. (2019)

안○린: 일단 저는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멘탈이 너무 쿨쿨다스라서. 그니까 제가 사회복지 전공하고도 취업을 못한 이유가 너무 낮가리고 이래서 뭔가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상담은 뭔가 그 매개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담은 뭔가 내가 이거를 공부해서 좀 사람을 만나면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게.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그 상담과도 있었는데 심리상담 한다고 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러는 게 되게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뭔가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일단 어쨌든 취업이 안 되니까 뭐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2021)

강○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두 달 정도 진짜 일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때 생각 드는 게 아버지 쪽으로 내가 배워서 가면 삶이 나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는 것보다는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적게 벌어도 살 수는 있으니까 그러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군대에서 3일 동안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면접자: 군대에서 외부적으로 이든 씨한테 어떤 걸 해준 건 아니지만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그랬다? 그럼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과가 뭐예요?

② 학업 중단 후 일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중단 시점에서 범주화된 진로 유형에 상관없이 대체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였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시점부터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온 경우도 있었고, 학교를 그만 둔 뒤 본격적으로 다양한 일 경험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기술이나 참을성을 배우게 되었다. 매우 다양한 일 경험을 가진 안○준의 경우 학교를 나오자마자 이웃 도시에 가서 청과 판매일로부터 시작해서 술집 서빙, 유흥주점 서빙 등 다양한 일을 하였다. 좌충우돌하며 일을 하는 과정

에서 사람을 대하는 스킬과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 여러 가지 생활기술 등을 익히게 된다. 힘든 일을 하며 어렵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게임장 근무, 생수배달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으며, 아내와 자녀 부양을 위해 억척스럽게 돈을 벌고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안○준: 성격이 ○○장사 시작하면서 성격이 확 그렇게 적응된 거 같아요. (중략) 처음에 하기 전에 되게 쪽팔렸어요. ○○ 들고 17세 나이에 제 생각에 너무 쪽팔렸어요. 그런데 각오했어요. 돈 벌어야 하니까.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중략) 그걸 몇 달 하니까 살았어요. 형 누나한테 파니까. (중략) 사주하면 안 되느냐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형님 하게 되고 일단 껌 먹고. 그렇게 되니까 적응이 됐어요. 비위 맞춰주는 게. (2019)

안○준: 그때 아기 가져서 투잡 하는데 집 사고 돈 다 날라가서. 돈이 수중에 없어서 다시 모으려고. 밤일 하고 낮일 하고 밤에 알바하고 낮에 알바 하고. 확 그때 오더라고요. (중략) 낮에 카센터에서 타이어 옮기고 타이어 끼우고. 저녁에는 노래방 나와서 서빙하고. (2019)

안○준: 와이프랑 아기가 진짜 고맙고 소중하죠.

면접자: 왜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와이프의 의미와 아이의 의미가 어떤 거길래?

안○준: 어려워도 버팀목 같은 거, 이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되니까 (중략) 일단 먹여 살려야 되니까 (2021)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난 장○이의 경우도 다양한 일 경험을 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였으며, 대학 1학년 재학 후 1년 휴학 기간에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돈을 모아 유럽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면접자: 첫 알바는 어떤 걸 하셨어요?

장○이: ○○요. 고등학교의 모든 알바 시작 (중략) 마트는 한 달 다니다 관뒀어요. 휴무가 안 맞아서. 그래서 고깃집에서 월요일은 쉬고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일하면서, 5시간씩 일했거든요. 그러면서 놀고먹고, 공부는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남자친구랑 크게 싸우고 헤어졌고, 그 뒤로 4대 보험 뗄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 일했던 게 ○○ 보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6개월 일하고 돈 모아서 대학 등록금 내고. (2018)

장○이: 주유소, 사무보조, XX라는 노래타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 개월 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형마트 직원이 부족하다고 와 달라 해서 그때 가고. 그리고 유럽여행을 갔다 오고. 애초에 휴학한 게 안 맞는데 나 외국 갔다 오고 싶어 라고 해서 돈 모아서 간 거거든요. (2018)

다양한 일 경험을 하고 용돈을 모아 유럽여행과 일본여행을 다녀왔으며, 대학을 졸업한 뒤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던 장○이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했던 경험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니라, 자신은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얻었기에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하였다.

장○이: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다르게 나와있는 상태 보니까. 그런 애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저는 별, 저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공부 검정고시도 안 보고 대학도 안 나왔다면 솔직히 지금 양아치 이런 애들? 양아치라고 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런 애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그 인생은 별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 잘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중략) 솔직히 여행자금도 혼자 벌어서 갔었고, 제일 좋았던 건 대학 등록금 벌어서 간 거. 알바 할 거 다 하면서 시험을 잘 봤던 거 이런 느낌. 공부를 했다는 거 (2018)

그리고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사람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대응 방식에 대해 익히게 됨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장○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중략) 예를 들면 사람마다 성향이 있으면 조금 나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말하는 게 심한데 보면 은근히 챙겨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니까 내가 따라 가면 알아서 잘 해 주겠구나 파악을 잘 하게 됐어요. (2019)

장○이: 지금은 그때랑 다르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주변인들 평판을 들어보면 사회생활 만렙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랑 잘 지내기도 하고 웃으면서 아, 네 이러다가 속으로 미친 이려고 그렇게 넘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넘길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아요. (2021)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박○혁의 경우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기도 해서 자신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였다. 재학 중인 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무의미하게 학업을 지속하느니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만두었다.

박○혁: 갈뻔집 이런 데서 서빙이나 (중략)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일이 하고 싶었어요. 전부터도 했었고 (중략) 알바보다는 하루 일당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인력사무실(?) (중략) (고2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발일 같은 거도 하고 비닐하우스 (종락) 계속 했죠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갔다 와서도 했어요. (종락) 놀지 않고 계속 하다가 발 같은 데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때부터 ○을 떼어와서 팔았어요. (2018)

박○혁: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알바를 해서, 그때부터 생활비는 원래 안 받았었고, 알바를 하면서 제가 벌었고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도 다 제가 했었고, 따로 크게 터치 같은 거는 없었어요. (2021)

③ 심리·정서적 측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의 궤적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발생은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는 성인기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안○준의 경우 분노조절 장애, 초 6학년 때부터 흡연 시작, 재학 시절 폭력에의 연루 등 청소년기의 어려움이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2018년에도 분노조절장애로 약물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서○빈의 경우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사촌오빠로부터의 성폭행 피해경험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자해 습관이 이어져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아왔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강○든의 경우도 ADHD를 보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버지의 폭력적 양육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하여 가출을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과 자해 증상이 악화되었다. 우울증은 군 입대 후 의가사 제대로 이어졌고, 여러 가지 부정적 사건이 생기거나 일터에서의 부적응은 다시 아버지와의 갈등을 불러왔고,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박○원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스트레스성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틱장애를 겪게 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아버지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소리지르고 때리는' 방식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중학교 생활을 하던 중 매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

다양한 일 경험을 하며 도전적으로 생활하였던 장○이도 중학교 2학년 시절 우울증, 자해, 분노조절장애 등을 경험하였으며, 학교에 가지 않는 동안에는 흡연과 음주를 하며 가출 생활을 하였다.

안○린은 청소년기에 직접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학업중단 이후

진로설정 과정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 등으로 공황장애를 경험하였다. 특히, 집안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하루 빨리 자립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

안○린: 근래 공황장애가 와서 좀 힘들었고, 그리고 외부활동을 하려면 멀리 서울에 나가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신물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여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오전 내내 학원에 나가거든요. 여기 매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중략) 제가 사실 불안함을 잘 못 이기는데, 어떤 계기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 계기가 있었는데 신경을 많이 썼더니, 그리고 제가 취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거에 완전 맞물려서 그러지 않았나. (2018)

(2) 가족적 차원

가족의 구조와 기능적 측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이라는 선택과 그 이후의 진로궤적에서 지속적으로 관련이 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원가족 구성의 구조적 특성, 기능적 특성이 학업 중단 이후의 학력 취득, 취업과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신이 새롭게 이룬 가족 관계나 자녀에 대한 기대에도 일정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가족의 구조적 차원

먼저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 양친 부모가 부재하여 조부모가 양육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조○빈의 경우 엄마는 부재하였으며, 아빠는 자신과 18살 차이였다. 아빠가 양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양육을 담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더욱이 아빠는 알콜 중독이었으며, 자신과는 함께 게임을 하고 놀아준 기억이 있었지만, 고1때 사망하게 된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은 할머니이며,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월급을 받게 되면서 할머니에게 용돈도 송금하고 있었다.

안○하의 경우 남미 국가인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해당 국가에서 성장하다 10세에 한국에 입국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에서는 어머니 가족과 생활하였고, 아버지와는 한국에 와서 만났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였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지방에 거주하는 아버지 주거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수도권에 사는 어머니와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학력 취득과 진로 정보도 어머니의 인맥인 이주민센터와 성당 지인을 통해 얻게 된다.

최○연의 경우도 어머니는 아동기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주로 할머니가 양육을 해 주었다. 고등학교 시절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이 어려워서 친구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친구와 함께 학교를 가지 않고 놀러 다니는 날이 많아져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다.

성○연의 경우도 어머니는 부재하며, 아버지는 새로 결혼을 하여 거주를 분리한 상태에서 할머니가 양육을 전담하였다.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어머니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친생모가 아님을 알게 되어 충격도 받았었다. 이후 아버지는 두 번째 이혼을 하고 잠시 합류하였으나 성○연이 20세 되던 해에 새롭게 재혼을 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으며,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연민이 컸다. 집안 식구들 중 자신만 대학 졸업장이 있기에 할머니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부담을 갖고 취업과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② 가족의 기능적 차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족 배경을 살펴보자면 가족 구조면에서 양친 부모와 형제나 남매 등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능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그 차이는 청소년들의 생애진로과정에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 경제적 지원

먼저 가장 큰 기능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 여부였다. 학교를 그만 두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은 창업이나 주거 마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즉, 다른 출발선을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 ○의 경우, 가족이 운영하는 치킨 체인점을 하나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거주지도 부모의 집을 전세로 임대받아 살고 있었다. 가족 사업을 인수받아 비교적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아니지만, 부모의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향후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진로에 대한 안전판을 염두에 두는 경우도 있었다. 강○든의 경우, 양육과정에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 느껴왔던 아버지와는 갈등으로 가출을 감행하고 학교도 그만 두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아버지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학교와 기술대학을 졸업하였다.

나. 심리·정서적 지원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원가족에 대하여 자신을 믿어주고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이라 여기고 있었다. 빨리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 둔 박○혁의 경우 몇 년간 일을 하며 부모님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였다. 자신이 하는 일을 묵묵히 믿고 지지해 주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중학교 시절 경험한 성폭력 피해로 심리적 트라우마와 학교적응 어려움을 겪어왔던 서○빈의 경우도 부모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담센터를 연계하였다. 학업을 그만 둔 후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거나 다시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했다가 그만 두었을 때도 부모가 정서적으로 지지를 하였으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한다.

서○빈: 정서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제일 커서, 안 좋은 그런 게 생각나서 그럴 때 긍정적인 쪽으로 말해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항상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항상 말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게 크고,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왜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다 아시니까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면 말하라고 도와주시고. (2018)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도 그러한 희생에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석은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혼자 형제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취업을 하여 어머니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안○준의 경우도 어려운 여건에서 자식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면접자: 어머니께서 많은 고충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어머니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오○석: 평범한데 뭐 계속 생각하는 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 그렇죠. 제가 좀 더 안정되어 있으면 부담도 줄고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얼른 취업을 해야 겠죠. (2021).

면접자: 부모님들 중에 아버지는 현준님에게 어떤 의미예요?

안○준: 고맙다. (중략) 닳아가는 거 같아요. 봐온 게 있어서. 가족한테 손을 한 번도 안 댔어요. 욕은 가끔 하셔도. 아버지 회사에 부도가 났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어린 분한테도 그때는 욕을 △△△ 먹으면서도 하시는 거 보면 먹여 살리려고. 그런 게 고마웠어요. 그나마 봐온 게 있어서. (2019)

다. 진로 정보 지원

연구참여자들의 진로 궤적에서 가족이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이들의 생애과정에서 가족의 제안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박○원의 경우 틱장애, 스트레스성 정신과 치료 등으로 일반 학교 적응이 어려워 아버지가 방송고 진학을 권유하였으며, 직업학교를 병행하고 추후에 P대학(직업교육 전문기관)까지 연계하여 진학하게 된다. 안○린의 경우도 아동복지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성공패키지⁶⁾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전산세무, 회계 자격증 수업을 듣기도 하는 등 취업관련 노력을 하였지만,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 관련으로 상담 치료를 받던 중, 이 분야에 대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의 공부를 하기도 하였으며, 관련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결혼 후 장모의 소개로 진로 정보를 얻고 취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던 안○준의 경우 지역의 대기업 생산직 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구직에 성공하게 되었다. 비록 게임장 아르바이트에 비해 수입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데서 일단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면접자: 그러면 어떻게 또 공장 쪽으로는 어떤 경로로 취업이 되신 거예요?

안○준: 공장은 장모님이 다니셔 갖고요, 제가 탄 일 공장 알아보고 있는데 장모님이 그쪽으로 해주더라고요..(2022)

(3) 사회적 관계 차원

연구참여자들은 일과 관련된 정보와 구직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정규적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지역사회 지인이나 과거에 지속적으로 알던 지인의 연계로 일을 얻고 있었다. 취업준비과정에서 주변 지인으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도움을 얻기도

6) 취업성공패키지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되었으나, 해당 분석은 과거의 면접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면접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로 이를 명명하겠다.

하였으며, 일과 관련하여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사회적 관계를 통한 진로와 구직 정보의 경우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나 성격이 이들의 구직 경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자: 그럼 취업 패키지는 누가 소개해주었어요?

최○연: 좀 친한 언니인데 남편하고도 아는 그쪽이고, 애기도 똑 같은 나이고. 편한 언니가 있어요.

안○준: 바로 다른 데 가서 잡상인 것 같아요. 가게 같은 데서 파인애플이랑 찹쌀떡 같은 거 파는 (중략)

면접자: 어떤 경로로 그 직업이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안○준: 제가 어른들 위주로 만나다 보니까, 화물차 같은 거 하면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운반 같은 거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2018)

면접자: 검정고시 학원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보셨어요?

강○든: 저보다 먼저 취득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추천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2021)

강○든: 17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여기 사장님이 착하시고 저 15살 때부터 빈 분이어서 12년 정도 빈 분이어서 친하게 잘해 주셔서 편안하게 잘하고 있어요. (2022)

박○원: 배달일은 ○○ 쪽에 아는 지인 친구가 배달일을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맞부딪히는 일이 그런 상황이 별로 없고 자기가 혼자 배달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살짝 자유로운 심리 상태도 사무직보다는 억압된 분위기가 적고 그리고 자기 혼자 배달을 묵묵히 잘 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안 힘든 일이 없지만 사무직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상황이 적기 때문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서 저는 계속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친구 지인 소개로 저한테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2)

(4) 제도적 지원 차원

①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정보 및 취업 지원에 대한 주요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일부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통해 직업 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였다. 기술과정을 배우기 위해 P대학의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하여 기술을 배우고 취업으로 연계된 사례도 있었다. 박○혁의 경우도 학업 중단 이후 다양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직업훈련학교 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전기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취업을 하여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고급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국비 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이용하고 있었다.

박○혁: 주변에서 말을 하더라도 직업훈련학교 가서 기술을 배우라고,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P대학이 있어서 (2018)

박○혁: 그런데 지금도 솔직히 잘 몰라서 그렇지 찾으면 엄청 많거든요.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국비카드가 나오잖아요. HRD에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가 배워 보고 싶은 거를 국비카드로 배울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충분히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2021)

② 내일배움카드 활용

서○빈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자퇴 후 바리스타 자격을 가지고 카페 일을 하다 다시 특성화고등학교로 갔지만 학교를 그만 둔 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직업적성검사를 받고 세무관련 업무를 배우고 자격을 취득하였다. 세무관련 자격증을 통하여 세무사 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았으며, 인지도 있는 회사로 이직한 경험도 있다.

서○빈: 제 목표가 검정고시였는데 그것까지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데 막상 붙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매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내일 배움 카드를 누가 알려줘서 적성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 다방면으로 다 괜찮다고, 해도 된다 이러니까 그럼 여자들이 하기 제일 괜찮은 게 세무 이쪽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학원을 들어갔어요. 학원에서 하다가 거기서 바로 연계해준 회사 해서 세무서로 들어간 거거든요. (2018).

서○빈: 그때 카페 알바도 했었고, 초밥집 알바도 했었고, 그러다가 고용센터의 직업훈련 있잖아요. 거기에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고 이것 저것 다 잘하실 만한 사람이다. 제일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깐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제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하니깐, 세무, 회계죠. 이렇게 해서 이쪽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서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중략) (학원비 국비 지원) 그거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021).

③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유형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유형 I에 해당되며 주로 만 18세부터 64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가출이나 폭력, 학대 피해 등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만 15세부터 24세도 참여가 가능하다(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 2016: 251). 성○연의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였지만, 4학년 재학 중에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하여 전산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분야로 취업을 하였다. 재학 중 근로 장학생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 분야에서 일을 잘 한다는

칭찬을 받으며,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 후 전공보다는 세무회계 관련 분야로 진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성○연: 사회복지를 처음 전공을 하고 2년을 사회복지가 더 공부하고 싶다고 들어가게 된 건데 갔을 때는 워낙 저 말고 주변에 먼저 취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건 사실 크게 상관없었고 힘든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제가 세무회계 쪽으로 배우고 싶다는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중간에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했을 때 거기가 출판업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실장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일이 회계 쪽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 잘한다고 이쪽으로 취업하라고 말을 정도였으니까 뭔가 거기서 바로 취업하는 것 보다 거기서 바로 취업을 하면 제 전문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걸 공부하자고 이것과 관련된 걸 갖추자고 바로 자격증을 한 거죠. (2019)

면접자: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게 만족스러우세요? 지금도?

성○연: 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세무회계로 전공을 제가 따로 공부를 하고 아예 이쪽으로 전공이랑 다르게 직장을 옮기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2021)

대학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한 안○린의 경우도 취업준비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을 이용한 사례이다. 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이 관련된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취업과 관련하여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대학 졸업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가족의 시선 등으로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게 되었다.

안○린: 저 여기 YJ△△직업전문학교라는 데서 전산세무랑 전산회계 자격증 수업 듣고 있어요.

면접자: 어떻게 해서 그 준비를 하게 되셨어요?

안○린: 전 아동복지학과 졸업했는데, 복지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복지관에 사람 상대하는 업무가 있고 행정적인 업무가 있잖아요. 전 사람 상대하는 업무 말고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싶었는데 그럼 보통 회계업무를 많이 뽑길래 그거 중심으로 해야겠다 해서 준비하게 됐고, 많이 찾아보니까 국비지원 이런 거 떴가지고 취업성공패키지 통해서 하게 됐어요. (2018)

학업을 중단한 뒤 남편을 만나 출산을 한 최○연의 경우도 자신의 진로 준비를 위해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 참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육아로 인한 시간 투자가 어려워 포기한 사례이다.

최○연: 주위에서 얘기해주시고 했고, 그래도 한번 해봐라, 자격증 따니까. 그게 자격증 따려고 한 거였어요 취업 패키지 (종류) 아무거나 자격증이 많으면 좋다고 들어서 그때는, 미용이나 컴퓨터나. 처음에 한 게 컴퓨터, 두 번째 이번 년에 간 게 미용. 그리고 남편 지인이 미용 쪽 아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격증 따서 오래 걸리고 할 바에는 그냥 내가 소개해주겠다 해서 중단을 시켰어요. (2018)

④ 취업사관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위탁 교육 사업인 취업사관학교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소정의 지원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취업사관학교인 D직업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P대학으로 연계하여 진학한 사례도 있으며,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었다. 박○원의 경우 초등학교 재학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틱 장애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이어져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고 방송통신고에 진학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직업전문학교를 병행하였다. 안○하의 경우도 초등학교를 중단한 상황에서 방향이 이어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권유로 직업전문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뚜렷한 목적 없이 학교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학교를 통해 검정고시와 취업까지 이어져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박○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병행학습을 했어요. 방송통신고등학교랑 D직업전문학교라는 데를 갔거든요. 그런데 D 직업전문학교라는 데는 성당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거기는 나이 많은 분들까지 다 계신 데라서, 선생님들도 되게 좋으시고 너무 좋으시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시고. 계속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좋았고요. 거기서 기계 자격증을 하나 땀어요. 기계 조립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나서부터 기계가 너무 좋아져서 관심도 많아지고, 찾다 보니까 P 대학이 있었고. 그래서 P 대학에 들어가서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랑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실기까지 붙여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공부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2018)

안○하: 처음에는 직업학교에, 학교도 안 가고 말썽을 피우니까 거기서 어머니가 보내줘 가지고. 직업학교가 취업하기 위해서 있는 학교잖아요 기술 알려주고. 거기서 보내준 건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쪽 온 거고요. 특히 기술 배워서 뭘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일단 가서 생활해 보고 괜찮으면 있어봐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배우고, 나와서 지금까지 (중략) 원래 거긴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가는 건데 얘기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소개 받아서 거기서 서울까지 거의 다 많이 해봐가지고 재미없어서 알았다 해가지고, 열일곱 살 때 다시 □□으로 건너와서 검정고시 지원해주는 것도 알아보고 알아봐서, 아, 1년 동안 그거 했다. 검정고시 지원 받아서 또 했어요. (중략) 또 실패해가지고 집에 있다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D직업 전문학교라고 수녀님이 소개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얘기한 다음에 서울로 가서 교장선생님이란 얘기 해보고 OK 해가지고 열여덟 살 때 입학한 거예요. 입학한 다음에 취업하고 지금까지. 열일곱 살 때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2018)

⑤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학업중단 과정과 학업중단 이후 지역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을 이용하고 도움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다. 이들이 학교를 그만 둔 시점은 2013년 이전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다. 하지만, 청소년기관에서 ‘두드림’과 ‘해밀’사업 등 개별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박○혁의 경우도 학업을 중단한 뒤 기존에 이용하던 청소년시설에서 검정고시 지원에 도움을 받은 사례이다.

박○혁: 그런데 제가 그만 뒀을 때도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센터 같은 데나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던데? 두드림인가? 그런 것도 있고 이것 저것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것도 알아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을까요? (중략) 옛날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센터에서 검정고시 보기 전에 과년도 문제집 같은 것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필요하면 바리스타나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교육 같은 것도 해 준다고 하기는 했었어요. (2021)

박○원의 경우도 지역사회에 위치한 여러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정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청소년기관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다양한 강좌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학생이 된 후에는 청소년기관의 멘토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박○원: 바리스타 수업 이수하고 수료증 받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하루 일 딱 정해서 공연 같은 거 보러 다니고. 그냥 문화생활 같은 거 했어요. (중략) 중 2때부터 MD청소년수련관은 다녔었고, 탁구 배웠었고. 그 선생님들이 다 연계가 돼있어요. TD청소년 수련관, TH청소년 ☆카페, MD청소년 수련관 다 연계가 돼있는 거예요. ○◇시 청소년문화재단으로 다 통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생겼는데 IS 서구에 문화의 집이 생겼어요. 그리고 SS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생겼고. 그게 다 연계가 되어있어요.

면접자: 그럼 최초 맨 처음 찾을 때도 쉽게 찾았어요?

박○원: 네. 그건 그냥 지나다니다가, 제가 중 3 때 MD 청소년 수련관이 처음 지어졌어요. 공사하고 있길래, 공사 끝나고 개업식 할 때 들어갔고. 들어가서 강좌 찾다 보니까 (중략) 원래 탁구 좋아했고 해서 탁구 강좌 등록해서 듣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좋고 해서 얘기 많이 나누다가 그렇게 연결을 다 시켜주셨어요. (2018)

하지만, 초창기에 청소년시설에서 이루어지던 꿈드림센터의 서비스는 검정고시 지원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검정고시를 합격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꿈드림센터 이용으로 도움을 얻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서○빈: (꿈드림센터에) 그때 갔었는데 제가 그때 검정고시를 합격을 한 이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합격을 하고 난 상황이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없다고 했었어요. (중략) 2번 정도 갔다가 그 뒤로 따로 제가 도움 받을 게 없다는 거를 알고 나서는 안 갔거든요. (2021)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으로 2013년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심층 면접에 참여해 온 20대 중후반 참가자들의 진로궤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학업 중단 이후 시점이 2013년에 각각 직업형, 무업형, 학업형 등으로 범주화되어 다른 진로 유형을 보였으나, 10여년의 시간적 흐름 속에 초반의 진로 유형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기 시점의 범주적 특성과는 달리 생애궤적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나 요인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진로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정서적, 정보적 지원 개입 정도에 따라 자립 기반 마련 방식에도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접어드는 참가자들은 결혼을 하여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먼저 학력과 관련된 궤적에서는 2013년 진로유형과 상관없이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였다. 일부는 학사학위나 2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하였고, 1명은 대학원 과정에 재학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 둔 단계적 시점에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무업형의 경우도 일정 시간을 보낸 뒤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연한 계기에 관심분야를 찾고 관련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업 중단 이후 1년 이내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학업형으로 범주화된 청소년들의 경우도 학력 취득 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거나, 대학에 진학하고도 장기간 휴학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형의 경우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직업훈련과정 등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학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기적으로 진로를 개척해가는 과정에서 개별 참가자에게 주어진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 가능한 자원 정도에 따라서도 자립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관심이나 주변의 기대에 따라 졸업 후에 바로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의 일 경험이나 스스로 학업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간이 경과한 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학사 학위까지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 취업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고등학교 중퇴자라는 인식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을 취득한 사례들에서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자퇴 이력에 대한 적시가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변과 자신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공통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에 재학 중일 때부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고, 학교를 그만 둔 뒤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을 하였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에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용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며, 심지어는 가족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까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모아진 수입은 당장 필요한 생계유지 뿐 아니라, 대학 학비, 여행 경비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청소년들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인내심, 사회관계 기술 등을 익히기도 하였다.

한편, 연구참가자들 중 일부는 개인 생애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개인적 요인은 이들의 삶의 궤적에 자리 잡아, 여건이 악화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가중되면 이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학업 중단 이전부터 가족 갈등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경험, 가족 관계로 인한 우울이나 자해 경험, 학업 중단 후 취업과 자립에 대한 압박으로 오는 공황 장애 등 지속적인 심리정서 관리와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가족적 차원에서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 양친 부모의 부재,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 중 한 분의 사망, 별거 등으로 성장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적절히 지원 받아야 하는 교육과 양육 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해야 했던 참가자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립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자리 잡아 학업 지속보다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가족의 기능적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립 과정이 훨씬 빠르게 이행되었다. 부모로부터 창업과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 20대

중반에 이미 안정된 삶을 꾸리게 된 사례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심리 정서적 지원과 진로 정보 지원을 받는 사례도 비교적 안정적인 자립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궤적에서 취업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다. 고용노동부의 국비 지원 직업훈련학교,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자격증 취득,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전공으로 취업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현 시점에서 이들의 자립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가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 이용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에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청소년시설의 경우,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두기 전부터 이용하고 있었고, 학업 중단 후에도 검정고시 지원이나, 동아리활동,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관심분야 활동의 터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진로궤적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적 삶의 유형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학업 중단이라는 생애 사건도 참가자에 따라 매우 부정적인 정서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삶의 경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 차이의 스펙트럼은 개별 참가자가 처한 상황이나 진로 욕구, 개인적 성향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을 통하여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와 정책은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업 중단 지원 관련 단기적 정책으로는 학업 중단이라는 결정 이전 그리고 이후에 다양한 안내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학업을 그만두는 시점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므로 시범 운영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학업중단 숙려기간에 보다 다양한 안내와 진로 연계, 학교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이 이루어졌다면 방황하는 시간이 줄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학업중단숙려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안내와 개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다양한 선택지, 지원 창구,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등에 대한 촘촘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업 중단 직후 및 단기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으로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의 역할 및 접근성 강화도 중요하다. 일부 참가자들 중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찾아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관계 형성 기회가 줄어들고, 관심 분야 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드물기 때문에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성 및 문화 자본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홍보와 참여 기회 등을 확산시킴으로써 학교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학업중단 이후 단기 및 중장기적 지원방안으로 진로 및 취업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비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 준비 기회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국비 직업훈련과정과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 지원 조건의 제약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중 일부가 참여했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으면,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면, 국비 지원 훈련의 경우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수강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직업 훈련과정과 취업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채널이 보다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주변에서 우연히 듣거나 개인적으로 어렵게 검색을 하여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었다. 성인기 자립과정에서 경제적 독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개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보다 원활히 제공되고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위한 보다 중장기적이고 복합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이라는 개별 사건은 단지 독립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개별 청소년이 처한 가족 차원의 문제,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문제, 학교에서 누적되는 어려움 등 여러 차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이다. 그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보다 복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상의 문제, 개별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료와 돌봄이 주어져야 하는 상황,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얽힌 문제들 속에서 학업 중단이라는 사건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위기 취약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또 다른 차원의 중장기 정책으로는 학업 중단자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포부가 학교중퇴라는 사건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2018년에는 △△△반도체 공장 취업을 꿈꾸었지만, 2021년에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다 2022년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간호사 혹은 경영학도를 꿈꾸다 잠정적으로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할 때마다 고등학교 이력을 묻는지를 살피며 위축되는 사례도 있었다. 물론, 청소년기에 진로탐색과 진로 수정이 특별한 사례는 아니지만, 학업중단이라는 생애 사건으로 진로 가능성이 무력화되는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진로 사례들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인식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으로 성장한 성인들의 멘토링 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인터뷰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접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매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또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후배들을 위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특별히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의미 있는 타자’인 누군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준다면, 삶에 대한 성찰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학업중단 후기 청소년 멘토단을 구성하여 매칭 사업을 하고, 정기적인 연례 행사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제4장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분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분석방법
- 3. 분석결과
-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분석⁷⁾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이 제도권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가장 최근 조사인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게 의미가 없어서(37.2%),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정신적 문제로(23.0%), 검정고시 준비로(19.6%), 공부하기 싫어서(18.6%), 특기를 살리려고(17.7%), 학교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17.2%)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다(복수응답)(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 2021c). 이외에도, 신체 건강상의 이유, 학교가 멀어서, 이민 또는 해외 유학, 부모님과과의 갈등, 집안 경제사정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사례들도 있다(김희진 외, 2021c). 또 홈스쿨링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에 아예 진학하지 않기도 한다(김희진 외, 2020).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두 취약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개인적, 가정/환경적,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로 인한 성장환경의 차이 때문에 더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더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특별한 계기와 지원을 통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있다.

본 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 주목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어떻게 어려운 상황/환경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취약한 상황, 취약성(vulnerability)은 이 청소년들의 개인, 가족, 환경적 문제로 여겨지거나, 또는 거주지역과 지원서비스 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불리함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공교육을 통해 교육받거나 보호받지

7)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못하고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분석의 대상이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라는 견고한 체계를 벗어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특성이 있거나, 취약한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학교 제도 외에 이들의 취약성이 개인적인 속성이나 특성, 그리고 주변의 어느 체계에서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한편으로 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지지체계는 어느 차원의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간발달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통적인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관점(Bronfenbrenner, 1979)⁸⁾을 염두에 두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취약성이나 지지체계가 단일 요소나 체계일 수 없으며, 여러 체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 개인과 속해있는 환경이 어떻게 취약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또는 견디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도래/대인관계-가정 상황-지역사회 환경 등 생태체계 측면 모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취약한 상황이나 특성들을 정리하여 본 분석에 참고하였다(예, 김희진 외, 2020; 김희진 외, 2021a; 김희진 외, 2021c; 윤철경 외, 2018 등).

이러한 취약한 상황이 생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누적, 축적될 때(cumulative disadvantage, cumulative impact of vulnerability)⁹⁾,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20년(일부는 2021년)에 처음 신규 패널로 구축되어 1차 질적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최소한 2회 이상 연차별로 수집된 질적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분석을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취약한 상황은 무엇인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8)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생태체계와 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자료를 분석하되, 본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생태학적 이론적 틀에 전사자료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꿈드림 청소년단 활동을 통한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변화 등은 청소년과 외체계(exo-system)의 상호작용을 통한 주요 결과이지만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포함시키지 않았다.

9) 누적된 불이익/취약성(cumulative disadvantage/vulnerability)관련 선행연구들로, 건강상의 문제, 사회환경적 취약성 등이 장기간 축적될 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며(Huang & London, 2012; Ferraro & Kelley-Moore, 2003, McDonough et al., 2015 등), 이외에 범죄와 관련된 연구들(Kurlychek & Johnson, 2019)의 이론적 기초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누적된 빈곤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구인회, 2005; 임세희, 2007; 장희선, 김기현, 2014; Kiernan & Mensah, 2011; McLoyd, 1998 등).

둘째, 각각의 취약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활하며, 대처/극복하였는가? 취약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지지체계가 있었는가?

이에 대한 탐색 결과는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개입 시점과 방법에 구체적인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방법

1) 분석개요

본 분석의 연구 질문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역 사회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집한 질적자료 중, 특히 최근 학교를 그만두고 본 질적 조사에 참여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4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에 자료수집을 시작한 신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적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먼저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로서 올해까지 최소한 2차례 이상 면담조사에 참여한 신규 패널 24명을 대상으로 개인적, 환경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청소년 사례들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지지나 권유 등 부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은 홈스쿨링이나 대안교육 기관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사례들은 제외하였다. 둘째, 진로미결정,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진로와 관련된 측면임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구축 시 진로에 대해 특별한 계획이 없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들 사례에 우선 주목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 및 가정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들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본 분석에서 취약한 것으로 판단한 기준은 1) 약물치료까지 경험한 다소 심각한 심리정서적/정신과적 문제, 2)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은둔경험을 포함한 사회

적/인간관계 문제, 3) 가정환경의 어려움(경제적 어려움, 한부모 및 가족 간 갈등 등), 4) 거주지역에 따른 불리함을 경험한 지역/물리적 환경적 어려움 등으로, 이 가운데 한 개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청소년 사례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선정한 본 분석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취약한 측면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남자청소년은 3명, 여자청소년은 4명으로 총 7명이며, 이들의 연령대는 17~20세로 대부분 고등학교시기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일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5명이었고, 1명은 군 단위 지역, 다른 한 명은 인구 8만 수준의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사유는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학교에 얽매는 시간이 너무 많고, 감옥같다는 청소년도 있었으며, 또 친구관계 문제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2020~2022년 면접에서 매년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달리 이야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1번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사례였는데, 2020년도 면접에서는 학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답변했고, 2021년에는 친구들이 이사해서(멀리가서), 2022년에는 건강상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4명이었는데, 이들 중에는 첫 면담 시 무업형이거나 직업형인 사례도 있어, 진로 발달 측면에서 흥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내일이룸학교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학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과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군입대를 기다리는 청소년 등도 본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의 취약한 상황에 대한 상세 내용과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IV-1. 분석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ID	성별	출생연도	만 나이 ¹⁾	'20년 학교 밖 유형	거주지 규모	학업중단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	'22 현재 주로 하는 일	향후 계획
사례1	남	04년	18	무업형	대도시	고등학교 미진학	'20: 학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1: 친구들도 이사가고 멀리가서 '21: 건강상의 이유로(자살 시도 포함) * 면접 연도별로 이유를 다르	대학생, 공인중개사 준비	음악(랩)활동, 공인중개사

ID	성별	출생연도	만 나이 ¹⁾	'20년 학교 밖 유형	거주지 규모	학업중단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	'22 현재 주로 하는 일	향후 계획
							계 보고함.		
사례2	남	03년	19	무업형	읍면 지역	고1, 고2 (두번의 자퇴경험)	공부에 의욕이 없고 학업 분위기가 맞지 않음, 친구 관계가 없음.	편의점 아르바이트	군입대
사례3	여	04년	18	무업형	소도시 ²⁾	고2	진로 탐색을 위해	검정고시/자격증 준비, 아르바이트	적성에 맞는 대학학과 진학 희망
사례4	여	03년	19	학업형	대도시	고1	친구 관계, 낮은 성적	대학생, 근로장학생, 전공 관련 자원봉사 활동	졸업 후 전공 분야 복지단체/기관 입사 희망
사례5	여	03년	19	학업형	대도시	고1	학교 안에 정해진 시간이 너무 많았고 자신의 시간이 전혀 없었음.	대학생, 대부분 학과 관련 일	미결정
사례6	여	05년	17	직업형	대도시	고1	친구 관계가 어렵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학교를 그만둠.	내일이룸학교 수강하면서 자격증 준비, 아르바이트	자격증 취득, 대입
사례7	남	02년	20	직업형	대도시	고등학교 미진학	학교는 출퇴근하는 감옥같았음.	대학생, 음악 활동	음악활동 위한 대학원 진학

주 : 1) 만 나이는 일괄적으로 2022-출생년도로 산출함.

2) 인구 8만 수준의 소도시

2) 분석방법

본 분석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개인 및 가정,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사례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청소년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러 차례 수집된 질적 종단자료를 통해 동일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어떠한지를 대조하면서 검토하였다. 이렇게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매번 또 다른 내용의 정보가 추가되면서, 매우 풍부하고 광범위한 자료에 기초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취약한 상황에 대해서 면접 때마다 초점을 달리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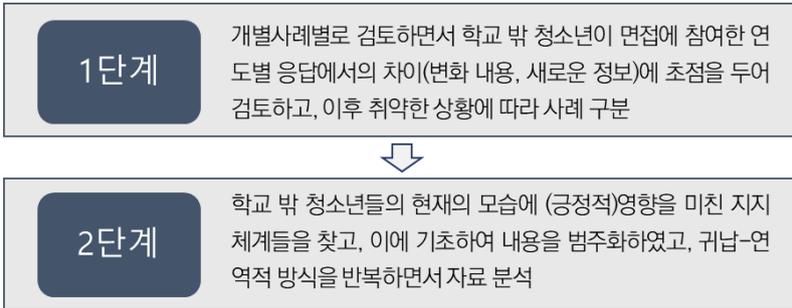


그림 IV-1.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질적종단자료 분석단계

이러한 질적 종단자료 분석을 위해 두 단계의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사례연구 방식으로 취약한 상황의 개별 학교 밖 청소년 사례에 집중하였다. 질적 자료를 수집할 당시 사례연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본 분석에 활용한 자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례연구가 특별한 인물이나 집단의 사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변화과정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탐구 과정(Merriam, 1988)”(김희진 외, 2021a: 180)이라고 할 때, 이는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별사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7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로부터 2~3차에 걸쳐 수집된 전자자료에서 이들의 취약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취약한 특성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표 IV-2 참조).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할 때 활용한 네 개의 취약한 상황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약물치료 경험까지 있는 심리적,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다소 컸던 사례에는 1번과 2번 청소년이 해당되었다. 은둔 경험과 함께 친구관계/인간관계에 어려움을 크게 토로한 사례는 2번과 6번 청소년이었으며, 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함에 따른 인프라 부족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사례 2번, 3번 청소년이 해당되었다. 가정환경적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례에는 사례 4번과 7번 청소년이 해당되었다. 이들은 가족구조 및 관계 등 가정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으며(부모의 이혼에 따른 한부모

가정, 가족 간 갈등), 사례 5번 청소년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사례였다.

특히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인 청소년도 있었는데 사례 2번 청소년은 가정환경 및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개별적인 취약한 상황을 살펴볼 때도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면서 전인적 관점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사례 4번과 7번 청소년은 경제적 문제를 포함한 가정환경적인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표 IV-2. 분석 대상 학교 밖 청소년별 취약한 특성

1차 면접 당시 학교 밖 유형		무업형			학업형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 ID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면접 참여 연도		2020,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1, 2022	2020, 2021, 2022
주요 취약 특성 ^{주)}	심리적, 정신건강 문제 (약물치료 경험)	○	○					
	사회적관계/인간관계 (은둔 경험)		○				○	
	가정환경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 가족 갈등 등)		○		○	○		○
	지역/물리적 환경 어려움(지역 격차)		○	○				
현재 생활/주로 하는 일		대학생, 공인 중개사 자격 준비	편의점 아르바이트	검정고시 /자격증 준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근로 장학생, 전공관련 자원봉사 활동	대학생, 대부분 학과 관련일	내일이룸 학교 수강, 관련 자격증 준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음악 활동

이러한 취약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대부분의 분석 대상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학에 재학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전사자료 곳곳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한 도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6 청소년의 경우는 내일이룸 학교를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지속적인 진로 준비도 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약한 상황들을 잘 극복했거나, 또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면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진로를 준비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누가/무엇이 그 과정에 기여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과 연역적 분석 방식을 반복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각의 취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벗어났는지, 또는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생태체계 접근을 염두에 두긴 했으나 이 틀에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성급히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이들의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청소년들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향을 준 인물이나 사건,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텍스트를 찾아 코딩하였다. 특히, 취약한 상황이 유사함에도 그 경험과 과정, 현재 상태 등에 있어 청소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하고 그 맥락과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개별 사례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의미단위들을 코딩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코딩하고 또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차원(체계)을 도출하려고 하였고, 또 이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코딩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다음 절에 제시하는 분석결과에서는 먼저, 각 유형별로 학교 밖 청소년 각각의 취약한 측면(과거 경험 및 현 상태)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설명하였고, 다음으로 이 과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 지원 등은 청소년들의 전사자료에서 도출한 의미단위를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각 생태체계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취약한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한 개인 및 가족 차원, 친구/주변사람, 꿈드림 지원체계의 내용들을 구분하여 정리,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두 세 차례에 걸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른 전사자료뿐 아니라 필드 노트도 함께 확인하면서 상호검증하였고, 과거 본 연구에서 횡단 분석을 통해 도출된 조사결과들(예, 김희진 외, 2020; 김희진 외, 2021a)과도 함께 비교하면서 삼각검증과정을 거쳤다. 또한, 질적연구 전문가들을 활용한 외부감사(audit) 과정을 통해 분석 계획과 과정,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받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결과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을 완료하였다.

3. 분석결과

1) 취약한 상황별 청소년 사례

(1) 심리적, 정신건강 문제: 사례1, 사례2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심리적 문제, 특히 학교 급우들과의 문제, 따돌림 등 관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김희진 외, 2020, 2021a), 본 분석에서도 청소년 1번, 2번 사례는 정신건강 문제로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1번 청소년은 현재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중에 있었다. 특이한 점은 2020년과 2021년의 과거 인터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고, 아래와 같이 자신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이다.¹⁰⁾

면담자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재밌고 행복한 사람? (사례1, 2020년)

면담자 알겠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비슷하게 대답해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 속 시원하게 얘기하신다면?

청소년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요. 행복하기를 추구하는 사람 (사례1, 2021년)

이 청소년은 2022년의 면접조사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서와 관련한 질문에서 현재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과거 학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2020년 인터뷰) 또는 친구들도 이사 가서(2021년 면접)로 답변한 것과는 달리 중학교 시기 공황장애와 자해로 인해 학교를 다니기 힘들었다는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면담자 (실수들이 생각났을 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청소년 방법은 다양하죠. 저는 병적으로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라서 병이 아예 그런 병이에요. 조울증인데 이게 되게 많은 변화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 병이라 그냥 버티요(사례1, 2022년)

면담자 그렇게 본인이 힘들 때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먹거나

청소년 네, 약도 먹고 명상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하고 너무나 많은 걸 하면서 버티요. (사례1, 2022년)

10) 면담자의 필드 노트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았고, 일부 답변에서 이후 말을 바꾸기도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당장 제가 지해를 하고 학교에 못 나가게 됐어요. 너무 힘들고 공황장애가 너무 많이 온다고 이려고 있었는데 하루에 약을 8알, 10알 털어 넣으면서도 학교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퇴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제대로 확인 받고 오라고 (사례1, 2022)

이렇게 3년에 걸친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은 면담자나 환경의 차이일 수도 있고, 청소년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을 더욱 객관적으로 보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사례1 청소년의 경우는 가정내·외적으로 지지체계가 단단하고 또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례 2번 청소년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본인의 심리적,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보다,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더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울증 관련 부분은 여기에서, 그리고 대인관계 등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서 유사한 다른 청소년 사례와 같이 살펴보았다. 이 청소년은 학교를 두 번 그만둔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관내 일반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그리고 이후 대안고등학교로 전학하여 2학년 재학 중 다시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 청소년 역시 2021년 1차 면접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툼이나 갈등이 많았다는 정도만 언급하였으나, 2022년 면접과정에서 첫 번째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학교생활과 학교 친구들이 우울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¹¹⁾ 우울증 처방약은 고등학교 자퇴를 고민하면서 복용하였으며,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 중에 학교 교사의 권유가 있어 병원을 찾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달 정도 지난 후 자신의 의지로 약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소년 애들이랑 안 맞아서 많이 싸웠든가,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면담자 아, 초등학교 때부터. 관계에서 조금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시나요?
청소년 몇몇 애들이랑 그렇죠. 어릴 때 규칙 같은 거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규칙을 어기는 애들이랑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중략) 고자질하거나, 휴대폰을 내야 하는데 안 내는 애들을 선생님한테 얘기하거나
면담자 아, 그래서 부딪치거나 이런 상황들이
청소년 네. (사례2, 2021년)

면담자 혹시 복용했던 아니면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을까요?
청소년 고등학교 자퇴 고민할 때 먹었던 약이 있긴 합니다.

11) 면담자의 필드 노트에는 구체적인 원인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면담자 혹시 우울증 그런 약일까요?

청소년 네, 두 달 정도 먹고 끊었던 것 같아요. 제 의지로. (사례2, 2022년)

면담자 부모님이 가자고 그래서 (병원에) 가셨어요? 힘드니까 가보고 싶다고 가신 거예요?

청소년 후자 쪽으로, 학교 담임선생님도 한 번 가보라고 하셔서

면담자 이게 고등학교가 안 맞아서 이런 힘듦이 느껴진 건가요? 중학교 때나 방학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청소년 고등학교가 안 맞은 게 큰 것 같습니다.

면담자 우울증이 올 정도로 되게 힘들셨네요?

청소년 그렇죠. (사례2, 2022년)

심리적, 정신과적으로 취약한 상황의 이 두 명의 학교 밖 청소년 사례에서 특히 흥미 있는 점은 모두 상담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이다. 사례1 청소년은 관심 분야가 매우 다양하긴 했으나(상담, 음악/랩, 공인중개사 등), 현재 상담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사례2 청소년은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2021년 면접에서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통찰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한 상담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 것인지를 좀 더 탐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지원받은 경험에 기초하여 타인의 심리에도 관심을 갖고 돕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청소년 지금은 상담 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면담자 아, 상담사. (중략) 누구를 어떤 내용을 상담해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청소년 어린 청소년이나 그런 애들을

면담자 그러면 상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 먹으신 이유나 계기가 어떻게 돼요?

청소년 문화센터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끔씩 상담도 해주시고, 센터 처음 오는 애들, 아니면 상담하러 온 애들을 해주시는 분이어서, 그거 보고. 제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는 것도 좋아해서 관찰을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례2, 2021년)

면담자 (본인이 지원받은 경험,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경험들이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저도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이런 일들에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담자 어떻게요?

청소년 이런 센터에서 봉사활동처럼 상담 같은 걸 해 주거나 (사례2, 2022)

표 IV-3. 심리적, 정신건강 관련 취약성

ID	성별	현재 만나이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사례 1	남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함 • 정신과적 이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답변함. • 정신과적 이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상담경험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병원에서 정신과진료, 약복용중 • 자신의 정신과 관련 상황(공황장애, 조울증)과 자살시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담관련학과 전공 대학생 • 과거와 달리 올해 면접에서 자신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함.
사례 2	남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때부터 다툼이 많았음. • 갈등이 해결되지 않음. • 당시 면접에서 우울증 관련 언급은 찾아볼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두고 뭘 해야 할지 몰라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음. •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고민할 때 우울증약을 복용하였음. • 학교생활, 학교친구들이 우울증에 영향 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일을 해보거나 상담 봉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함. • 2021년의 1차 면접 당시에는 우울증 관련 언급이 없었음.

(2) 사회적 관계/인간관계(은둔 경험): 사례2, 사례6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학교 급우들과의 문제, 따돌림 등 또래와의 관계, 더 나아가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진 외, 2021a; 윤철경 외, 2018).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 때문만이 아닌, 학교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한 문제의 촉발은 개인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향후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취약성은 앞의 심리적,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구분하였다. 여기에서는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아가 은둔 경험을 이야기한 학교 밖 청소년 사례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사례2 청소년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많았고,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나 면접내용에서 정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 청소년이 고등학교가 맞지 않아 힘들어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진술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다루고, 또래관계,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곳에서 유사한 취약성을 보인 다른 청소년 사례와 같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분석에서 사례 2번과 6번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부터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였고,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두 청소년 모두 일정 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경험을 보고하였다. 먼저 사례2 청소년은 또래와의 갈등 상황이 많았다고 했으며,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지 많이 신경 쓰고 있었고, 힘들었다고 회고하였다. 현재 연락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고도 하였다.

청소년 마음이 맞는 친구를 사귀는 게 꽤 어렵더라고요.

면담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 사람마다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 사람은 자주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고, 이 사람은 친하지만 자주 만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아서. 사람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나,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2, 2021년)

면담자 그러면 지금 베스트 프렌드도 없나요?

청소년 네, 연락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례2, 2021년)

사례6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는 친구 관계의 어려움, 즉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주요인이었다. 중학교 시절 스스로 곁돌았던 경험이 있었던 이 청소년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친구들 간의 많은 갈등을 중재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지내던 중 그러한 역할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학교시기부터 다소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게 했던 친구들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무리를 지어 싸우는 상황에 계속해서 직면하였고, 이렇게 누적된 스트레스는 그 친구들을 두려워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학교를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제가 중학교 때 되게 많이 곁돌았거든요. 저는 엄청 평화롭게 지내고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길 바랐는데, 애들이 엄청 무리 지어 다니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성격상 그런 거를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풀어주기도 하면서. 작년에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제가 그런 애들이랑 지금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싸운 거는 없었는데 그냥 문득, 갑자기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기도 해서, 그래서 전화하는 것도 무서워지고 카톡하는 것도 무서워지고, 연락 자체가 갑자기 무서워서 제가 한 2주를 휴대폰을 비행기모드로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사례6, 2021년)

제가 본의 아니게 애들끼리 싸우는 거에 오지랖이 심해서 애들이 싸우지만, 싸우지만, 이러다가 제가 좀 치였어요. (중략)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랬던 애들이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상처 받을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대하는데 그게 조금,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랬나 봐요. 애네 뭐지? 하면서 되게 무서웠었던 건가, 그랬나 봐요. (사례6, 2022년)

사례2 청소년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래도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었고(“같이 놀던 중학교 친구들이 다 흩어져버려서” 2021년 면접내용), 사례6 청소년은 중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모님의 전학 반대가 있었음) 학교급이 전환되는 변화가 큰 시기에, 가장 가까운 또래와의 관계 단절을 함께 경험하였다. 사례 2번 청소년은 새로운 친구 관계 형성이 힘들었고, 6번 청소년은 결국 친구 관계 스트레스가 두려움까지 불러오는 상황이 되어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경우 친구 관계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으며, 학교생활의 지속 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두 청소년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며, 집 밖에 나오기조차 힘들어한 경험이 있었다.

면담자 학교를 그만둔 거에 대해서 당시 18살 ○○이는(청소년 이름) 어땠어요?
 청소년 많이 심란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뭘 해야 될까 생각하고 의욕이 없고 집에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례2, 2022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공부를 혼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것도 있었고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기 싫은 것도 있었고, 인간관계에서는 약간 도망가고 싶었다? 그래서 자퇴를 하고 두 달 동안 밖을 못 나왔어요. (사례6, 2021년)

2022년 면접조사에서 사례2 청소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족들과 나아진 관계 속에서 비교적 잘 지내고 있었으며, 사례6 청소년 역시 내일이름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 준비를 하는 등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전사자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이 이러한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은둔에서 나오게 된 계기에는 스스로의 의지뿐 아니라 청소년관련 기관 및 꿈드림센터의 역할도 있었다.

면담자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학교를 그만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년 지금 자유롭게 생활하는 걸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담자 무슨 차이가 생겼나요?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청소년 (청소년문화의집) 센터를 다닌 것도 있고 운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사례2, 2022년)

면담자 인간관계가 조금 많이 변하셨을까요? 다양해지거나 변한 부분 있으세요?
 청소년 동네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사례2, 2021년)

(꿈드림 개인정보 연계 동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들었는데, 제가 그때 좀 쉬고 싶어서 그냥 다 안 한다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퇴를 한 후에 다음 연도 초봄에 꿈드림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쯤에 다시 일어나보자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사례6, 2022년)

제가 성격이 많이 변한 게 자퇴하고 나서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제가 직접 계획해 나가면서 제가 조금 성격도 되게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생각도 되게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격이 관찮아진 거거든요 (중략) 나를 지켜야겠다 하면서 제가 우선순위로 바뀌어서 인간관계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게 없었던 거 같아요. (사례6, 2022년)

이러한 진술은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이어지는 부정적 경험에 대해 주목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청소년들이 현재의 모습에 영향을 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환경, 개입 및 지원 등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표 IV-4.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취약성

ID	성별	현재 만나이	2021년	2022년	비고 (은둔탈피 계기)
사례2	남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들었음. 친구를 존중하는 등 노력함. 인간관계도 관찮아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음. 지금은 대인관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음. 	주변 성인들과의 소통, 청소년활동기관, 운동
사례6	여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관계 갈등 상황이 힘들. 친구들 간의 관계가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나중에는 무서웠음. 사람은 좋아하는데 쉽게 지칩. 학업을 그만두고 본인에게 안 좋은 인간관계와 단절 후 자신에 집중하면서 여유가 생겼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들 간의 관계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고 지쳤음.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음. 재학 중 2주 동안 친구들의 연락을 차단한 적이 있었고, 학교를 그만두고도 2달여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음. 여러 다양한 활동, 사회생활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뀜 	꿈드림의 연락, 자신의 의지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둠)

(3) 가정환경적인 어려움: 사례2, 사례4, 사례5, 사례7

본 분석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표 IV-5 참조). 가족관계에 대해, 사례2 청소년은 과거 부모님이 이혼 위기가 지간 적이 있었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 의욕이 더 떨어졌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재에는

가족관계가 비교적 좋아지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과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좋다고 하였다. 2021년의 1차 면접 당시에는 아버지는 농사, 어머니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과거에 비해 좋지 않은 상태로 수익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 2022년에는 아버지가 농사를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청소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마련하고 있었다.

사례 4번 청소년은 이혼 가정으로 아버지, 남동생과 살고 있으며, 인근에 고모가 살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평균 이하로 생각하고 있었다. 2022년에는 대학생이 되어 근로장학생으로 용돈을 벌고 있었으며,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과거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었으나 지금은 괜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도 별로 안 좋아서. 딸기를 하하는데, 딸기를 수확하려면 겨울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라 수익이 없고요. 어머니는 수익이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종략) 외식할 때도 좋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례2, 2021년)

최근에 아빠가 사업을 시작해서,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좀 평균 이하인 것 같아요. 소득이라고 치면 (사례4, 2021년)

학교 그만뒀을 때는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뒀서 좋게 보진 않았어요. 아빠도 고모도 그렇고 달가워하진 않으셔서 제가 늦게까지 자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싸웠어요. 아빠랑도 싸우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런 건 학교 그만두고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례4, 2022년)

사례 5번 청소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언니, 동생과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이었으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가족관계에 대해 큰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사례 7번의 청소년은 2020년 1차 조사 당시 가족관계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 청소년은 어머니가 계시지만(재혼한 것으로 보임), 갈등 끝에 집을 나와 혼자 지내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였다. 이후 어머니를 몇 달에 한 번씩 만나기는 했지만, 어머니도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이어서 별다른 경제적 지원도 없이 거의 혼자 힘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2021년부터는 어머니로부터 적게나마 생활비를 받고 본인도 간간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2022년에는 과거보다는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가 다소 좋아진 것으로 보였다.

청소년 지금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벌이도 다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라서, 면담자 부모님한테 어떤 도움도 안 받고 계세요?
 청소년 단 1원도 안 받고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예 돈이 1원도 없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례7, 2020년)

최근 들어서는 (생활비를) 아예 안 받지는 않는데, 사실 저도 가족이 그렇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손을 벌리려고는 안 해요. (사례7, 2022년)

알바했던 것들로 집에서 조금씩 그걸로 저는 (생활하고 있어요) (사례7, 2022년)

표 IV-5. 가정환경적으로 취약한 상황

ID	성별	현재 만나이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재 하는 일
사례 2	남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부모님이 이혼 위기가 있었음(학원과 함께 공부 의욕이 없어진 원인). 가구 소득 감소. 가끔 농사와 어머니 자영업을 돕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가 좋아졌음. 군복무 이후 부모님과 청년창업도 계획 중임. 아르바이트 수입은 용돈이나 가족들과의 식사비용 등으로 쓰고 있음. 	아르바이트
사례 4	여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 가정으로 한부모 가정, 아버지와 남동생과 살고 있고, 집 가까이 고모가 살고 있음.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관계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관계였으나 점차 좋아짐 아버지의 사업 시작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평균 이하인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관계였으나 점차 좋아짐. 학교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음. 학자금 대출 있음. 	대학생, 근로장학생
사례 5	여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에 변화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에 변화내용 없음.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평범하다고 생각 	대학생

ID	성별	현재 만나이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재 하는 일
사례 7	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집을 나와 살고 있음. 새아버지, 어머니와 갈등이 많았음. •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독립하여 아르바이트하면서 살고 있음. • 어머니로부터 생활비를 조금 받지만 가정 형편도 많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간히 아르바이트하면서 혼자 생활함. 가끔씩 어머니 만나며 약간의 생활비 받음(어머니도 기초생활수급자임). 	대학생

(4) 지역/물리적 환경에 따른 제약(지역 격차): 사례2, 사례3

○○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 2번 청소년과 인구 8만 수준의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 3번 청소년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불편함을 포함한 지역 격차로 인한 취약함을 보고하였다. 특히 2번 청소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다 ‘떠나서’, ‘흩어져 버려서’ 해당 읍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가까운 친구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표현대로 ‘그나마 남아 있는’ 청소년들도 후에 다 그 지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을 하였다.

청소년 친구 사귀려고 학교를 간다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친구들이 중학교 때 다 떠나서 고등학교 때 없더라고요.

면담자 학교가 다른 데로 배치가 돼서요?

청소년 네, 같이 놀던 중학교 친구들이 다 흩어져버려서. 고등학교로 가니까, 다른 고등학교로 떠났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애들이랑 놀아도 서로 헤어지다 보니까 얘기도 안 하게 되고. 그나마 남아 있는 애들도 다 가더라고요. (사례2, 2021년)

또한 사례2 청소년은 자신의 지역이 심심하고,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의 부족을 아쉬워했으며, 사례3 청소년은 자격증 준비를 위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해도 해당 지역에서는 불가능함을 호소하였다. 더 나아가 사례2 청소년은 지원을 받았던 기관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불편함에 대해, 사례3 청소년은 지원내용과 관련한 지역 격차에 대해 토로하였다.

(청소년이 가고 싶다고 한 서울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그냥 볼거리가 많으니까. 시골보다는 덜 심심하지 않을까 (사례2, 2021년)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던 (사례2, 2022년)

청소년 문화센터도 다른 건물 3층을 빌려 쓰는 거라 다른 활동도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 크게 못하는 것도 있고 (사례2, 2022년)

시 인구가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좋지만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자격증 하려고 해도 ○○에 없어서 □□까지 나가야 하고, 그리고 뭔가 배우려고 할 때 없어요, 할 수 있는 곳이 (사례3, 2021년)

특히 사례3 청소년은 지역 전반의 인프라 뿐 아니라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체험·경험 기회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소도시에서 더 많은 시도와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희망했고, 또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할 때 또래가 없어 어색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 부분은 앞서 사례2 청소년이 고등학교교로의 교급 전환 시 주변의 친구들이 떠나버렸다고 이야기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는 지역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 격차 문제뿐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또래 청소년들이 없음에 따라, 사회적 관계 형성도 제한되면서 해당 지역에 남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으로 편치 않은, 지역 격차와 관련한 여러 파생적 이슈를 시사하고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지역으로 따지면, 좀 더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사례3, 2021년)

그런데 저도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데 이거는 지역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제 또래가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 조금 그랬어요. (사례3, 2021년)

사례3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꿈드림센터 지원의 지역별 격차에 대해 사실적으로 보고하였다. 이 청소년은 다른 지역의 꿈드림센터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과의 교류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꿈드림센터의 지원내용이나 범위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같은 꿈드림이어도 정말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진학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정말 다르고 횡수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사례3, 2022년)

(타 지역 청소년단과 의견 교류) 그런 것도 있고, 각 지역별로 SNS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씩 꿈드림 SNS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여기는 뭐가 많은데 우리는 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쭌. (사례3, 2022년)

이외에 사례6 청소년은 2021년 면접 당시에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꿈드림센터의 지원을 받았다가 2022년 조사에서는 대도시 기숙형 내일이룸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지역에 따른 꿈드림센터의 지원 격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 청소년은 본인이 이용하였던 꿈드림센터에서 청소년단으로 참여하면서 센터의 시설환경과 종사자 처우 등이 어떻게 열악한지 잘 알고 있었다.

서울 오니까 좀 다르긴 한데, 아직 지방 쪽에 있는 꿈드림센터들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엄청 좁기도 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아니면 건물에 세 들어서 되어 있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중략). 지방 쪽에는 아직도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센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떠나시는, 제가 청소년단을 해서 좀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되게 대우가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임금도 그렇고. (사례6, 2022년)

이와 관련하여 사례1 청소년(연고지는 부산, 현재는 대학교 때문에 서울 거주)은 친구 사례를 통해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서울의 지원내용에 미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지역 규모에 따른 격차를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지원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청소년은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산과 같은 대도시와 비교해서도 더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유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요. 정말 이거는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산도 되게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친구랑 (센터) 몇 가지 교실을 끝내면 한 달에 30만 원인가 20만 원을 지원해주요 (중략) 근데 제가 들었던 다른 어떤 곳도 그 정도 지원을 주진 않더라고요. 교통비 5만 원, 그런 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중략)

다른 친구들은 제 친구들도 자퇴한 친구가 1명 있는데 그 친구는 좀 가정이 여유로운 편도 아닌데 부산에서 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등골 뻐야먹는 거죠. 속된 말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만 원씩 좋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그걸 했다는 이유만으로 20만원을 지원 받고 인턴십이나 이런 기회도 너무 많이 있고 그런 게 너무 아쉬웠죠. (사례1, 2022년)

표 IV-6. 지역/물리적 환경 제약, 지역 격차

ID	성별	현재 만나이	2021년	2022년	거주 지역
사례2	남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센터, 꿈드림센터 외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음. • 수도권 쪽에서 살아보고 싶음. 시골보다는 덜 심심하다고 느껴지기 때문. 문화시설(영화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편의 시설과 인프라가 열악하고 생각함. • 청소년 문화센터도 다른 건물을 빌려 쓰는 상황이라서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 	읍면 지역
사례6	여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언가 배우고자 할 때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음. • 한편으로 서울은 복잡할 것 같아서 인근 큰 도시에서 살고 싶음. •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지역 특성상 참여인원이 적어 참여기회가 많은 이점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수가 적기 때문에 제공받는 것이 비교적 적고 무언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꿈드림센터의 지역별 편차를 지적함. 프로그램도 다르고 횟수도 다름. 지역 SNS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음. 	소도시

2)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지체계

여러 취약한 특성이나 상황 속의 10대 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2~3차례의 면접결과, 대부분의 청소년은 여전히 고군분투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 가족의 지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등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양적연구에서의 보호요인과 유사한 맥락에서 본 분석에서는 지지체계를 중심으로 극복과정을 포괄하여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지역 격차와 관련된 측면들은 청소년이나 가족 등 주변 체계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이들의 면접결과에서 해당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올해 면접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더 솔직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더욱 많이 감지되었는데, 이렇게 각 취약한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지지체계와 개입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표 IV-7과 같다. 이후에는 각 지지체계, 차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표 IV-7. 학교 밖 청소년의 지지체계 요약

구분	취약 내용	지지체계(긍정적인면 초점)				관련 현재 상태/비고
		개인차원	가족차원	친구/주변사람	꿈드림 등 지원	
심리적, 정신 건강 문제	사례1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과 치료를 잘 받고 있음.	항상 지지해주는 부모님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 음악을 가르쳐 준 선생님	서울에서 받은 프로그램 참여수당 (꿈드림 외 지원)은 좋았음.	치료 잘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변화중임.
	사례2 우울증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 찾아감.	그래도 소중한 가족	관련 특이사항 없음.	청소년문화센터를 다니면서 변화 경험	우울증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며, 아르바이트, 운동하면서 지냄.
사회적 관계/대인 관계	사례2 맞는 친구 찾기 힘들. 학교를 그만둔 뒤 한동안 집에서만 있었음.	대인관계관련 부정적 생각을 중단하려고 노력함, 현재 상황 수용,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함.	상동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알게 된 동네 어른들 통해 인사성도 좋아짐.	청소년문화센터를 다니게 된 것이 집 밖을 나가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청소년 문화센터에 계속 참여하고 있음. 집 밖 활동을 더 할 수 있고 수련도 규칙적이 되었음.
	사례6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컸음. 두 달 여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음.	학교를 그만두면서 부정적 인관계를 끊고, 타인이 아닌 자신에 초점을 두기로 마음먹음.	어머니가 지지해 주시고 가정 이 화목함.	뒹고 싶었던 친한 친구가 있음. 내일이룸학교를 통해 관심 있는 일을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어 좋음.	내일이룸학교에서 관심 직종일을 배우고 있음. 꿈드림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그만둔 학교에 보조강사로 찾아가기도 함. 꿈드림 선생님이 친구들 대신 공감과 위로를 줌.	기숙형 내일이룸학교에서 관심직종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음, 그만둔 학교에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여유와 성취감을 갖게 됨.
가정 환경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 가족 갈등 등)	사례2 가족갈등, 가구 소득 감소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면서 그 댓가를 자신의 용돈과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데 충당	그래도 소중한 가족. 부모님 간 갈등이 다소 해소됨.	관련 특이사항 없음	관련 특이사항 없음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용돈 마련, 군체대 후에는 부모님과 청년창업을 계획 중
	사례4 한부모가정 (편부), 경제적으로 어려움.	아버지와 관계를 개선하고, 아르바이트,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 등을 하면서 용돈 마련	어려운 형편에도 하고 싶은 것 하라고 지지해주는 아버지와 가까이서 어머니처럼 챙겨주	관련 특이사항 없음.	꿈드림으로부터 많은 정보와 지원을 받음. 멘토링으로 대학 전공 선택에 도움을 받음	재학 중인 대학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생활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구분	취약 내용	지지체계(긍정적인면 초점)				관련 현재 상태/비고
		개인차원	가족차원	친구/주변사람	꿈드림 등 지원	
			는 고모로부터 많이 지원받음.			지내고 있음.
사례5	한부모가정(편모), 경제적 부분은 평범하게 인식	어머니와 계속 이야기하면서 진로계획을 수립, 모색	어머니가 본인의 롤모델이며 심리적 지지와 함께 많은 도움을 얻음.	꿈드림에서만 만난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음.	꿈드림 선생님과 대학입시를 준비했음. 많이 챙겨주고 도움을 주었음.	대학진학에 성공하였고 현재 대학학과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사례7	새아버지와 갈등이 많았고,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생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부모님과 단절하고 지냈다가 어머니와는 간간히 만나고 약간의 생활비도 받게 됨.	막막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음.	꿈드림 통해 지원금, 교통비, 식음 등 많은 지원을 받음. 꿈드림에서 잘 챙겨주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음.	예전처럼 어렵게 지내고 있지 않으며, 대학생 활동도 잘 하고 있음.
지역/물리적 환경 어려움 (지역 격차)	사례2	인프라가 부족함.	관련 특이사항 없음.	관련 특이사항 없음.	관련 특이사항 없음.	지역적 변화가 크게 없음.
	사례3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격차를 알게 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근 도시로 감.	관련 특이사항 없음.	관련 특이사항 없음.	꿈드림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았으나 본격적인 자격증 취득준비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음.

(1) 개인 차원의 노력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본 분석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해 개인 차원의 노력을 시도했고, 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개인 차원의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례1과 2번 청소년은 스스로 상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또 먼 곳의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었다. 사례1 청소년은 본가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과는 매우 먼 거리의 서울 인근의 대학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잠시 올라와 있었고, 사례2 청소년은 학교 교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해서 2시간여 시간이 소요되는 병원을 직접 찾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정신과적 문제 개선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면담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접 약을 처방 받으려고 정신의학과도 가신 거잖아요. 근처에 어디에 있었나요?

청소년 없어서 □□까지 가서

면담자 그러면 부모님이 가져다 그래서 가셨어요? ○○씨가 힘드니까 가보고 싶다고 가신 거예요?

청소년 후자 쪽으로, 학교 담임 선생님도 한 번 가보라고 하셔서 (사례2, 2022년).

면담자 확실히 약 먹고 자퇴하고 우울증이 확 좋아졌어요?

청소년 확 좋아지진 않았는데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넓어져서 (사례2, 2022년).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는 건 그건 근데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뭐든 다른 걸 많이 했어요. 그림도 그렸고 매일 당구 치러 가고 포켓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포켓볼을 치는 게 일정이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중략) 약도 먹고 명상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하고 너무나 많은 걸 하면서 버텨요. (사례1, 2022년)

친구들과의 문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집 밖을 나가기 힘들었던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서 2번 사례 청소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고, 부정적 생각이 들면 집 밖을 나가 산책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친구가 없고 외로운 상황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사례6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험이나 사회생활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거나 남을 만나기 그렇다거나,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감정이 들때)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때문에 밖에도 잠깐 나갔다 오고, 산책도 합니다. (사례2, 2021년)

청소년 고민 해결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어서.

면담자 사람은 외로울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청소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사례2, 2021년)

면담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한 편인가요?

청소년 아니요, 잘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중략)

면담자 지금까지 그 친구들의 마지막 인사의 눈빛이나 태도가 많이 상처로 남아 있나요?

청소년 아니요, 지금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2, 2022년)

일단 학교를 제가 나왔잖아요. 그런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고,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했으나, 일단 여기에서 부담감이 덜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집중하기 시작했죠.

저한테 집중하니까 생각보다 제 주변에 저한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저를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애는 그냥 끊어내야겠다, 걸러낼 사람들은 좀 걸러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집중하게 된 여유가 생겼다. 그 부분에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사례6, 2021년)

가족 간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가 있는 한부모가정에서 청소년들은 가족을 더 잘 챙기고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아르바이트(국밥집, 햄버거매장 등)나 근로장학생 등을 통해 용돈이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였다(사례4, 5). 또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어머니와 의논하면서 진로를 모색하였다(사례5).

학교 다닐 때는 좀 철이 없다고 해야 하나 아빠랑 안 친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는 좀 철도 들고 좀 가족도 챙길 줄 알아져서 아빠랑 좀 더 친해지고 좀 아با도 많이 챙기면서 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학교다닐 때보단 (사례4, 2020년)

(학교를 그만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일단 엄마랑 계속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얘기하고, 일단 계속 그냥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사례5, 2020)

앞서 살펴본 이 청소년들은 심리적, 정신과적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또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한부모가정으로 가족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였다.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들은 정신과적 문제로 병원을 먼저 찾거나, 원거리의 병원치료를 잘 받고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또 힘든 대인관계는 차단하고 자신에게 더 집중하려고도 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들은 가족들과 더욱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 차원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긍정적인 변화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 개인의 의지가 없고 노력조차하기 힘든 상황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시키거나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2) 가족들의 지지

가족들의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약한 상황을 타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가족의 도움이 컸던 청소년은 사례1, 사례4, 사례5였다. 사례1 청소년은 부모님과 조부로부터 심리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잘 받고 있었고,

특히 아버지가 부모교육 등을 통해 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닳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사례4 청소년은 어릴 때 이혼으로 아버지, 남동생과 지내고 있었고,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도 겪었다. 그래도 지지적인 아버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인근에 살면서 거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고모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매우 많이 받고 있었다. 이 청소년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세심하게 돌봐주고 있는 고모가 역할 모델이라고 하였다. 사례5 청소년 역시 한부모가정이었으나 어머니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되게 많이 변하셨고 저를 되게 사랑하시고 (중략) 아버지는 그런 것도(부모교육) 해보셨고, 부모 강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으시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저한테 표현하는 게 되게 느셨어요(사례1, 2021년).

아버지, 할아버지가 두 분 다 너무 좋으세요. (사례1, 2022년)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아빠가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사례4, 2020년)

(고모가) 저랑 동생을 진짜, 친엄마도 아닌데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사촌 오빠, 사촌 언니도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4명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저랑 제 동생까지 자식이라고 하고, 진짜 엄마처럼 챙겨주세요. (중략) 일단 친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너무 닳고 싶은 모습이고 (사례4, 2021년)

(어머니가)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고 조언도 해 주고(사례5, 2021년)

(어머니로부터) 거의 모든 걸 다 도움 받고 있어요. (사례5, 2022년)

이들의 사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있다고 해도 가족의 절대적 지지가 긍정적인 상황 변화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가족과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혼자서 자신의 길을 모색해야 했던 사례7 청소년과는 대조적이다. 사례7 청소년은 재혼가정에서 큰 갈등을 겪고 집을 나오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2020년의 1차 면접 당시 경제적인 지원을 매우 절박하게 필요로 했다. 이후 면접에서 어머니와 가끔 만나기도 하고 생활비도 일부 지원받고 있다고 하였으나 어머니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른 사례의 청소년들이 소중한 사람이나 역할 모델로 가족을 이야기한 것과 달리 사례7 청소년은 2020년이 1차 면접 당시에,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고, 2022년의 3차 면접 때도 여전히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그래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였다.

면담자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청소년 저요.

면담자 자기 자신

청소년 그런데 사실 가족도 아니고, 없어요. (사례7, 2020년)

면담자 그러면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청소년 소중한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딱히 누가 제일 소중하다기 보다

면담자 딱히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머니와 관계는 어떤 편이세요?

청소년 같이 살 때는 되게 안 좋았어요. 떨어져서 살고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지금은 그래도 안 좋진 않아요. (사례7, 2022년)

(3) 친구/주변 사람들의 지원

친구들로부터, 또는 지역사회의 교회나 기관, 동네 사람들을 통해 지지를 받았던 경험 역시 청소년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례1 청소년은 교회와 음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선생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고,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례2 청소년은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주변의 어른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덕분에 인사성이 늘었다고 보고하였다. 사례6 청소년 역시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이후에 닮고 싶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또 내일이룸학교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교류에 만족스러워했다.

교회에서 주는 행복감이 있어요 (중략) (믿을 수 있는 어른들) 교회 선생님도 물론 그렇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요. (중략)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분이 있어요. 제가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가르쳐 준 분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많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중략)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생각들은 전부 다 그분에게서 나온 것 같아요. 스승의 날마다 꽃 보내고 그래요. (사례1, 2022년)

(인간관계 변화에 대해) 동네 어른들이나 선생님(청소년문화센터)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사례2, 2021년).

(아버지 농사를 도우면서) 아버지 주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인사성도 늘어나고. (사례2, 2022년)

(닮고 싶은 사람으로) 저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다는, ○○○이라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례6, 2021년)

또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서 (내일이룸학교)들어온 애들이니까 서로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꽃 같은 거 올라오고 그런 디자인 같은 거.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 같은 거 공유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사례6, 2022년)

(4) 꿈드림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통한 도움

본 분석 대상인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유사한 청소년활동기관이나 지원서비스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진술했다. 사례 2번 청소년은 청소년문화센터를 다니게 된 것이 자신에게 사건일 정도로 자기 삶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큰 변화를 준 계기라고 하였다(면담자는 이 센터의 이야기를 할 때 청소년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고 이야기함). 이 청소년은 이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집 밖을 나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 청소년문화센터와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잘 대해주면서 자신의 생활 변화(자주 집 밖을 나와서 활동하는 것, 수면시간이 규칙적으로 된 것 등)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면담자 혹시 OO님의 삶이나 생각을 변화시켰던 어떤 큰 사건이 있으실까요?

청소년 저는 센터 다니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면담자 아, 문화센터를 가게 된 게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청소년 집에 자주 있었는데 나가게 되면서, 밖에 많이 나가게 되고, 여기에서 얘기도 하게 되니까 (사례2, 2021년)

청소년 (청소년문화센터) 많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끊기긴 했었는데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화상 채팅으로 선생님들이 부르셔서 강의도 해 주시고 좋아요.

면담자 여기가 많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센터 얘기하니깐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네요. (사례2, 2022년).

(문화센터가)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활동이 좀 늘어난 거 (중략) (청소년문화센터, 꿈드림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는지) 자주 나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중략)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되고 (사례2, 2022년)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컸던 사례6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처음에는 꿈드림센터, 지금은 내일이름학교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꿈드림센터 연계사업을 통해 취업했던 공방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다녔던 학교의 체험활동시간에 보조강사역할로 참여하면서 과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성취감도 갖게 되었다. 또한 꿈드림센터 종사자로부터 과거 친구들로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저희 공방 대표님께서도 그냥 저한테 던지듯이 ○○아 갈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그때 굉장히 무섭긴 했는데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내가 자퇴했던 학교 가서 수업도 못하냐, 같이 들던 애들한테 차라리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보여주자 하면서 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애들도 오랜만에 봤는데 애들이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중략) 그동안 초조하긴 했거든요, 학교 밖에 나와서 애들보다 열심히 살아야지, 시간적으로 좀 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이 정도면 됐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을 거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중략). 애들을 가르치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재가 나랑 같이 수업 듣고 있던 애들인데 내가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네 하면서 되게 성취감도 있었던 거 같아요. (사례6, 2022년)

(꿈드림)센터에서 저랑 정말 가까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셨나,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도 그렇고, (중략) 선생님이랑. 되게 많이 차이 나는데 엄청 보듬어 주시고 왠지 모르게 친구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못 주는 공감이나 위로나 그런 거를 선생님께서 대신 해주셨던 거 같아요. (사례6, 2022년)

한부모가정이지만 아버지와 고모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례4 청소년 역시 꿈드림센터의 지원과 더불어 종사자, 멘토, 또 그곳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 많은 진로관련 정보와 조언,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청소년은 특히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진학할 대학 전공학과를 정할 수 있었는데, 큰 확신을 가진 결정은 아니었지만, 현재는 졸업 후 관련 직종 취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현재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자원봉사활동 등).

(꿈드림센터 선생님들이) 엄청 친구처럼 잘해줬어요 (중략) 다양하게 정보도 주고 도움이나 이런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다 선생님들이 해볼래? 알려주신 거라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좋은 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례4, 2022년)

(꿈드림에서) 제일 친한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검정고시 공부법도 많이 알려주고 대학 들어가는 정보도 많이 알려줘서 지금도 종강할 때마다 만나고 센터 찾아 뵙고 그러고 있어요. (사례4, 2022년)

꿈드림센터에서 검정고시 멘토링을 해 주셨는데 그때 대학 선생님이 오셔서 어떤 과를 원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교육학과에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사실 뭔가 얘기들을 보는 게 좋다가 보다는 그나마 이 학교에서 제일 재밌는 과가 그 과인 것 같아서 가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으면 차라리 사회복지학과를 가보면 어떠냐 그거는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도 여기 가면 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 말 듣고 정한 것 같아요. (사례4, 2022년)

또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정이었던 사례5번 청소년은 가족 외에 꿈드림센터 종사자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회고하였다. 진로 준비와 관련해서도 꿈드림센터로부터 지원받았는데, 꿈드림센터 종사자와 함께 대학입시 준비를 하였고, 2022년 면접

조사에서 결국 대학 진학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로부터 좋은 경험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면담자 엄마 말고 혹시 다른 사람하고도, 많이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소년 언니나 동생이나, 가족끼리는 다 얘기를 잘 하고, 그리고 꿈드림 선생님들도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사례5, 2020년)

면담자 그러면 대입 준비하는 거는 혼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 그거는 아니고 꿈드림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사례5, 2021년)

면담자 꿈드림 센터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어땠어요?

청소년 엄청 좋았어요. 친절하시고 다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사례5, 2022년)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 생활해야 했던 사례 7번 청소년에게 꿈드림센터를 통한 지원체계는 큰 도움이 되었다. 꿈드림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힘든 상황을 벗어난 적도 있었고, 검정고시 준비와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해서, 급식 키트, 식품도 많이 지원받았는데, 특히 청소년이 더욱 지원받을 수 있도록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회고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지원뿐 아니라 이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더욱 제공하려는 꿈드림센터의 노력은 한편으로 이 청소년의 표현대로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 학교와 가정에서 이중으로 보호받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시사한다.

(기억에 남는 지원) (꿈드림에서 받은) 청소년 지원금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시기라서 그때 지원금이 있다고 숨이 턱이었던 적이 있어서

대부분 거의 급식 지원 같은 거 코로나 때... 식품 같은 거나 그런 거 자주 보내줬었는데 그런 거나 교육 같은 거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7, 2022년)

(꿈드림 선생님이) 제 집안 상황도 알고 하니까, 좀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프로그램 있으면 다 알려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중략)

진짜 잘 챙겨주셨어요. 제 상황도 알다 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따로 연락도 해 주시고 항상 제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주시고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 (사례7, 2022년)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질적 종단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개인과 상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회성 면접에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줌에 따라 청소년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준다. 이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1~2차년도 조사에서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정신건강, 부모의 이혼 위기 등 민감한 개인사에 대한 부분을 그 이후 면접에서는 상세히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해당 사례에 대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에 기여하였다.

본 분석은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질적종단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 주목하였다. 먼저 이들이 경험한 취약한 상황은 무엇인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각각의 취약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어떠한 지지체계를 통해 이러한 취약한 상황에 대처/극복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간발달에 있어 중요한 생태체계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학교 밖 청소년 연구결과,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학교를 그만두고 2020년과 2021년에 본 면접조사에 처음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전사 자료를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1) 심리적, 정신건강 문제, 3) 사회적/인간관계 문제, 3) 가정환경의 어려움(경제적 어려움, 가족간 갈등), 4) 지역/물리적 환경적 어려움 등을 기준으로 심층분석 대상 사례들을 선정하고, 각 사례들의 취약한 상황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사례별로 여러 취약한 상황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고, 다음 단계로 연역-귀납적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선정된 사례 속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약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극복하게 하는데 기여한 지지체계들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첫 번째로, 심리적, 정신건강 관련 취약성을 보인 학교 밖 청소년들은(사례1, 사례2)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과거 면접조사에서는 이러한 병력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모두 올해 면접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또한 두 사례 모두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청소년은 상담전공의 대학생이었고, 다른 한 청소년도 상담일이나 상담관련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 및 대인관계에 있어 두드러진 취약성을 보인 청소년들(사례2, 사례6), 한 명은

학교 재학 당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고 갈등이 많았으며, 다른 한명은 또래 관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학교까지 그만둔 사례였다. 전자의 청소년은 아직 연락하는 친구는 없었으나, 후자는 친구가 있다고 하였고, 둘 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은둔 경험이 있었다. 세 번째, 가정환경적인 어려움으로(사례2, 사례4, 사례5, 사례7), 부모가 이혼 위기를 겪기도 하였고, 한부모가정들이 여럿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원래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거나, 가족 갈등으로 집을 나와 혼자 지냈기 때문으로, 지금은 아르바이트하거나 부모로부터 약간의 생활비를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물리적 환경이 취약한 사례들로(사례2, 사례3), 인구가 적은 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인프라, 편의시설의 부족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시설의 열악함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에서의 격차를 인지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취약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극복하는데 기여한 지지체계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차원, 가족차원, 친구/지역사회, 꿈드림센터 등 지원체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차원의 의지와 노력에 따른 것으로 심리적,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던 청소년들은 병원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잘 받고 있었다. 또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많았던 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생각을 줄이거나 타인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자신에게 초점을 두려고 하였다. 가족 간 갈등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청소년들은 가족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혼자서 어쩔 수 없이 고군분투하는 사례도 있었다. 두 번째로 가족차원의 지지체계를 보면, 심리적, 정신건강에 취약했던 청소년들의 부모님은 항상 지지적이었거나 적어도 관계가 개선되면서 청소년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또 다른 청소년들은 한부모가정이지만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고, 어려운 형편이라도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라는 지지적인 아버지가 있었다. 집을 나온 청소년도 이제는 어머니와 가끔 만나면서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친구나 주변인들의 도움도 있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청소년은 교회를 통한 지지체계가 있었고, 우울증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청소년은 동네 어른들을 통해 인사성이 좋아졌고,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컸던 청소년은 닮고 싶은 정도로 좋은 친구를 만났다. 마지막으로 꿈드림센터와 같은 지원체계는 이러한 다양한 취약성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청소년은 청소년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심해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던 다른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와 내일이룸학교의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한부모가정이거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의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꿈드림센터에서 진로와 관련된 도움뿐 아니라 교통비, 식료품 제공, 후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꿈드림센터의 종사자들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지지적인 경험 역시 이들에게 심리정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정책적 시사점

다양한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러 차례의 면접조사 결과를 취약한 상황에 따라 구분하고 지지체계의 유무와 그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과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일탈이나 비행에 따른 현상이나 결과로 여겨졌고, 자퇴/중퇴청소년은 바로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매우 다양하며, 또 이들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개선되고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과거에 비해 매우 확대되었다. 이번 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 개인, 가정 및 환경적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하면서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때로는 그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였으나, 이와 관계없이도 단순히 이들의 잘못이나 문제에 따른 결과는 아니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는 결국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청소년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이해에 기초하여, 다양한 홍보방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떠한 취약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더욱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분석에서 청소년들은 개인의 심리적, 정신건강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족갈등 및 경제적 어려움, 물리적·환경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취약성은 이들의 청소년기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장기적으

로 성인기 삶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처음 접하게 될 때 물론 상담 과정을 거치게 되고, 때로는 인근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검정고시 준비, 진로상담 등을 통한 진로지원은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청소년 각각이 처해 있는 취약한 상황이나 특성들을 간과한다면 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지원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취약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면밀한 욕구 조사(needs assessment)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개입 및 지원 효과는 상당히 높았고, 대부분의 분석 대상 청소년들도 만족을 표했다. 특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해도 가족차원의 지지체계가 분명한 청소년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례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우울증과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는 한 청소년은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센터를 통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취약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특히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회복탄력성과 동기부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자의 취약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여러 차원의 지지체계가 있었으나 청소년들 스스로의 노력이 기여한 바도 상당히 컸다. 이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량이기 때문이다(홍세희 외, 2020). 회복탄력성이 우울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김은혜, 최서경, 노충래, 2022), 스트레스가 심한 생애사건이나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잘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할 때(Wu et al., 2013),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자 경험한 취약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한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극심한 또래관계 스트레스로 학교를 그만두었고 당시의 충격으로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다른 선행연구(김희진 외, 2021a)에서도 학교를 그만둔 것을 주요 생애사건으로 이야기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체계뿐 아니라 개인 내적인 회복탄력성 역시 학교 밖 청소년

년들이 취약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전인적 관점(holistic perspective)이 필요하다. 분석 대상 청소년 중에는 정신건강문제만 있을 뿐 가족과 주변의 지지체계가 충분했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대학 생활을 하는 사례도 있었지만(1번 사례),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취약성을 보인 청소년도 있었다(2번 사례). 이 청소년은 우울증 문제에 더해 또래와의 갈등이 많았고 학교를 그만둔 후 집 밖으로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으며, 부모님의 이혼 위기를 경험하였고,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본 분석에서는 각각의 취약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자 다소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나, 이러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에서는 전인적 관점에서 각각의 취약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주변의 지지체계와 지원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사례관리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지만, 이 청소년은 지역사회 내 다른 청소년시설도 이용하면서 두 곳으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이는 비록 인프라가 제한된 읍면지역이지만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섯째, 읍면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취약성에 따른 부정적 이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례3 청소년은 해당 지역에 지원서비스 격차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해도 또래가 없어 상당히 어색한 상황을 마주했다. 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례2 청소년은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친한 친구들이 없는 낯선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된 이유도 있었다. 이는 지방의 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단순히 지역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 격차뿐 아니라 또래 청소년들이 없음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해당 지역에 남게 된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지역 격차와 관련한 여러 파생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적 부분에서의 결핍과 격차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측면을 아우르는 다양한 측면의 이슈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에 대한 학교체계의 조기 개입의 중요성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분석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학교를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의 경우 지원을 받고 있는 내일이룸학교와 청소년문화센터와 같은 활동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하였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처한 취약한 상황 중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일부는 가족과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학교 재학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을 문제들이었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학교체계에서의 Wee클래스나 학업중단숙려제와 같은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내 전문가(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를 통한 개입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 본 분석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3차례 면접을 통한 결과여서, 당연히 1회 면접에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들을 꿰맞추거나 통합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본 분석의 목적에 부합한 내용들이 면접과정에서 더 탐색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더 통합적이면서도 면밀한 분석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5장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분석방법
- 3. 분석결과
-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 연구¹²⁾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데 열악하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하자마자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는 전체 32.5% 수준이며,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도 8.2%로 학교 중단 이후 사회적 서비스와 단절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21c). 제공받은 서비스는 검정고시 공부 경험 78.9%, 진로상담 39.7%, 직업기술 배움 23.2%,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27.2%로, 진로상담은 3명 중 1명, 그 외 기술이나 심리상담은 5명 중 1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김희진 외, 2021c).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이 제공받는 서비스는 검정고시에 다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진로와 관련된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제공받은 서비스의 수준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일부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므로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에서 심리적인 불안감과 부적응을 겪거나 고립되거나 일탈행동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기에 열악하며,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재영, 2018; 임한려, 홍성표, 2021; 홍지선, 2020). 게다가 그들이 학교 밖에서 겪는 사회적 차별 및 편견과 같은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비행 또는 문제아, 사회부적응자로 낙인 시키기도 한다(박동진, 이지연, 2020; 이지연, 조아미, 2021; 정문경, 2021). 이러한 상처는 학교 밖 청소년에

12) 이 장은 김미정 부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집필하였다.

계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공식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센터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김수연, 2018).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검정고시 등 다양한 학업관련 서비스, 직업, 문화 활동과 같은 체험과 소속감 및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수연, 2018; 정경희, 최정호, 2020).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받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학업과 진로탐색 및 준비를 통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정고시 외에 경제적 지원과 진로준비의 강화 등 더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김송이, 2017).

청소년 시기의 진로준비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활동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에 비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거나 진로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이로 인하여 진로를 결정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 한다(노지혜, 문성호, 2019; 오정아, 오해섭, 2018; 임한려, 홍성표, 2021). 학교 밖 청소년은 향후 사회에 진입하더라도 준비가 덜 되거나 경쟁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박지현, 2017).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진이와 신호민(2018)은 4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준비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졸 졸업장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자퇴이후 진로설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들의 경험이 진로설계에 강한 동기가 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감을 해소하는 성취감에서 진로설계에 대한 의미를 찾았다(유진이, 신호민, 2018). 홍지선(2020)은 대학을 진학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업중단 초기는 ‘울타리 없는 홀로서기’와 같은 과정이었으며,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어려움과 주변의 지지, 사회적 지원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였다(홍지선, 2020). 특히 학업중단 후 진로과정에서는 ‘나만의 길 찾기: 승리’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가족, 사적 지지체계,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였고,

이후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하는데,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고 당당해진 것으로 나타났다(홍지선, 2020). 김경애(2016)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개발 단계에 진입이 가능했던 이유를 탐색한 연구로서 학교 중단이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진로개발을 위한 기회가 쉽지 않았음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인격체의 헌신적인 사랑과 관련 기관의 지원, 뚜렷한 목표설정이 진로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김경애, 2016).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 등 비공식적 지원을 강조하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에 의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김경애, 2016).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진로준비 및 경험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시계열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있지 않아 학교를 그만 둔 일정 시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진이와 신효민(2018)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학교를 그만둔 지 1년이 지난 2명, 2년이 지난 2명을 동일한 시점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홍지선(2020)은 꿈드림센터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대학에 진학한 학교 밖 청소년 사례를 분석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1년이 지난 경우가 3명, 2년이 지난 경우가 1명 이었다. 김경애(2016)는 진로개발 단계에 진입이 가능한 사례 2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령이 18~24세로 다양하였으나, 학교를 그만 둔 시기는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준비 과정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었으나(김경애, 2016),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 시기를 중심으로 시계열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단적이며 질적으로 접근한 이현주와 엄명용(2013)은 미혼부모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고자 아동의 연령을 중심으로 연차별로 그들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덕희(2015)도 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해 시간의 흐름별로 파악하고자 자녀의 연령을 기점으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중단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학교를 중단한지 일시적으로 해방과 자유로운 시간으로 인식하기도 한다(윤철경 외, 2013). 한편으로는 학교 중단 초기는 '울타리'가 없었다고 인식하면서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센터를 빨리 이용하였더라면 방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정경희,

최정호, 2020; 홍지선, 2020). 학교 밖 청소년은 자퇴 이후에 진로를 고민하였고 그들의 경험은 진로설계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유진이, 신효민, 2018). 즉, 학교를 중단한 후 시기별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과 욕구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를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대해 학교를 중단한 후 연차별로 그들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서비스를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진로준비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하여 그들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1) 참여자 선정기준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그들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활용된 패널데이터는 2018년부터 구축된 기존 패널과는 달리 2020년부터 구축된 신규 패널 데이터로, 꿈드림센터와 같은 사회적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을 포함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먼저 고등학교시기에 학교를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제한하였다. 이것은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56.9%, 중학교 27.3%, 초등학교 15.8% 순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21c). 즉,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인 고등학교시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가족, 친척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은 공식적인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셋째, 현재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도 진로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제한하였다. 여기에서 진로준비는 선행연구(명소연, 조진옥; 2016; 박지현, 2017)를 토대로 검정고시 합격(고졸 학력 취득),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을 한 상태인 경우, 1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 대학을 진학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기존에 축적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참여자의 변화를 파악하는 질적분석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자료

가 확보된 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자료의 충분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인터뷰 자료가 단답이거나 폐쇄형이 많은 경우는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참여자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분석 중 개방코딩 과정에서 참여자별로 진로준비활동과 개인력을 별도로 정리하면서 참여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였다.

2) 참여자 특성 및 소개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선정기준에 따라 신규 패널 데이터에서 추출한 참여자는 모두 8명이었다. 성별은 여성 6명, 남성 2명으로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출생연도는 2002년~2004년이었으며, 나이는 19세 1명, 21세 1명 외 모두 2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단 시기는 모두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며, 학교를 중단한 사유는 개별적으로 다양하였다.

한편, 참여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으나 인터뷰 자료는 이미 수집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료분석 과정에서 해당되는 인터뷰 자료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을 전제로 하여, 학교를 중단한 이후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들의 진로준비 경험과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전체 8명의 학교 밖 청소년 사례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분석하였지만, 각 사례마다 분석에 활용한 면접자료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A는 학교를 그만둔 후 1년, 2년, 3년 후의 면접자료를 사용하였고, 참여자 G는 학교를 그만둔 후 2년, 3년 후의 면접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V-1. 참여자 특성

	이름	성별	출생연도	연령(세)	학교중단시기	중단사유	인터뷰 시기				
							학교 중단 당해	학교 중단 후 1년	학교 중단 후 2년	학교 중단 후 3년	학교 중단 후 4년
1	참여자 A	여	2003년	20	2019년 (고1)	학교폭력 피해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2	참여자 B	여	2003년	20	2019년 (고1)	친구 관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3	참여자 C	남	2003년	20	2019년 (고1)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이름	성별	출생 연도	연령 (세)	학교중단 시기	중단사유	인터뷰 시기				
						학교 중단 당해	학교 중단 후 1년	학교 중단 후 2년	학교 중단 후 3년	학교 중단 후 4년
4	참여자 D	여	2003년	20	2019년 (고1)	틀에 박힌 학교 생활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5	참여자 E	여	2003년	20	2019년 (고1)	집단따돌림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6	참여자 F	여	2003년	20	2019년 (고1)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음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7	참여자 G	남	2002년	21	2018년 (고1)	틀에 박힌 학교 생활		1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2년)
8	참여자 H	여	2004년	19	2020년 (고1)	틀에 박힌 학교생활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본 연구에 참여자의 진로준비 관련 주요활동 및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V-2). 학력은 7명 모두 대학에 재학 중이며, 1명은 고졸인 상태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7명 중, 참여자 D와 참여자 F는 1학년이었으나 그 외는 2학년이었다. 참여자 H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단 후 1년까지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동시에 대학진학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단 후 2년이 되는 시기에는 참여자 중 6명이 대학을 진학하였다. 참여자 G는 학교 중단 후 2년 후 검정고시를 합격했으며, 중단 후 4년차에 대학을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참여자의 진로준비 관련 주요활동 및 계획

이름	학력	직업 (주요활동)	진로 관련 주요활동 및 계획				
			당해	중단 후 1년	중단 후 2년	중단 후 3년	중단 후 4년
1	참여자 A	대재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정고시 취득 워드1급 컴활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 자격준비 대학 입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업 후 취업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활 1급 준비 한국사 준비 토익준비 	
2	참여자 B	대재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진학 근로 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근로 장학생 	

이름	학력	직업 (주요활동)	진로 관련 주요활동 및 계획				
			당해	중단 후 1년	중단 후 2년	중단 후 3년	중단 후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진학 준비 (사회복지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활1급 준비 • 면허1종 준비 • 청소년복지 혹은 NGO취업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 취직 희망 	
3	참여자 C	대재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 전문대학교 입학 • 외국교환학생 갔으나 코로나로 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 근로장학생 • 제과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 실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공부 중 • 다양한 직업경험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 호스트 등 희망 • 외국어 자격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리어 희망 • 토익준비 		
4	참여자 D	대재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학원 수강 • 미술학원 수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 학생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준비 • 한국어 준비 • 큐레이터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고려 		
5	참여자 E	대재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 편의점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고시준비 • 특수교사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킹홀리데이 고민 		
6	참여자 F	대재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햄버거 체인점 아르바이트 • 포도삽 자격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 햄버거 체인점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공부 		
7	참여자 G	대재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 식당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 햄버거 체인점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 아르바이트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준비 • 싱어송라이터, 보컬 트레이너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준비 • 한국어시험 준비 • 코딩자격증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뒤 입대 예정 	
8	참여자 H	고졸 - (대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합격 • 수의사 직업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 • 대학진학희망 • 검정고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2급, 컴퓨터 자격 취득 • 회계1급, 세무2급 준비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질적 패널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을 분석하는 연구이며, 무엇보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그들의 경험에 대해 추적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주제를 고려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들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Glaser와 Strauss(1967)가 제안한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과정은 개방적 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의 순으로 적용하였다. 우선 개방적 코딩에 따라, 참여자의 3년간 인터뷰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였다. 이후 패널데이터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면서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녹취자료를 부호화하고 개념을 정리하면서 하위주제어와 주제어를 정리하였다. 1차적으로 분석결과 연구주제와 관련된 개념은 1차 년도에는 모두 174개, 2차 년도에는 289개, 3차 년도에는 304개로 도출하였다. 이를 다시 검토하고 개념을 재정리한 결과 학교 중단 후 1년차는 20개의 하위주제어와 3개의 주제어, 2년차는 21개의 하위주제어와 4개의 주제어, 3년차에는 19개의 하위주제어와 3개의 주제어로 정리하였다.

추가적으로 인터뷰 자료 중 일부는 단답형인 경우로,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최대한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이야기만으로 의미전달이 어려울 경우 인터뷰의 질문을 괄호로 처리하여 같이 활용하였다.

두 번째 과정인 축코딩을 통하여 개방코딩으로 정리된 범주화를 재조합하였는데, 참여자간에 공통적이면서도 다수가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연도별로 유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나온 연도에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경우에 따라 많은 참여자가 경험한 연도로 배치하였다. 예를 들면, 대학입시지원이 필요한 경험에 대해 참여자의 의견을 개방코딩으로 정리하는 과정 중에 중단 후 1년차와 중단 후 2년차, 일부는 중단 후 3년차에도 패널자료에서 확인이 되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의견을 많이 이야기 한 1차 년도에 배치하였다. 한편, 유사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차별적인 경우에는 다시 배치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은 1차 년도에 언급하였으나 학교 교직원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2차 년도에 다시 배치하였다. 교직원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고민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자료를 같이 검토한 질적연구를 한 교수와 함께 논의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과 그들의 진로준비 경험을 탐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받은 서비스에 대한 경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그들의 경험, 그리고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구분하여 3가지로 영역을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연차별로 하위주제어는 1차 년도 19개, 2차 년도는 22개, 3차 년도 18개로 정리하였다.

자료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선택적 코딩을 실시하였는데, 축코딩 후 각 축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자료는 없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어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녹취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는데, 개방코딩에서 부호화했던 자료와 최종 정리된 자료를 다시 살펴면서 다시 확인하여 인터뷰 자료를 다시 삽입하기도 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 정리한 결과는 1차 년도 16개, 2차 년도 15개, 3차 년도 15개로 하위주제어를 도출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는 이미 구축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서 패널자료로만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질적 패널자료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자료를 다루고 있어 일정 주제에 녹취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패널이 구축된 유일한 데이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자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가 질적연구라는 점에서 연구과정의 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1985)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적용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자료 외에 면담노트를 동시에 살펴면서 참여자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선이해와 편견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자료를 읽었다. 기존 연구와 차별적인 하위주제어나 주제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하는 현장의 실무자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질적연구를 수행한 교수를 통해 최대한 녹취자료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적용성(applicability)을 고려하기 위하여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7년 이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연구 결과를 검토 받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뿐만 아니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기존 패널자료를 적용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본 연구결과가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다음으로,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자료분석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 적용한 자료분석방법의 단계를 절차대로 수행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통하여 연구 결과의 주제어, 하위주제어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보완하였다. 또한 연구 초기부터 연구과정을 논의하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네 번째, 연구자는 연구과정 전반에서 중립성(neutrality)과 객관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참여자 선정과정에서는 기준의 타당성, 자료분석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연구자가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를 했던 경험, 공공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이 연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하위주제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녹취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를 잘 이끌어냈는지 여러 차례 재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제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데, 예를 들면 연차별로 주제어를 정리할 때, 1차 년도 보다는 2차 년도에, 2차 년도 보다는 3차 년도가 더 발전적이거나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와 계속 논의하였다.

3. 분석결과

본 연구는 질적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을 종단적 질적분석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학교를 중단한 후 1차 년도에는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였으며,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검정고시를 대부분 합격한 참여자는 ‘진로를 고민하고 막연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 시기의 학교 밖 청소년은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학교를 중단한지 2년이 지난 학교 밖 청소년은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였는데, 이 시기에 그들이 경험했던 서비스 경험은 이전보다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로준비과정은 대학 진학과 같이 그들이 ‘결정한 진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중단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의 학교 밖 청소년은 그들의 서비스 경험이 이전보다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기억하였다. 대부분 대학 생활이 2년차인 그들의 진로준비 과정은 '취업과 직장생활을 준비'하는데 집중하였다. 참여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진로준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V-3.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 중단적 질적 분석결과

		학교 중단 후 1차 년도	학교 중단 후 2차 년도	학교 중단 후 3차 년도
서비스 경험	주제어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함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
	하위 주제어	학교와는 다른 활동을 체험함	격려와 지지를 통해 안정감을 경험함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음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게 됨	또래들과 집단활동을 체험함	관심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음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생겼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음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음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음	노동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음	전화로라도 필요한 지원을 해줘서 좋았음
		대학생 멘토 도움으로 입시정보를 받음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음	코로나에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줌
진로 준비 과정	주제어	진로를 고민하고 막연히 준비함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음	취업과 직장생활을 준비함
	하위 주제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해보려 함	전공을 살려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준비함
		주위사람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함	좋아하는 분야를 직업으로 가지려고 함	필요할 것 같은 어학능력을 준비하려 함
		경험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려고 함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배우고 있음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려고 함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를 수정함	경제적 활동을 동시에 해야 함	학과생활에 집중하여 진로를 준비함
		필요는 없어도 자격증을 준비함	넓고 큰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함	
필요한 지원	주제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진로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하위 주제어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필요함	자퇴가 아닌 다른 선택이 가능해져야 함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서라도 지원해야 함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이	학교를 그만둘 때 상담이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준비가

	학교 중단 후 1차 년도	학교 중단 후 2차 년도	학교 중단 후 3차 년도
	확대되어야 함	강화되어야 함	가능해야 함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람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취업연계 시스템까지 마련되어야 함
	도시가 아니라도 기회가 충분해야 함	교직원부터 인식이 달라져야 함	꿈드림센터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함	센터마다 서비스의 편차가 없어야 함	학생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함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함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1) 1차 년도 결과

(1)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였음

① 학교와는 다른 활동을 체험함

참여자 D는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오히려 학교에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은데,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는 오히려 기회가 많이 생기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언니나 동생이나, 가족끼리는 다 얘기를 잘 하고, 그리고 꿈드림 선생님들도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중략) 네. 그래도 일단 센터에서 새로운 걸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1차 년도)

거의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중략) 일단 저의 일상이, 학교 가는 게 거의 저의 일상이었는데 그게 바뀌었고, 일단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참여자 D 1차 년도)

그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동아리, 임원, 자치회 활동을 하였고, 상담과 문화 활동, 여행지원 등 비교적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 E는 꿈드림센터에서 티머니 카드를 매월 10만 원 정도 지원받아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었던 경험도 이야기하였다.

동아리도 하고 있고, 약간 생활 건강을 지키자는 동아리도 있고, 보드게임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자치회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중략) 그냥 1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한시간 정도씩 운동하는 그런 동아리 스포츠활동같은거 (참여자 B 1차 년도)

일단 꿈드림에서는 급식지원이랑 검정고시 지원, 직업이나 대학 지원 같은 것도, 쉼터에서는 의식주 지원이랑 의료비나 교통비 지원이랑, 여기에서도 검정고시 같은 거는 지원을 받고 있어요. (참여자 H 2차 년도)

저는 그런데 꿈드림은 ○○○(외국) 가기 한달전부터, 한 10월 달인가 9월 달부터 꿈드림 등록을 해 놔었어요. (중략) 상담도 받고 같이 제주도 여행도 가서, 꿈드림에서 많이 해 줬어요. (참여자 C 1차 년도)

급식지원도 받고 상담지원도 받고, 그냥 교통비도 지원 받고 교육 지원도 받고, 그런 정도 (참여자 E 1차 년도)

티머니카드 10만 원 충전해 주는 거 (중략) 그걸로 편의점 엄청 사먹어요. (중략) 매달 10만 원. (중략) 꿈드림 참여 많이 하면 거의 다 해줘요. (참여자 E 1차 년도)

②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게 됨

참여자 D는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참여자 B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안 좋은 애들을 경험했지만 꿈드림센터에서는 좋은 사람이 있고, 학교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났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일단 혼자서 계속 있는 것 보다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는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1차 년도)

저는 학교 다닐 때 알던 친구들은 진짜 안 좋은 친구들이어서 확실히 지금 아는 언니들이 저한테 더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참여자 B 1차 년도)

지금은 있는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동생은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지금 동생들 하고는 잘 지내나요 그 안에서?) 딱히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는데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요 (참여자 B 1차 년도)

일단 그래도 선생님하고, 일단 학교에서는 선후배 관계지만, 이 학교 밖에서는 언니, 오빠, 이렇게 된다는 게, 이런 사람들 만났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좋아요?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도 일단 학교와 다른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1차 년도)

③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생겼음

참여자 B는 꿈드림센터의 선생님과 친해서 고민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

(아 그래도 꼭 해야 될 고민이 있다면 선생님한테도 얘기 할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럴만한 선생님이 있으세요?) 네 얘기할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고민이 있다면 (중략) 그냥 거기 꿈드림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다 저는 좀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B 1차 년도)

④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음

참여자 C는 무엇보다 검정고시를 치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F와 참여자 H는 과목별로 선생님의 수업을 받고, 검정고시 준비에 틈을 얻을 수 있었으며, 꿈드림센터에서 공부할하기도 하였다.

꿈드림에서 선생님들을 고용해요. 과목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해요. 2대1, 3대1 강의 하면서 (그렇군요. 그러면 꿈드림 선생님들이 해 주는 강의가 검정고시 합격에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많이 됐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제가 원래 수포자 였는데 확실히 선생님들을 직접 데려오시니까, 원래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직접 알려 주니까, 검정고시는 또 무작정 이론만 외우면 안 되고 틈이 있어야 되거든요. 틈을 선생님들이 알려 주니까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 C 1차 년도)

학교 다닐 때 보다는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한 10시쯤? 일찍 자는 것보다 그 전날에 그냥 조금씩 조금씩 새벽에 놀다가 10시쯤 일어나고, 그 센터가 있더라고요. 검정고시 공부 시켜 주는 센터가 꿈드림? (꿈드림센터?) 거기서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집에서 공부 조금 하다가, 거기 가서 공부 하고 집에 와서 또 그 공부한 걸로 다시 혼자 서 또 공부 해보고, 그렇게 (참여자 F 1차 년도)

○○시내에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 다니고 있어요. (꿈드림에서 참여해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그러면 혹시 준비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런 기관들을 모르면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략) 주말빼고, 주 4일 가요. (중략) 기본적으로 한 3~4시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H 2차 년도)

⑤ 대학생 멘토 도움으로 입시정보를 받음

참여자 B는 학교와 달리 꿈드림센터에서 멘토봉사자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다. 센터가 아닌 대학에 가서 멘토를 만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참여자 E는 대학 정보를 받았던 경험도 있었다.

멘토는 따로 대학교에서 봉사를 하신 거여 가지고,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하는 거였어요. (중략) 멘토링 할 때만 만나고 다른 때는 안 만나요. (참여자 B 1차 년도)

근처에 ○○대가 있으니까 ○○대 3, 4학년들이 와서 수업해 주고, 대입 정보도 좀 알려 주시고, (참여자 E 1차 년도)

(2) 진로를 고민하고 막연히 준비함

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해보려 함

참여자 A는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참여자 D는 센터 선생님과의 진로와 관련해 이야기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A와 참여자 F는 어떤 학과를 고를지,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자퇴이후에 대학교 갈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진로선택이 망설여지고 두려움도 있었다.

(센터 선생님들한테는 어떤거를 얘기해요?) 일단 그래도 진로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우선순위는 진로여서 (참여자 D 1차년도)

학교를 다녔더라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대학교 가고 그랬을텐데, 제 주변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확실히 학교를 다녔을 때하고 다른 점은 진로 선택하기가 무섭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신다면 너네 선배님은 이랬다, 후배는 이랬다, 이랬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자퇴를 하고 나니까 (참여자 A 1차년도)

그냥 되게 멋있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멋있어서 (중략) 맨 처음에는 그냥 해커? 이렇게 멋있는, 되게 멋있다 생각하면서 옛날에도 해커 좋아하고, 게임에 해커 캐릭터 나오면 그것만 계속 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개발자 모습 이런 거, 그런 거 계속 보면서 너무 하고 싶다, 점점 그게 커져서 다른 것도 어떻게 하면 그게 될 수 있을지 한 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개발자가 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멋있어서 (참여자 F 1차년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수능관련해서 고민이 됐던거예요. 제가 간호학과를 가려면 수능을 쳐서 등급을 맞춘 다음에 간호학과를 가야 되거든요. 컴퓨터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중략) 간호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퇴하기 전에 다녔던 학교가 간호랑 관련 된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한 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컴퓨터 관련해서는 그냥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이게 재밌더라고요.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결심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 1차년도)

네. 무슨 과를 갈지, 어떤 학과를 선택을 할지, 진짜 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참여자 A 1차년도)

② 주위 사람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함

참여자 A는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제안을 해주고 있었다. 참여자 B는 가까이에 있는 사촌언니와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하였으나 결국 사회복지학과로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부모님이랑 이제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부모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개입하세요? 이거 해라, 이러면서) 부모님이 개입까지는 아닌데 그냥 평범하게 이런거 해볼래? 이런 거 안 해볼래? 하고 제안은 많이 해 주세요. (참여자 A 1차 년도)

사촌언니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학교에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나마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거길 고민을 했는데 다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항상 학과를 정했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약간 재밌고 그나마 유아교육과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다 그렇게 정하면 안된다고, 그러면서 유아교육과가 미래가 거의 없잖아요 요즘 저출산 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학교를 가고 싶으면 사회복지학과가 낫지 않냐, 사회복지학과는 여러 분야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촌언니도 거기를 다니고 있고 해서 사회복지학과로 바꿨어요 (참여자 B 1차 년도)

③ 경험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려고 함

참여자 E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아팠던 경험이 있었다. 자신이 아픈 상태라 예민해져 있어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경험을 떠올리며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편, 참여자 D는 학교를 그만두고 민화도 배우고 새로운 것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였다.

일단 1순위는 ○○대 심리학인데, 다 심리학으로 넣을 거예요. (중략) 제가 약간 사회부적응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서 그냥 (중략)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아팠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약간 사회생활을 어렸을 때 제대로 못 배우다 보니까 저도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중략) 그냥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예민한데, 저는 그거를 예민하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 얘기를 먼저 꺼낸다거나, 눈치는 좋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둔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서 심리학 지원을 했어요. (참여자 E 1차 년도)

학교에서는 일단 공부만 하니까 뭔가 다른 걸 경험해볼 시간이 더 적고, 학교 밖을 나온 뒤는 민화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D 1차 년도)

④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를 수정함

참여자 H는 수의학과를 고려했지만 현실을 감안하여 특수동물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D는 화학 쪽을 가려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심리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였다. 참여자 B는 사촌언니와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유아교육과를 가기로 생각했지만 출산율을 고려할 때 미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진로를 선택하였다. 한편, 참여자 B는 고졸로는 볼품없는 것 같아 대학을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수의학과는 현실이 너무 그래서, 수의학과 말고 □□동물학과 준비하고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일단 수의과 말고 사육사라는 직업에도 관심이 있어서, 사육사가 되려면 어떤 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것 저것 막 찾아보다가 □□동물학과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참여자 H 2차년도)

저는 지금 심리학으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그 과를 정하게 됐어요?) 사실 원래 화학쪽을 좋아해서 화학과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학교 나오고 일단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그냥 궁금해서 심리학으로 정했어요. (참여자 D 1차년도)

사촌언니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학교에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나마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거길 고민을 했는데 다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항상 학과를 정했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약간 재밌고 그나마 유아교육과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다 그렇게 정하면 안된다고, 그러면서 유아교육과가 미래가 거의 없잖아요 요즘 저출산 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학교를 가고 싶으면 사회복지학과가 낫지 않냐, 사회복지학과는 여러 분야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촌언니도 거기를 다니고 있고 해서 사회복지학과로 바꿨어요 (참여자 B 1차년도)

대학을 원래 가야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에는 대학 못 붙으면 안 가고 말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재수는 절대 안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자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만약에 검정고시를 따고 고졸 검정고시가 최종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너무 볼품없는 것 같아서 그 뒤로 대학은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서울로 (참여자 B 1차년도)

⑤ 필요는 없어도 자격증을 준비함

참여자 F와 참여자 A는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국사 시험이나 워드와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니기도 하였다. 참여자는 실무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고, 실무가 아니더라도 대학진학이나 취직 때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냥 한국사 자격증 따려고, 그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인가 그거 (중략) 그냥 있으면 좋잖아요. 한 번 따보고 싶어서 (참여자 F 1차년도)

워드프로세서 1급하고,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요.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파워포인트, 그것도 땀인데 그걸 전부 봐야 하나로 쳐 준다고 해서 (참여자 A 1차년도)

수능 준비하기 전에 한국사 자격증 따고, 이제 코딩 자격증 따고 (참여자 F 1차년도)

자격증 공부같은거는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할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딱히 실무에 관련 없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학이나 회사 들어갈 때 도움 된다, 그런 스펙 의미로 좀 쓰고 있어요. (참여자 A 1차년도)

(3)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①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필요함

참여자 D는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부족하고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멘토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도 하였는데,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 입시 지원에 대한 정책을 좀 약간 세웠으면 좋겠어요. (중략) 일단 검정고시 점수로 들어가게 되면, 대학 성적에 맞춰서 점수를 바꿔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학교들도 많아서요. (참여자 D 1차년도)

단점은 대학교 입시 관련해서 설명을 들을 상황이 좀 적고, 정보를 공유할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참여자 E 1차년도)

그냥 대학 입시가 필요하면 대학에 대한 정보나 약간 그런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멘토로 붙여줘서 그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자소서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참여자 E 1차년도)

대학 진학하는데는 조금? (어떤?) 뭐 원서 넣는법?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지원, 그러니까 학교도 알아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요. (참여자 F 1차년도)

그리고 또 일단,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 거의 다 연결 되는 게 많으니까, 대학 학과에 대한 정보가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D 1차년도)

②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참여자 D는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로를 찾기 어렵고 진로설정도 쉽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참여자 B는 진로에 대해 원하는 것이 없어 센터에서 적성검사로 해봤지만 크게 흥미 있는 것은 없었다. 한편 다른 참여자는 직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공부를 지원하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도 있었다. 나이가 장학금이나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지원도 요구하였다.

그래도 얻고는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하다 보면 관심을 것 같아요. (어떤과를 정할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정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것도 있나요?) 일단 꿈을 정하려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내 진로를 설정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요. 혼자 찾기에는 (참여자 D 1차년도)

이제 센터에서도 뭘 하다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냐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생각해보면 항상 저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그 진로적성 검사를 해봤어요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근데 그걸 해봐도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오면 그게 저한테 맞는 건데 저는 다 비등비등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높게 나오지도 않고 작게 나와가지고 모든 거에 흥미가 크게 없고 하고싶은 것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1차 년도)

직업상담을 좀 더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중략) 뭔가 개인 성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개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어떤 의미죠?) 일단 그 친구의 성향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는 직업에 공부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는 것까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D 1차 년도)

장학금이나 자격증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비 같은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원) 네. (참여자 H 2차 년도)

③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램

학교를 떠난 참여자는 자신이 소속감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여자 A와 참여자 C는 학교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소속감이 없어 불안했던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참여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소속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불안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생활은 솔직히 말하면 불안속스러운 것 같아요. 소속감이라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학원에서 채워 주지 못하는 소속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모자라다는 걸 가끔씩 실감을 해요. (참여자 A 1차 년도)

솔직히 힘들지는 않았는데, 일단 확실히 학교라는 작은 사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소속감이 없으니까 뭔가 조금 불안하고 외롭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때쯤이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밥 해먹어야 되고, 꿈드림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긴 하는데 이게 또 학교에 있는 느낌이랑 다르더라고요. (중략) 왜냐하면 일단 저도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도하고, 손님을 대하는 입장이기도 하면서, 학교에서는 제가 보호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런 게 확실히 저에 대한 그런 거랑, 그리고 경제성, 제가 스스로 돈을 버니까, 스스로 뭐를 할 수 있고 나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불안하기는 해요. 뭔가 항상, 소속이 없으니까 (참여자 C 1차 년도)

그냥 제 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속감이 없다고, 그걸 가끔 실감할 때 외로워요. (참여자 A 1차 년도)

④ 도시가 아니라도 기회가 충분해야 함

참여자 E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업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아쉬워하였다. 게다가 참여자 H는 현실적으로는 도시지역보다 학원이 부족해서 불만족스러워 하였다.

진로 찾는 프로그램, 그런 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이것 저것 경험하게 도와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지금은 그런 게 부족하고?) 다른 데,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직업 체험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가끔 가다가 프로그램 하고, 그냥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요. (학교 진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해서) 너무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딱히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참여자 E 1차 년도)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학원 같은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빼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학원은 어떤 학원을 말씀하시는거죠?) 자격증이나 언어등등, 그런 학원 (참여자 H 2차 년도)

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함

참여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자 E는 자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 하소연하였다.

지금 아직 어른들 인식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참여자 B 1차 년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연계되는 센터도 더 잘 알았으면 좋겠고, 보면 학교 나올 때 막 선생님들이 인격 모독한 적도 있고, 막 욕설을 섞어서 너가 이래서 대학이나 갈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말 들은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피해가 있었던 애들이랄까, 2차 가해를 당한 애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알고 자퇴라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마디로 인식 개선이죠. (참여자 E 1차 년도)

기성세대들이 특히 자퇴한 애들은 양아치다, 아니면 사회 부적응자다, 이런 게 너무 퍼져 있으니까, 자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신 선생님들도 많고, 꿈드림 선생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자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도 2차 가해를 당한 적도 많으니까 (중략) 네. 막 뭐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참여자 E 1차 년도)

⑥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함

참여자 H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대학을 탈락을 했다는 점을 속상해하였다. 그래서 장학금이나 자격증을 따는 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C는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하였다. 한편, 참여자 B는 자취하는 청소년에게 생필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사실은 이번 연도에 서울 ○○전문대학교 면접을 봤었는데 등록금을 마련못해서 미납으로 탈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또 지원해서 면접 보지 않을까 (중략) 장학금이나 자격증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비 같은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원) 네 (참여자 H 2차 년도)

저는 요새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보려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 돼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참여자 C 1차 년도)

자취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퇴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런 애들한테 좀 센터 보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생필품? 최소한의 생필품 같은 걸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여자 B 1차 년도)

2) 2차 년도 결과

(1)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음

① 격려와 지지를 통해 안정감을 경험함

참여자는 꿈드림센터의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선생님이 젊어서 친구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C는 꿈드림센터에서 여러 가지 배우고, 학원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과목선생님을 통해 학업에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는 무엇보다 센터선생님들이 지원이나 상담도 자주 해줘서 좋다고 생각하였으며, 선생님의 격려와 지원에 힘을 얻고 있었다.

(꿈드림 센터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선생님들은 솔직히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존경스러웠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전혀 배울 게 없었어요. 다들 대책 없고 몇 명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C 2차 년도)

(그렇게 연락 많이 하고 지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정말 그때는 선생님이 너무 잘해 주셨고 그때 원래 다른 센터들 다 선생님들이 끈대치곤 나이가 많아요. 저희 센터는 다 20대 중, 후반이라서 완전 친구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편하고 좋았나요?) 너무 편했어요. (참여자 C 2차 년도)

학원지원같은 경우도 제가 원하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됐고 그리고 멘토링 같은 것도 제가 원하는 과목 선생님과 함께 해서 제 학업에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2차 년도)

다 잘해 주세요. (혹시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지원이나 이런거를 다 알려주시고, 상담도 그래도 자주 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D 2차 년도)

참여자 E는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은 진로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센터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도 감사해 하였다.

저는 우쿨렐레하고 청소년단 활동하고, 되게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손소독제 만드는 것도 하고 봉사도 가고 (중략) 그 선생님들이 이런 이런 활동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하셔서, 저는 약간 예스맨 스타일이어서 물어보시면 저는 괜찮다, 하고 싶다고 해서 웬만한 거는 다 참여를 했었어요. (중략) 일단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방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왜냐하면 계속 학원에만 있다가 가끔씩 꿈드림 가서 놀다시피 배우고, 악기 하고 그런 게 조금은 멘탈 치유 쪽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E 2차 년도)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께서는 딱히 저랑 나이차가 심하게 나는거는 아니었으니까, 많이 난다고 해도 10살 이하였고, 그러다 보니 그냥 친한 언니, 오빠 사이로 대학교에 대해서나 아니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고민 같은 거를 많이 해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드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를 계속 알려 주고, 꿈드림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도 알려 주셔서 제가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풀지 않았나,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E 2차 년도)

참여자 B는 멘토 선생님의 소통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B는 멘토 선생님과 같이 놀고 해서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또 원하는 과목에 대해 멘토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참여자 E는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진로나 고민에 대해 해결해줬던 경험도 있었다.

되게 좋았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같이 게임도 하고,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친한 언니한테 할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참여자 B 2차 년도)

프로그램 참여나 멘토링, 여러 가지 지원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 직업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다니고, 그리고 멘토링은 원하는 과목, 그런 거 멘토링 받고, 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급식 지원해 준다거나 그리고 학원 지원, 이런 것도 받았어요 (참여자 B 2차 년도)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께서는 딱히 저랑 나이차가 심하게 나는거는 아니었으니까, 많이 난다고 해도 10살 이하였고, 그러다 보니 그냥 친한 언니, 오빠 사이로 대학교에 대해서나 아니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고민 같은 거를 많이 해결해 줬던 것 같아요. (참여자 E 2차 년도)

② 또래들과 집단활동을 체험함

참여자 B는 센터의 OO스쿨을 통해서 원하는 아이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참여자 C는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여행을 다녀온 경험을 말하였다. 또한,

꿈드림센터에서 무료로 공부한 것도 좋았지만 면접을 통해 동아리에 지원금을 받아 활동했던 경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꿈드림센터에 ○○스쿨이라고, 모여서 같이 놀기도 하고 자기개 발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저는 엄청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중략) 가장 기억에 남은거는 여행갔던 건데, 여행이라기보다는 당일치기로 캠핑을 갔다 왔는데 고기 구워 먹고, 카라반 빌려서 갔었어요. (참여자 B 2차 년도)

(그러면 그 당시 꿈드림 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받고 활동들 좀 특별활동 같은 걸로 체험 활동 많이 하시고 그거 말고 또 있었나요? 꿈드림 지원센터에서 받은 지원이?) 끝나고 여행가고 그거 다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2차 년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산책로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꿈드림센터에서 동아리 하면서 △□□이라고 ○○구청에서 학교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동아리마다 면접 같은 거를 보고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저는 □□동아리 할 때 그거로 지원비 받아서 필요한 거 사고 애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참여자 B 2차 년도)

○○구청은 학교 밖 청소년한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동아리 지원금을 준 거라서, 꿈드림은 최대한 학생들 돈이 안 나가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좋았어요. (참여자 B 2차 년도)

③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음

참여자 A는 즉흥적이기는 하지만 식료품을 지원받았다. 참여자 E는 티머니 지원으로 한 달에 10만원 정도 학용품이나 교재, 편의점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 다른 지역의 지원금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였는데, 현금 보다는 티머니라는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식료품을 지원을 해 주거나, 그리고 검정고시 학원 입학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준비해 주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국어라든가 수학을 배운 적이 있어요. (참여자 A 2차 년도)

꿈드림에서 활동을 많이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꿈드림에서 주는 티머니 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였는데, 그게 학용품이나 교재 같은 거 살 수 있고,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살 수 있고, 그 정도 (중략)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가 티머니로 주고 다른 지역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에서는 그냥 아예 현금으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르긴 했었는데, 딱히 저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았으면 좋았고 (중략) 현금으로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술이나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니까 (참여자 E 2차 년도)

④ 노동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음

참여자 C는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을 받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다. 센터 선생님들이 근로 보상에 대해 항상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기도 하고 주휴수당을 안 줬었어요. 그걸로 저 혼자 트러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 나중에는 근로... 센터에 요청해서 받긴 했거든요. (노동청에 신고하셨어요?) 노동청에 신고한 건 아니고 청소년 무슨 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알게 됐는데 꿈드림 센터에서도 항상 알려줬었어요. 그거 교육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참여자 C 2차년도)

⑤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음

참여자 D는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학원비 지원도 월 30만원정도 받아 진로를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 D는 꿈드림센터에서 대학준비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지만 꿈드림센터 선생님과 같이 대입준비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E는 수능지원은 딱히 없었지만 교재지원은 받은 경험이 있으며, 참여자 C는 수학이 약했는데 1:1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경험을 드러내었다.

네. 한 달 30만 원, 1인당 30만 원 정도 해서 학원 지원 받아요. (참여자 D 2차년도)

선생님들이 적성에 맞는 것도 알려주시고, 이런 정보가 있으면 미리 알려 주셔서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여자 D 2차년도)

(그러면 대입 준비하는거는 혼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꿈드림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참여자 D 2차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수능 지원은 딱히 많이 받아 보지 않아서 그냥 수능책, 수능 특강, 이런 거만 받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E 2차년도)

그러니까 제가 수학이 약했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이 적어서 어쩔 때 1대1로 수업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많이 올라서 도움 받았죠. (참여자 C 2차년도)

참여자 A는 직업을 체험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참여자 D는 꿈드림센터에서 멘토링, 직업 체험, 코로나 관련 급식, 학원지원을 받았다. 무엇보다 직업훈련도 도움이 되고, 상담 같은 것도 1:1로 세세하게 해서 도움이 되었음을 말하였다. 참여자 G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맨 땅에서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서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 직업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다니고, 그리고 멘토링은 원하는 과목, 그런 거 멘토링 받고, 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급식 지원해 준다거나 그리고 학원 지원, 이런 것도 받았어요 (참여자 D 2차년도)

직업훈련 같은것도 좀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상담 같은 것도 개인별로 세세하게 1대1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D 2차년도)

(그러면 그런 취성패하면서 도움이 됐어요? 아니면)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됐어요?) 그래도 맨땅에 처음부터 시작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도와주니까, 취업하는 거를, 그것 때문에 도움이 더 된 것 같아요. (참여자 G 1차년도)

(2)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음

① 전공을 살려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

참여자는 진학한 학과와 관련하여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참여자 E는 특수교육학과에 재학 중인데, 교육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도움반 봉사를 나가고 있었으며, 전공과 관련하여 스터디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 A는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할 계획이어서 간호사 자격증 취득을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 C는 현재 전공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참여자 D는 대학원까지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요즘은 종강을 해서, 제가 특수교육학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봉사 시간 채운다고, 초등학교에 도움반 봉사 다니고 있어요. (참여자 E 2차년도)

지금은 그냥 특수교육학이라고 그냥 전체적인 장애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만 계속 복습하고 친구들끼리 스터디하고, 그런 식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E 2차년도)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 갈 일이 많아서, 간호사 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봅자면 취업률(중략) 대학교를 졸업하면 간호학과 자격증 딸걸로 바로 그냥 취업을 하려고요. (참여자 A 2차년도)

네, 저랑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대하는 건 좋은데 요즘은 ... 일하다 보니까 앉아 있는 게 좀 더라고요. 관광은 일어나 있고 감정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저는 저 혼자서 묵묵히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고민이긴 한데 제가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볼 일은 아니어서 관광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2차년도)

(원하는 사학과 진학하시고 난 후에는 따로 계획하고 있는 일 같은게 있을까요?) 아마도 대학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중략) 저는 그냥 일단 공부하는 것 같아서 천천히 조금씩 계속하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D 2차년도)

참여자 C는 지금 학교에서 전공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경영이라 생각해서 경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었다. 참여자 C는 전공과 관련된 다른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참여자 H 역시도 동물사육사로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었다. 참여자는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학과와 관련되거나 취업을 한 후에도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벼운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학교에서 관광과잖아요. 서비스랑 경영을 서비스 쪽에서도 고위 쪽으로 올라가려면 경영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영과 가는 것이 오히려 선택일 것 같다고 (참여자 C 2차년도)

먼저 저희가 일단 관광이다 보니까 일단 조주기능사 같은 거 술 관련된 거 필기 공부하고 있었고요. 레크레이션 자격증 그리고 외국어 원래 했던 거 하고 있어요. (참여자 C 2차년도)

말했다시피 동물사육으로 갈 거라서 동물사육사로 동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처리 같은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몇 개 땀어요. (참여자 H 3차년도)

② 좋아하는 분야를 직업으로 가지려고 함

참여자 D는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과도 연계되는 큐레이터를 미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여자 G는 노래 부르는 것이 좋기도 하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는 나중에 직업 생각해 놓은 게, 큐레이터,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중략) 사실 원래 미술을 조금 좋아하기도 했고 관련 직종을 찾아보니까 제일 저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큐레이터를 희망하게 된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보 같은게 있을까요?) 확실히 미술학원 다니니까 그런 정보도 많이 얻고, 선생님 통해서 미술 관심도 더 가지게 되고,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참여자 D 2차년도)

그 시간에 자유롭게 노래 한번 더 부르는게, 도움이 더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 종단을 한다, 했을 때 부모님은 좀 계속 다니셨으면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반응은 어땠어요?) 그런데 주변이면, 그러니까 부모님은 눈치는 주는데, 그냥 부모님은 일단 음악 하는 거를 안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사이도 좋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해 주고, 주변에 아는 사람은 다 예체능 쪽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다고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G 1차년도)

③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배움

참여자 H는 등록금준비나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

G는 예체능이 돈이 많이 드는데, 부모님이 수입이 없어 버거워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우선 취업을 하고 나서 돈을 모아서 학원을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E는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대학을 선택하였다. 참여자 B와 참여자 H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더 배울 수 있었음을 표현하였다.

저는 지원을 아예 안 맞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가더라도 혼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미리 모아놓으려고 (참여자 H 3차 년도)

그러니까 사실 왜 막는지는,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그냥 표현 방법이 좀 좋지 않았, 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예체능은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이미지 (중략)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좀 집안이 돈은 안 버는데, 쓰는 건 많이 쓰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쓰기는 버거웠던 것 같아서, 그런데 버거운 것까지, 이제 그냥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쓸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라고 말하기는, 그래서 그냥 아예 무시를 했었어요. 그런 건 애들 장난일 뿐이라고 (참여자 G 1차 년도)

자 일단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취업을 하고, 집을 구하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를 모아야겠다, 그런 거나 내년 1월부터는 꼭 그걸 다닐 수 있게요.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여력이 되자, 이런 거요. (참여자 G 1차 년도)

그리고 심리학과는 아무래도 대학원을 안 나오면 그렇게 취업이 잘 되는 편은 아니니까 경제적 사정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왕 1년 일찍 대학 가기로 한 거 일찍 선생님 돼서 돈 벌자는 생각에 이쪽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E 2차 년도)

(그러면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됐나요?) 뭔가 진로 탐색이라기 보다는 사회생활 좀 더 배우고 그럴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참여자 B 2차 년도)

일단 사회생활을 배웠죠. 사회생활을 배운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H 3차 년도)

(3)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함

① 자퇴가 아닌 다른 선택이 가능해져야 함

참여자 B는 자퇴를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전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참여자 F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 중단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전학이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하였다.

저는 전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자퇴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전학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이사를 가야 전학이 되고 편입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편입도 자리가 있는지 직접 학생이 전화로 돌려보고 있다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왜 고등학교만 그렇게 전학에 제한을 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학이나 반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면 좋겠어요. (참여자 B 2차 년도)

저는 일단 지금 상태로는 자퇴를 한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였다면 반을 옮겨 주면 자퇴를 안 하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참여자 B 2차 년도)

저는 그렇게 엄청 후회하고 있는거는 아니고, 아예 그냥 학교를 중단하는 것보다 다른 학교를 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더 커요. (참여자 F 2차 년도)

② 학교를 그만둘 때 상담이 강화되어야 함

참여자 C는 학교를 그만둘 때, 1:1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A도 자퇴한 아이들이 제정신으로 했을 리 없기 때문에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참여자 D는 위클래스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상담을 해줬더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 참여자 E는 상담을 3개월 받으려다 6개월을 받았는데 상담이 더 확대되기를 바랐다. 참여자 H 역시 전문적인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면 학교 밖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뭐랄까 좀 더 개인적으로 필요한 걸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특히 사무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든지 재정적인 지원이 안 들어오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대1로 필요한 거 지원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참여자 C 2차 년도)

자퇴한 애들이면 제 정신으로 자퇴했을 리는 거의 없으니까 상담 같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만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중략) 상담지원이 있기는 했는데 그냥 본관에 계시는 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받아 본 적은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 받은 적도 없고, (참여자 A 2차 년도)

그래도 상담쪽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중략) 힘들었던 일, 그런 거를 얘기해도 되고 학교 밖을 나가고 난 뒤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참여자 D 2차 년도)

상담은 원래 3개월로 잡혀 있었는데, 제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6개월 간 진행을 했었어요. (중략) 상담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참여자 E 2차 년도)

필요하긴 하겠죠. 막상 자퇴를 했는데 계획이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계획 없이 자퇴를 했는데 현실이 닥치고 불안한 사람도 많을 테니까 전문인이 옆에서 컨설팅 같은 걸 하면 좀 덜 불안하게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여자 H 3차 년도)

③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참여자들은 자퇴한 아이들에게 꿈드림센터가 홍보가 되지 않는 점을 안타까워하였다. 참여자 A는 학교 밖 청소년이 꿈드림센터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하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여자 B는 꿈드림센터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참여자들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가 강화되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SNS 홍보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제가 꿈드림 알게 된 것조차 지인소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기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중략) 그냥 자퇴생 자택으로 우편물 하나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시설이 있다, 그 정도 (학교에서도 뭔가 정보를 받은게 하나도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참여자 A 2차 년도)

뭔가 아쉬운 건 저는 그래도 꿈드림을 소개 받아서 왔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자퇴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꿈드림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복지센터 같은 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퇴한 애들한테, 그리고 들어 보니까 자퇴한 학생 원래 그런 센터에 구청인가 전달을 해 준대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전달되는 거라서 1년 전에 약간 10개월 전에 자퇴한 애들은 10개월 뒤에 연락이 가니까 그런 게 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약간 그게 아쉬웠어요. 자퇴한 애들이 다 꿈드림이라는 곳을 알아서 많이 이용하고 더 좋게 되면 좋겠는데 잘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아쉬웠어요. (참여자 B 2차 년도)

아무래도 꿈드림을 아예 모르는 친구도 많았으니까 이런거에 대한, 우리가 이런 데고 우리가 이런 지원을 너네들한테 해 줄 수 있으니 신청을 하든가 지원을 해라, 이런 홍보라든가 정보를 전달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밖에 (참여자 E 2차 년도)

학교 내에 유인물을 돌리는거 자체는 솔직히 학교에서 받아들이 주지 않을 것 같고, 이걸로 인해 자퇴를 더 많이 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 그냥 SNS나 플랫폼 광고, 공익광고처럼 접근을 쉽게 만들고, 어쩌다가 우연히 톡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상으로 (참여자 E 2차 년도)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게 SNS이긴 한데 그래도 SNS가 가장 많이 홍보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하니까 검색해볼 것이고 검색을 했을 때 다양한 자료나 후기가 있으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것 같아요. (참여자 H 3차 년도)

참여자 B는 꿈드림센터에 대한 안내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참여자 D와 참여자 E는 학교를 그만 둘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였다.

학교에서 자퇴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는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꿈드림에 왔던 친구들도 다 학교에

서 소개 시켜 주거나, 자기가 직접 알아서 오는 친구들은 몇 명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니면 친구 소개로 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위클래스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자퇴를 하는 애들한테는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 줘라,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B 2차 년도)

그런데 학교 나올 때 학업 속력제, 저는 그런 것도 설명을 못 들어서 몰랐었고, 그리고 학교 밖에 나왔을 때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D 2차 년도)

그렇게 자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차피 계속 안 알려 주고 학교 다니라고 해도 그만 둘 애들은 다 그만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면 좋겠다. (참여자 E 2차 년도)

④ 교직원부터 인식이 달라져야 함

참여자 E, 참여자 H, 참여자 A는 누구보다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 밖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참여자에 따라 학교를 그만둘 때 부모님보다 학교에 말하는 것이 더 힘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교사의 인식이 바뀌어야 자퇴를 원하는 아이들이 수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교직원분들,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교직원 분들에 대한 자퇴 이미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교직원들의 인식개선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 E 2차 년도)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해라, 행동에 책임만 지라고 하셔서 부모님 딱히 어려운 게 없었는데 학교 선생님은 어쨌든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되니까 갈등이 많이 있긴 했죠. (참여자 H 3차 년도)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하나 뽑자면, 자퇴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검정고시 쳐서 이렇게 올 거면 그냥 빨리 자퇴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도 자퇴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성적이 낮고 친구가 없어도 그냥 학교에 붙어 있는 애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나아져서 애들이 자기 자아 빨리 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여자 A 2차 년도)

교직원 인식은 자퇴한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듣다보면, 개네들은 정말 담임 선생님을 잘 못 만난 편도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네가 자퇴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폭언이라든가 아니면 모욕을 주는 말들이나, 그런 거를 하는 교직원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죠.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사회적 인식이나 현대화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많은 편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기성세대 분들은, 그건 때문에 애들이 자퇴를 하면서 상처를 받았던 부분도 많고, 자퇴를 수월하게 진행을 못했던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교직원 인식 개선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E 2차 년도)

⑤ 센터마다 서비스의 편차가 없어야 함

참여자 E의 경험에 의하면 활동은 큰 차이는 없지만 자격증 준비나 지원, 공부는 센터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기억하였다. 참여자 A는 체험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지역을 가야만 체험할 수 있었던 점을 아쉬워하였다. 참여자 B는 대도시에서 한 달에 30만원을 받으면서 참여하는 다른 지역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부러워하였다. 더 큰 지역이라면 지원이 더 다양했을 것이라고 참여자 H는 생각하였다.

활동적인거는 딱히 차이는 없지만 이벤트처럼 악기를 배운다거나 자격증 공부 전체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비교하거나 다른 점을 찾는다면 그런 종류가 다른 거, 예를 들면 저희는 우쿨렐레를 배우는데 그쪽은 기타를 배운다든가, 그런 차이 밖에 (참여자 E 2차 년도)

체험 할 수 있는, 뭔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서요. (중략) 유물 많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라든가 박물관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에서 그런 박물관이나 체험관은 절대 기대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데를 찾아서 가야 돼요. (참여자 A 2차 년도)

지역사회보다는 ○○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인턴십이라고, 학교 자퇴한 친구들을 어느 기관이랑 연락을 해서 그 기관에서 한 달에 30만 원 내외로 일을 하면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기관에 가서 일도 같이 해보고 돈도 벌면서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직접 체험 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시에서 하는 거라 면접 같은 것도 있고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교육도 며칠 하고, 이거는 되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여자 B 2차 년도)

일단 제가 ○○에 있다가 ○○에 온 거라서 아무래도 ○○가 ○○보다는 좀 더 큰 데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니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서비스가 좀 더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여자 H 3차 년도)

⑥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참여자 A는 대학지원이 체계적이고 다양해져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학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개선되기를 간절하게 바랐다. 참여자 A는 학교 때처럼 도와주는 선생님이 없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참여자 D는 컨설팅과 자기 소개서 작성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었다. 참여자 A는 컨설팅을 받았지만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을 호소하였다. 참여자 E는 학교 밖이어서 대학교 입시 관련 자료를 받을 길이 많지 않아서 힘들었기 때문에 정보와 자료를 받았으면 했다. 참여자 E는 청소년생활 기록부가 생겼는데, 제도적으로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확실히 소속된 게 없으니까, 그래도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해야 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도가 더 이상 없다는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 2차 년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입 컨설팅, 그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D 2차 년도)

자소서 쓰는거나 아니면 면접 볼 때, 그런 컨설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D 2차 년도)

꿈드림에서 소개 받아서 대학 컨설팅을 공짜로 받은 적이 있어요. (중략) 저는 그냥 간호학과를 가려고 했고, 검정고시를 따서 주변의 대학교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를 소개 받아도 딱히 쓸모가 없던 것 같아요. 수능을 기본적으로 쳐야 되는데 저는 수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안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A 2차 년도)

아무래도 학업을 중단하니까 대학교 입시관련 자료를 들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고 사이트나 카페에 가입해서 거의 2~3개월 동안 계속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의 저 혼자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직접 전화번호 알아서 검색해서 전화를 다 해보면서 이 정도 점수가 되면 갈 수 있냐, 아니면 제가 검정고시생인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냐, 아니면 검정고시 성적 평균이 이 정도 되면 몇 등급으로 쳐 주냐. 이런 거를 다 물어봤었어요. (참여자 E 2차 년도)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생기부가 생겼는데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생활기록부가 따로 남게 되는데, 학교 밖 친구들은 자퇴를 하고 나면 생기부가 아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꿈드림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 주셔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기부예요. (중략) 그게 대학교 6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 대학교에만 일단 넣을 수 있도록 (중략)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참여자 D 2차 년도)

참여자는 체력이 소진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참여자 E는 자퇴 이후 계속 공부만 하다가 체력을 소진한 경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대학을 준비하는 동안 번아웃이 와서 아무데나 가자는 생각에 먼저 발표 나는 곳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아쉬워하였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체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심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자퇴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지냈었거든요. 검정고시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작년 8월 말에 검정고시를 치고 나서 솔직히 지친 것도 있었고, 8~9개월 동안 계속 공부를 하니까 지친 것도 있었고, 거기서 또 더 어려운 수능을 공부하려면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때 체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고 그게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참여자 E 2차 년도)

제가 수시로 6개 넣었는데 5개는 심리학과 넣었고 1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학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넣고 싶어서 넣은 데였고, 특수교육은 아버지가 한 번 물어보자고 하셔서 넣었던 곳인데, 한참 수능을 준비할 때 제가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힘들었거든

요. 그래서 지금 다니던 대학이 아무래도 제일 빨리 합격 발표가 났고 면접도 제일 빨리 받다 보니까, 솔직히 그때 당시에 힘들어 그냥 아무 데나 가자, 이것도 있었어요. (참여자 E 2차 년도)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지원이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참여자 G는 학원비 등 혼자 나와서 살고 있어 경제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하였다. 참여자 G의 경우 특히 연령이 18세가 되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참여자 H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학원비 같은거나, 아예 아무 것도 없이 혼자 밖에 나와서 혼자 사는 거라서, 일단 그런 거 좀, 쉼터 제도 말고, 혼자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G 1차 년도)

(나이가 아직 스무살이 안돼서 잘 연결이 안될것같아요. 그렇죠?) 안 써주죠. 그래도 계속 넣다 보면 언젠가 되니까 계속 넣어 보고 있어요. 아직 만(중략) 18세도 안 되다 보니까, 만 18세가 안 되고 나서랑, 만 18세 되고 나서랑 차이가 커서, 그래서 못하는 것도 되게 많고 (참여자 G 1차 년도)

약간 제 느낌인데, 약간 만 18세 전인 사람이, 제가 지금 생일이 안 지나서 만 17세인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그런 키보드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 있는데, 그거를 만 18세부터 할 수 있다 보니까, 또래 애들은 다 해도 저는 생일이 안 지나서 못하고, 그리고 어디 알바를 지원하려 해도 만 18세부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취업을 해도 만 18세부터 하고, 뭘 하고 싶어도 만 18세, 지원 받고 싶어도 18세부터, 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거기다가 하나라도 더 급한데 못해서 좀 (참여자 G 1차 년도)

확대되면 좋죠. 저처럼 대립된 상태에서 학교 밖인 친구들도 있고 가정 안에서 학교 밖인 친구들도 있고 가정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 밖도 있어서 아무래도 지원이 폭넓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참여자 H 3차 년도)

3) 3차 년도 결과

(1)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

①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음

참여자 B는 자신은 다른 학과에 관심이 있었지만 꿈드림센터에서 멘토 선생님이 사회복 지학과를 추천해서 진학하게 되었다. 참여자 A는 돌이켜보면 꿈드림센터가 살아야 하는 방향을 잡아주고 체계적인 삶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말하였다. 한편, 참여자 D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꿈드림 센터에서 검정고시 멘토링을 해 주셨는데 그때 대학 선생님이 오셔서 어떤 과를 원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영유아교육학과에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사실 뭔가 얘기들을 보는 게 좋다가 보다는 그나마 이 학교에서 제일 재밌는 과가 그 과인 것 같아서 가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으면 차라리 사회복지학과를 가보면 어떠냐 그거는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도 여기 가면 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 말 듣고 정한 것 같아요. (참여자 B 3차 년도)

자퇴하고 검정고시 계획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중략) 체계적인 삶으로 볼 수도 있고 (참여자 A 3차 년도)

(인턴십 경험을 두 번 정도 했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어땠어요?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새로운 직업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은 했어요. (참여자 D 3차 년도)

② 관심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음

참여자 F는 내일배움카드를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도움이 되었다. 참여자 E는 자격증을 받아 도움이 되었는데, 사실 취업에 도움이 될 것도 기대하였다.

일단 제가 제일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웠으니까 배웠고 자격증도 났으니까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만족도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F 3차 년도)

그래서 지금 자격증 하나 갖고 있는데 자격증 따게 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중략) 네, 자격증 같은 거 괜찮더라고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중략) 아무래도 취업할 때도 자격증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참여자 E 3차 년도)

③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음

1차 년도에 참여자는 소속감이 없어서 이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3차 년도에 이르러서 참여자 C는 꿈드림센터의 경험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 D와 참여자 E 역시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 준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때도 그래도 안정감을 줬죠. 소속감을 (중략) 일단 다 같이 모여 있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공예 이런 거 많으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무료로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자 C 3차 년도)

엄청 좋았어요. 친절하시고 다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참여자 D 3차 년도)

(그러면 꿈드림에서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편하고 친구처럼 해 주신 것 같아요. (참여자 E 3차 년도)

참여자 E는 꿈드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것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실 2차 년도에서도 언급은 하였지만 3차 년도에는 확실히 우울감이 덜해졌다는 확신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초반에는 상담 받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다양한 걸 하셨네요. 그때 꿈드림에서 받았던 상담이 부족하셨어요?) 그건 괜찮았어요. (참여자 E 3차 년도)

(6개월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정도 하시고 서로 합의하에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신 거예요?) 네. (확실히 상담 받은 게 우울감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됐나요?) 그렇죠 (참여자 E 3차 년도)

④ 전화로라도 필요한 지원을 해줘서 좋았음

참여자 F는 꿈드림센터에서 찾아가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사해하였다. 원서 쓸 때도 전화로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센터에 직접 가지 못했을 때에도 센터에서 도와주었다.

원서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면 옆에서 전화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서 열리는 날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가서 진학 상담을 받은 적도 있었고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거의 매일 전화 두세 통씩 해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참여자 F 3차 년도)

제가 그때 할머니 집에 잠깐 있어서 ○○에 직접 가진 못해서 전화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참여자 F 3차 년도)

⑤ 코로나에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줌

참여자 B는 코로나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꿈드림센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때가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라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선생님들 최대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B 3차 년도)

(2) 취업과 직장생활 준비를 함

①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준비함

참여자 A는 스스로 독학을 해서 자격증을 따려 하였다. 사실 그동안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또 다른 자격증 취득을 할 때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 F는 치위생사로 일할 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외국어를 준비하려고 하였다.

학원을 생각해봤는데 학원비용이 비용이다 보니까 일단 독학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구매하려고요. (혼자 독학하는 것도 자신 있으세요?) 네, 독학해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서 (참여자 A 3차년도)

일단 치위생사는 나중에 사람이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만날 거고 외국인만 전용으로 운영하는 센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배워 놓으면 거기서도 유용하겠다 싶어서 (참여자 F 3차년도)

② 필요할 것 같은 어학능력을 준비하려 함

참여자의 대부분은 영어나 일어 등 외국어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취업이나 직장생활을 고려해서 준비하려고 하였다.

네, 특히 회화가 하나도 안 돼요.(또 워킹 갈 예정이니까 그런 게 더 걱정이 되겠어요.) 맞아요. 공부를 할까 싶기도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참여자 E 3차년도)

그런 것도 다... 새로운 후임들도 뽑으면서 수업은 교수님들이 거의 안 하세요. 취업처 찾고 토익 준비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C 3차년도)

토익도 준비하려고요. 겨울방학이나 한국사나 컴활을 미루고 토익을 하거나 그렇게 (중략) 간호사는 영어를 필수로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토익으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취직하기 유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여자 A 3차년도)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중략) 그냥 제 친구가 저번에 N2 자격증 JLPT N2를 땀는데 친구가 N1를 따겠다고 그래서 (참여자 F 3차년도)

③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려고 함

참여자 C는 전공을 살려 호텔리어 뿐만 아니라 항공지상직도 고려하고 있었다. 참여자 E는 진학하고자 하는 특수교사의 역량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참여자 F는 치아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치위생사로 지원하였다.

호텔리어로 결정하고 있지만 저는 원래 항공 지상직도 꿈꿨었어요. 그걸 하려면 좀 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호텔업을 먼저 경험해보고 제가 준비가 되면 도전해보지 않을까 (참여자 C 3차년도)

애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장애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론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론으로 할 수 없고 내 역량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역량을 키우기도 힘들고 애한테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고 (참여자 E 3차년도)

자기 치아는 한 번 빠지면 또 자라지 않잖아요. 그 뒤로는 치아가 안자라잖아요. 평생 가는 치아인데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은 관리를 잘 못하시니까 그분들이 좀 더 자기 치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거나 그런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서 센터나 봉사단체로 가고 싶어서 (참여자 F 3차년도)

④ 학과생활에 집중하여 진로를 준비함

참여자는 대부분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성적을 관리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봉사를 나가기도 하였다.

일단 대학교를 다니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자립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게 지금의 저한테는 그거일 것 같아요. (참여자 A 3차년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학교 공부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3차년도)

아무래도 직접 그런 쪽으로 봉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교육을 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3차년도)

새로운 공간에 들어오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혼자 생활할 때보다 단체 생활로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적응해야 될 것도 많아서 관심사 (참여자 D 3차년도)

⑤ 넓고 큰 세계에서 경험하고 싶어 함

참여자 E는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 C는 학교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대도시에서 실습하고 있었다. 오히려 실습에 참여하면서 대도시에 잘난 사람이 많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긴 한데 일단 졸업하고 생각해야겠다고 하고 있어요. 워킹홀리데이도 고민 중이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호주요. (참여자 E 3차년도)

아니요, 원래 저희는 ○○에 있어서 ○○에 있는 호텔에 꽃아주는데요. ○○에 가기 싫어서 워커힐 호텔 직접 면접 봤습니다. (스스로 루트를 뚫었네요?) 그렇죠. (참여자 C 3차년도)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높지도 않고 ○○에 있다 보니까 호텔에는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참여자 C 3차년도)

(3) 진로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①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서라도 지원해야 함

참여자 A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강제성이 필요한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자 D는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화상담으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건 저도 어떻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건 강제성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억지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애들까지 도움은 확답을 못 줄 것 같아요. (참여자 A 3차 년도)

(그러면 이걸 궁금한 건데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전화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여자 D 3차 년도)

참여자 A는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말하였다. 학교를 나오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필요로 하였다. 참여자 C는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아이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였다.

역시 그냥 정보였던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기회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그렇게 알려주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 정보가 있어야 그걸 짜든 말든 하나씩 계획을 (학교 나오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침 같은 걸 알려줬더라면 좋았겠다?) 네,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참여자 A 3차 년도)

저는 학교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그만두려는 아이의 목적을 보고 그게 우리 학교와 맞는지 판단해서 다시 다니라는 게 아니라 너는 안 맞을 수 있겠다 그러면 저를 가보는 것이 어때냐고 추천해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C 3차 년도)

②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준비가 가능해야 함

참여자 C는 진로탐색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했음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F는 혼자서 진로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참여자 D 역시 적성에 맞는 검사나 상담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다. 참여자 A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그냥 같이 있었다는 존재 이런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을 보면 진로 탐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 C 3차 년도)

왜냐하면 그런 거는 혼자 서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F 3차 년도)

저는 적성 검사,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D 3차 년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학원 지원 아니면 자격증 딸 수 있게 그걸 좀 더 늘려주거나 왜냐하면 저희도 예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자격증 수업도 들을 수 없나요? 라고 하니깐 받은 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걸 좀 더 늘려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여자 A 3차 년도)

③ 취업연계 시스템까지 마련되어야 함

참여자 E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서 취업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지금까지 자격증 취득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 마련까지 연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취업 연계 이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정식으로 학교 밖 친구들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 연계, 대학으로 가든지 취업으로 가든지 좀 더 이후에 대한 공식적인 루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참여자 E 3차 년도)

④ 꿈드림센터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

돌이켜 생각해볼 때, 참여자 C는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희망하였다. 참여자 E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더 교류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

저는 다른 센터 간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좀 더 위축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더욱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더 좋을 수도 있고 관계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센터와 많은 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 C 3차 년도)

그거 외에 또래 애들끼리 만날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아무래도 청소년단이라는 그런 걸 했었으니까 그래도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아닌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난 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장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중략) 네, 아무래도 똑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니까 아예 생초짜인 상태보다 그래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자퇴를 한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E 3차 년도)

⑤ 학생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참여자 C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하게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하는 것이 있는 청소년은 더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G는 학교에서 다 같이 가는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준비하거나 자립에 성공하려면 지역사회나 나라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평등하게 지원을 해 주되 특별한 재능을 보이면 더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C 3차 년도)

그거고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는 수련회 같은 거, 애들은 학교에서 다같이 수학여행 보내 주는데 저만 못 가는 거. (참여자 G 2차 년도)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학교를 중단 한 이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 중 진로준비를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로 구축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들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종단적 질적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학교를 중단한 1년, 2년,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들의 경험을 정리하였고, 그 결과 연차별로 3가지의 주제로 정리되었으며,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학교를 중단한지 1년이 지난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학교를 그만둠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한 상태가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는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학교와는 달리 꿈드림센터에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하였고, 새로운 관계에서 지지를 받기도 하며, 진로와 관련하여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진로고민을 시작하면서도 막연히 준비’하고 있었다. 진로를 탐색하고, 주위 사람과 고민을 나누면서도 경험을 통해 체득한 바를 중심으로 진로를 결정하려고도 하였다. 한편, 어린 시절 가지고 있던 꿈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기도 하였으며, 막무가내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 시기에 참여자는 처음으로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요청하였다. 대학입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희망했고, 진로탐색이 가능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무엇보다 학교가 없어진 상태에서 소속감을 가지기를 희망하였으며, 도시가 아닌 지역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호소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진로활동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학교를 중단한 지 2년 시점의 학교 밖 청소년은 대학을 대부분 진학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상태였다. 꿈드림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았다. 포레활동 뿐만 아니라 격려와 지지를 받았고, 급식비 등 일상생활을 지원받았으며, 선생님의 도움으로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노동권리를 보호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 결정했던 전공을 중심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공과 관련한 취업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분야로 직업을 가지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을 동시에 해야 했다. 향후에는 ‘참여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대학을 진학한 참여자는 학교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이제야 자퇴가 아닌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아쉬움과 그만 둘 시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할 때 상담이 더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집에만 머무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과 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에 있어서 처음으로 교직원에 대한 인식변화를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센터마다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학교를 중단한지 3년이 지난 학교 밖 청소년은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전과는 변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으로 참여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었고, 전화로라도 지원해줘서 참여자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연계 받아 경제적인 영역까지 해소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이 시기의 진로 준비는 ‘취업과 직장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직장에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어학능력을 갖추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학과 생활에 집중하고 있었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진로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꿈드림센터에 연계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센터간의 교류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개별적인 욕구가 다양한 만큼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의 수준은 학생과 같은 수준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꿈드림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는데, 이는 김수연(20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학교를 중단 한 참여자는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1차 년도에는 학교와는 다른 경험을 하였고, 2차 년도에는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3차 년도에는 서비스를 직접 받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고 하였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태인 1차 년도의 참여자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였는데, 결국 3차 년도에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소속감뿐만 아니라 안정감까지 경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꿈드림센터의 선생님을 통해서 느끼는 친근감과 편안함, 그리고 배려를 학교 밖 청소년은 의미 있게 해석하였다. 사실, 1차 년도에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꿈드림센터라고 이야기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꿈드림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년 모두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 진로에 대한 지원, 개별적인 지원, 대학지원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꿈드림센터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만큼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김희진, 백혜정, 2020).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은 결국 사회 안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관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인프라 및 서비스 수준격차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희진 외, 2020). 그러므로 결국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적 채널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비공식적 채널을 확보하여 가능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관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꿈드림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센터사업과 센터 외부 연계사업으로 서비스를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센터사업은 꿈드림센터 내부의 공간, 인력과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구성하

는데,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 외 센터 외부연계사업은 꿈드림센터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특화사업으로 구성하되, 종합사회복지관, 진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내 공적채널을 중심으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외부기관과의 연계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적채널로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원 연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인 채널로 구성하고 체계적인 지원망이 구축되어짐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 안에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진로 탐색 기회는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차 년도에는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해보려 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주위사람과 나누고는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려고 한다. 이 시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필요할까봐 닥치는 대로 자격증을 따 두려고 하였다. 2차 년도로 이어지면서 참여자는 전공을 살려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3차 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3차 년도는 직장생활을 고려하면서 취업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1차 년도에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 2차 년도 이후에는 스스로 진로를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 스스로 진로를 준비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참여자마다 진로준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르게 나타났다. 1차 년도에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지원, 2차 년도는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차 년도는 다시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나아가 취업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시간이 흐르고 참여자가 안정된 상태가 될수록 진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준비를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진로탐색에 있어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초기과정에서 진로적성 및 검사를 기반으로 한 진로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중 진로미결정형이 35.7%이라는 점(김희진 외, 2021c)을 감안하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학교중단 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거나 탐색할 기회가 부족하다(박지현, 2017). 그러므로 꿈드림센터 실무자들이 진로상담과 관련한 역량을 갖추거나 진로상담이 가능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진로적성검사 실시 이후 집중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부모상담도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직업과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단위별로 공식적인 진로체험기관 풀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은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매우 높다. 자격증 취득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을 살펴보면, 1차 년도에는 진로준비과정에서는 막연히 필요할 것 같아 자격증을 준비하였다. 이때 자격증 취득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관심 있어 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은 대학 진학을 고려하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취업이나 적어도 아르바이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취감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자신의 관심분야를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꿈드림센터뿐만 아니라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 지역의 교육청에서 1인당 20~30만원의 교육지원금이 매월 지원된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1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증 신청은 사전 진로탐색 및 상담이 진행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준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은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학 입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차 년도 참여자는 꿈드림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지원받은 경험을 언급하였다. 이때는 대부분 대학진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검정고시 합격 이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해보려 함', '진로에 대한 고민을 주위사람과 나누고 있음'의 상태였다. 참여

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진학을 고민하기도 하였지만, 한편 고졸로는 볼품이 없는 것 같아 대학진학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1년 빨리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 대학을 조기 입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꿈드림센터를 통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 진학을 결정하고 도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차 년도에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다음과 같았다. 학교를 다닐 때처럼 도와주는 선생님이 없어서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컨설팅과 자기소개서, 입시관련 자료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였고, 청소년생활기록부가 제도적으로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컨설팅을 받았지만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대학을 입학한 2차 년도는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대학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고등학교 친구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 하지만 자신이 처한 입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 대학진학은 ‘학업복귀’와 ‘학업지속’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직업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그들 스스로 증퇴에 대한 낙인을 의식하는데 있어 이를 상쇄 가능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박종석, 2018; 전은진, 2017).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준비의 일환인 대학입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사례관리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학 입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꿈드림센터에서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컨설팅, 대학 탐방, 입시설명회,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은 대학입시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게다가 개인별 관심과 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경제적 지원, 생활만족도에 따라 달리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한나와 정재영(2022)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학교 다니는 것에 의미가 없어서 42.4%,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25.6%, 검정고시 준비 23.6%, 심리·정서적 문제 20.6%로(김희진 외, 2021c)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중단 당시 개별 성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현재의 인력으로 대학입시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대학입시를 지원 하는 교육청 또는 고등학교 등 공적인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

면, 대학입시의 경우 과열되어 있는 사교육 시장과의 경쟁이 되거나 관련되어지는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학입시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추가적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인력은 대학 입시지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이미 업무가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운영 예산조차 부족한 실정이다(김희진 외, 2021a). 게다가 종사자 인력 1인당 100명이상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담당 사례관리수를 제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김희진, 백혜정, 2020; 원동윤, 정춘헌, 강근모, 2021).

넷째, 자퇴를 하기 이전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패널에서도 자퇴,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는 경험은 학교를 중단하고 성인기에 이르러서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1차 년도에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상태에서 인터뷰가 진행된 경우인데, 이 시기에는 학교를 벗어난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가 안정이 되면서 학교중단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는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2차 년도에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오히려 학교를 그만 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타인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퇴가 아닌 다른 선택이 가능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학교를 그만 두고 난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3차 년도에는 전공을 토대로 취업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경험했다고 기억하면서도 학교를 그만둘 때 선택권을 강조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이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참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2차 년도에 자퇴가 아닌 다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학교를 그만둘 때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참여자는 자퇴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퇴 선택이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전학이 있다면 전학을 가거나 다른 반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하였다. 한편, 자퇴하는 아이들이 제 정신이 아니라서 오히려 상담이 더 강화되어 있었더라면 선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퇴 이후 학교에서 지원 받았던 상담이나 대학지원 역시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은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

두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점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3차 년도에도 학교를 그만둘 때 선택권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학교를 중단 한 이후 학생과 평등하게 지원해야 하며, 학생들이 경험하는 수학여행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는 자퇴이전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그만 둔 것이 스스로도 낙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그들이 겪는 차별과 선입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중단과정에서 학업중단숙려제와 같은 프로그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학교중단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시절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26.3% 수준이다(김희진 외, 2021c). 본 연구에서도 학교를 그만 둘 것을 결정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중단한 참여자가 있었는데, 학교를 중단하는 과정과 절차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서 일원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교를 중단하고 대학진학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참여자들이 학교중단이 아닌 다른 과정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것은 귀담아 들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해져야 한다. 우선 학생이 학교를 그만 둘 때에는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를 중단하는 사유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37.2%,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29.6%, 심리, 정신적인 문제 23.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희진 외, 2021c).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의미 없거나 심리,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를 중단하기 이전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것처럼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학업중단숙려제와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생활을 볼 때 수업참여 정도가 중간수준으로(김희진 외, 2021c) 수업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업참여 보다는 보다 탄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를 들어, 출석이 인정되는 기간과 범위를 고려하여 학생이 자율수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학교를 중단하기 이전에 자율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학교간의 전학이나 반이동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미 구축되어진 질적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참여자 선정 및 자료분석과정

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연구목적에 따라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기존 패널자료 중 해당자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한 7명이 대학진학을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가 마치 대학을 진학한 대상자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이미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2차분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참여자가 대답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자가 ‘부모님이 참여자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참여자는 ‘관심이 거의 없어요’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 이유’를 다시 사회자가 묻자 ‘그냥 너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답한 경우 연구자는 부모님이 관심이 없는 이유가 그저 무관심해서인지, 아니면 자녀를 신뢰하고 있어서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런 경우 인터뷰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고 글의 맥락상 이해 되는대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로 봐야 할 것이다.

○———— 제6장 결론

- 1. 요약
- 2. 통합적 정책 제언

1. 요약

이 협동연구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조사를 통해 수집, 축적된 질적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한 이유, 학교를 중단한 이후의 진로 발달 등 다양한 경험 및 인식의 변화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기획되었다. 20대 중·후반의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과 대부분 10대 후반의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이 제공하는 방대한 질적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과 또 질적연구에 대한 이해가 깊은 연구자들이 이 심층분석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자 마다의 학문적 배경과 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제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연구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기 이행’ 연구는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인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연구는 기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20대 중·후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자립과정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연구인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중단 분석’ 연구는 신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약한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는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 연구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중단적 질적 연구’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신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탐색하였다. 각 연구 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 이 장은 서고운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1)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기 이행」 연구 요약

해당 연구는 2022년 면접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 총 27명과 신규 패널 총 24명을 대상으로 귀납적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및 신규 패널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미 없고 도움 되지 않는 학교생활’,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로 구분된 개인 수준에서의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가족 내 갈등’으로 구분된 가족 수준에서의 이유,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또래 관계, 사람 관계가 힘들’, ‘주변 친구의 학업 중단’으로 구분된 또래 관계 수준에서의 이유, ‘교사와의 문제’, ‘학교 제도, 분위기’로 구분된 학교 수준에서의 이유가 도출되었다. 둘째, 학교를 그만둔 원인들을 주요 원인과 결합 요인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를 그만두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신규 패널의 경우, 또래 관계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요인은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이후의 경험에 대하여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비교하였다. 기존 패널의 경우는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규 패널의 경우 학교를 그만둘 때 비교적 목표를 명확히 정한 경우가 많았으며, 기존 패널은 꿈드림센터 등에서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신규 패널은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기존 패널보다 신규 패널이 학업중단숙려제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존 패널이 2018년에 자퇴를 후회한 이유로는 ‘학교생활/또래 친구에 대한 그리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 ‘무분별/무계획적인 생활’, ‘세상의 부정적인 편견’이 도출되었으며, 자퇴를 후회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축적함’, ‘효율적 시간 활용’, ‘나를 성장시킨 계기’가 도출되었다. 기존 패널이 2022년 다시 보고한 이유도 2018년 보고했던 내용과 비슷하였는데, 다만, ‘공부를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저축에 재미를 느낌’과 같은 사항들이 추가되었다. 신규 패널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도 기존 패널의 이유와 비슷하였으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목표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등과 같은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립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의한 자립은 물리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립, 물리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과 심리적인 자립, 심적 태도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제안되었다. 우선, 교사의 무관심 및 미흡한 대처, 교사와의 갈등 등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를 그만둘 때 결정적인 계기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학교를 그만두기 전 교사와의 면담, 학교를 그만두려는 이유 및 문제점을 파악할 때의 학교 측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중단숙려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셋째,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만큼, 기능을 보다 다양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진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정고시 전형으로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입 전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연구 요약

해당 연구는 2022년 면접조사까지 참여한 기존 패널 중, 다양한 생애경험을 한 청소년 총 13명의 사례(결혼 등을 통하여 본인의 가족을 형성한 4명의 사례 포함)를 선별·분석하여, 후기청소년기 과정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자립과정을 살펴보고,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부각되는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사례연구와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였는데, 우선 사례연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혼 유무, 일 경험 등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하여 각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가족을 형성하거나 자립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지원 등을 살펴보고 특징을 탐색하였다. 분석은 삼각검증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을 통하여 분석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우선 개별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진로 발달을 거쳐왔는지 탐색하였다. 결혼 혹은 동거로 본인의 가족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일 경험을 하고 있었으나, 육아로 인하여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 형성된 가족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큰 의미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았다. 미혼 상태인 청소년들도 다양한 형태로 진로발달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 학사 취득, 다양한 일자리 경험(아르바이트, 취업) 등이 병행되고 있었다.

진로 및 자립과정은 크게 개인적 차원, 가족 차원, 사회적 관계 차원, 제도적 지원

차원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개인적 차원은 학력 취득, 학업 중단 후 일 경험, 심리/정서적 측면으로 범주화 되었는데, 우선, 학력 취득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과 대학 진학으로 구분되었다. 다양한 이유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과의 약속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진로 관심 분야라서 혹은 취업을 위하여, 대안적 선택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고졸 학력 수준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였다. 대학 진학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심 분야에 대해 좀 더 공부하기 위하여 등의 이유로 이루어졌다. 일 경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대인관계 기술과 참을성을 배우고, 생활비, 대학 등록금 혹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였다.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가족적 차원은 구조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으로 범주화되었는데, 구조적 차원으로는 조부모의 돌봄을 받는 형태나 다문화(이주 배경) 가정 형태 등 다양한 가족의 구조가 탐색되었고, 기능적 차원으로는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진로 정보 지원이 청소년이 진로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는 주변 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 관련 정보를 얻는 등 진로발달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지원 차원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제도,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사관학교를 이용한 경험들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적 시사점이 제안되었다. 단기적 방안으로,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과 이후에 다양한 안내와 더불어 연계되어야 하며,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접근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교를 그만둔 후 학교 밖 청소년이 방황하며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단기 및 중장기적 방안으로 진로 및 취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3)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분석」 연구 요약

이 연구는 올해까지 면접에 참여한 신규 패널 24명 중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7명(남자 3명, 여자 4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취약한 상황과 이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하며 대처해 나가는지를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 사례 선정에 위해,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하였고, 무업형, 진로미결정 청소년에 초점을 두었다. 최종적으로 1) 심리·정서적 문제, 2) 사회적/대인관계 문제(은둔경험 포함), 3) 가정환경(한부모가정 포함)의 어려움, 4) 지역/물리적 환경적 어려움 중 한 개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들을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사례연구방식을 활용하여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과거 및 현재 전사자료를 집중,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귀납적, 연역적 자료 분석 방법을 반복하여 이들이 취약한 상황에서 어떠한 지지체계를 통해 극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의미단위를 코딩하고 이를 범주화하며 새로운 차원을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삼각검증과정, 외부감사 과정을 거쳤다.

취약한 상황별 청소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선 심리적, 정신건강 문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첫 면접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 하지 않았으나 이후 면접에서 솔직하게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었다. 둘째, 또래와의 갈등은 은둔경험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학교를 그만두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셋째, 가정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부모와의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물리적 환경에 따른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해당 지역의 인프라 부족 및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 차원으로는 심리, 정서적 치료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힘들었던 친구 관계를 잊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다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 의지의 중요성이 도출되었다. 가족 차원으로는 부모님/조부모님의 심리·정서적, 경제적인 지지가 청소년들의 지지체계로 작용하고 있었고, 친구들 혹은 교회 관계자, 주변의 어른 등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꿈드림센터 혹은 이와 유사한 청소년 활동시설 등의 지원체계가 취약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크게 일곱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첫째, 청소년 개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취약한 환경 요인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취약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각각의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 강화, 동기부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은 여러 어려움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인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취약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여섯째, 읍면지역/소도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프라 부족, 사회관계 형성의 어려움, 심리적인 문제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취약한 상황은 상당 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부터 드러남에 따라 학교 내 전문가(예: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 연구」 요약

해당 연구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신규 패널 총 8명의 3개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들의 진로준비 경험을 탐색하고 진로준비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둘째,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셋째, 현재 진로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 넷째, 최소한 3개년 이상 자료가 확보된 청소년으로 제한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학교 밖 청소년은 총 8명(여자 6명, 남자 2명)의 19~21세 청소년이었다. 분석방법은 개방적 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Lincoln & Guba, 1985)을 적용하였다.

분석은 학교를 그만둔 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1차 년도에는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와는 다른 활동,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형성,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생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음, 대학생 멘토로부터 입시정보를 받는 등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년도에는 ‘진로를 고민하고 막연히 준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진로를 고민하고, 이를 위하여 주위사람들에게 진로 관련 고민을 이야기 해 보기도 하였다. 주로 경험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였고,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를 수정하

였다. 필요도 없는 자격증을 그냥 준비하는 등 진로 준비 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특징이 나타났다. 지원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 진로탐색, 소속감과 관련된 욕구를 보였고,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파악되었다. 2차 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들과 집단 활동을 체험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안정감 경험, 진로 준비 지원 등을 제공받았고 노동 권리도 보호받았다. 진로 준비와 관련해서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공을 살려 취업을 준비하거나 좋아하는 분야의 직업을 목표로 하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원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자퇴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발굴될 필요가 강조되었다. 3차 년도에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제공되는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으며,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았다. 진로 준비 과정과 관련해서는 '취업과 직장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어학능력 등을 준비하였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보다 넓고 큰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하였다. 지원은 '진로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서라도 지원해야 하고, 적성을 탐색하여 진로준비가 가능하게 해야 하고, 취업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 별 꿈드림 센터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꿈드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꿈드림센터에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움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 탐색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 입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례관리를 활용하여 개인별 관심과 수준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청 또는 고등학교 등 공적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학 입시를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담을 강화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업중단숙려제를 강화하고, 학교 간의 전학, 반이동 등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통합적 정책 제언

이 협동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질적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측면을 여러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와 관점을 달리한 총 4개의 심층 분석을 위해, 각 해당하는 사례들을 선정하고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종단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의 변화,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및 자립 과정,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 및 대처·극복 방법,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각 연구들이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VI-1).¹⁴⁾

우선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과정에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학교를 그만두려는 이유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수행되어야 하며, 학업중단숙려제와 같은 제도가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보다 신중히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 이외에 전학을 하거나 반을 이동하는 것 등 보다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 내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분석한 결과, 취약한 환경에 놓인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부터 취약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학교를 그만둔 후 방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둔 후의 과정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중심체계로서 기능이 다양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꿈드림센터의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접근성과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고, 지역사회

14) 여기에서(협동연구)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은 총괄보고서에서 총괄보고서의 조사결과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과 통합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네트워크(연계망)를 보다 확대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초기에는 진로적성 및 검사를 기반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가능하다면 부모와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한 환경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먼저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따라 개개인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취약한 환경에 놓인 경우 한 가지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인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취약성을 파악해야 하며, 회복탄력성 강화, 동기부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읍면지역과 같은 작은 규모 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걸음으로 드러나는 어려움 외에, 이로 인한 대인관계의 단절, 심리적인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대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전형과 관련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다방면에 걸친 대학 입시 지원(예: 교육청, 고등학교와의 연계)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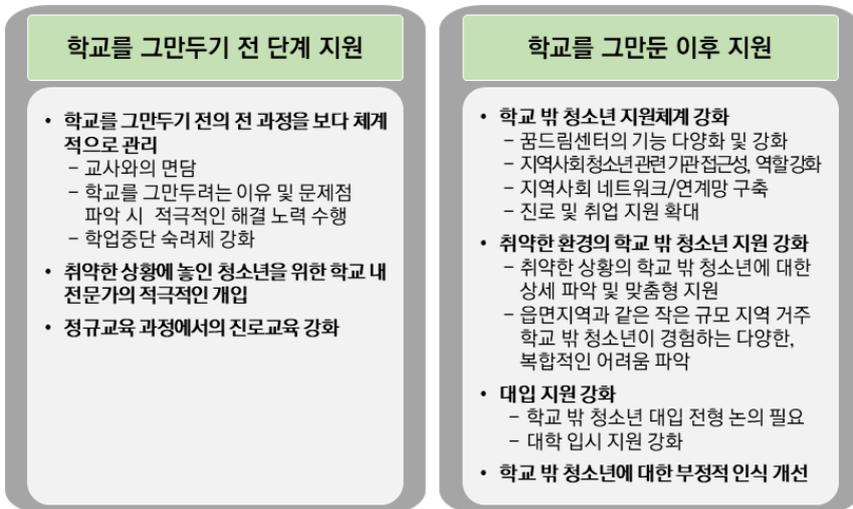


그림 VI-1. 통합적 정책 지원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 (2021.9.6). 2021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894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10.13. 인출.
-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김경애 (2016). 학교 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1-28.
- 김송이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201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2015). 검정교시를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경험: 학교 밖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고군분투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연구**, 17(2), 131-157.
- 김은혜, 최서경, 노충래 (2022). 재난경험자의 우울, 회복탄력성, 사회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4(2), 317-341.
- 김종우, 주수산나 (2018). 학교상담현장에서 인식하는 학업중단속려제의 실제: 근거이론 접근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2), 107-124.
- 김희진, 백혜정 (202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연구보고 20-R2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서고은, 김은정 (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21-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서고운, 김미정, 류정희, 권지성 (2021b).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V: 질적 중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5-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 (2021c).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II: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20-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지혜, 문성호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 62-86.
- 명소연, 조진옥 (2016).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 연구: 학교밖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75-98.
- 박동진, 이지연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2(13), 1-26.
- 박종석 (2018). 고교 중퇴자들의 학교 밖 학력주의 경험과 그 추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진학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8(2), 87-125.
- 박지현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희망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5(2), 199-207.
- 서덕희 (2015).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 어려움에 대한 중단적 사례연구: 학력에 따른 아버투스와 문화접변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1), 211-247.
- 성운숙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연구보고 16-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합뉴스(2010.08.19.). **곽노현, 초중고 체벌규정 '즉시 삭제'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614432?sid=102>에서 2022.08.01. 인출.
- 오정아, 오해섭 (2018).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모형 탐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 29(1), 145-177.
- 원동윤, 정춘헌, 강근모 (202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소진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32(2), 237-265.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진이, 신호민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를 위한 경험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6(2), 29-36.

육성필, 남옥남, 박지란, 박성혜, 김은영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과정 탐색 및 학업 중단 인식 연구: 강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 535-561.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수탁연구 CR 2022-0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8-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연구보고 14-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성운숙, 유성렬, 김강호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I**(연구보고 16-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연구보고 13-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I**(연구보고 15-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은자, 송정아 (2017).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연구: H청소년대안센터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8(5), 213-237.

이재영 (2018). 학교 밖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응복합적 요인. **디지털융합복합연구**, 16(10), 333-342.

이지연, 조아미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3(1), 55-82.

이현주, 엄명용 (2013). 미혼 양육모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중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0, 157-187.

임세희 (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55-78.

임한려, 홍성표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활동이 학업 및 직업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진로교육연구**, 34(2), 69-91.

장근영, 윤철경, 서고은, 이동훈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9-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희선, 김기현 (2014).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7, 185-216.
- 전은진 (2017). **청소년기 자발적 학업중단자의 학업중단과 대학진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 최정호 (2020).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청소년 지원센터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9(1), 63-92.
- 정문경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자아존중감의 중단적 인과관계 검증: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53, 55-79.
- 정한나, 정제영 (2022).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포부 및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9(6), 1-24.
- 조아미, 이진숙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청소년학연구**, 21(7), 145-170.
- 조혜영, 김영란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참여 경험 연구. **미래교육연구**, 8(3), 63-92.
- 홍세희, 조기현, 이현정, 손수경, 김효진, 강윤경, 윤미리 (2020). 청소년 회복탄력성에 대한 메타경로분석. **청소년문화포럼**, 63, 109-134.
- 홍지선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과 대학진학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 **청소년학연구**, 27(8), 89-118.
- 황연경, 홍은영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행복감 관련 변인.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2), 57-6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gdan, R. C., & Biklen, S. K.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5th Edition, Allyn & Bacon, Boston.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3년 출판).
- Ezzy, D. (2002).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London: Routledge.
- Feldman, D. L., Smith, A. T., & Waxman, B. L. (2017). "Why we drop out":

- Understanding and Disrupting Student Pathways to Leaving School*. New York and London: Teachers College Press.
- Ferraro, K. F., & Kelley-Moore, J. A. (2003). Cumulative Disadvantage and Health: Long-Term Consequences of Obes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5), 707-729.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Piscataway, NJ: Transaction Publishers.
- Huang, G., & London, J. (2012). Mapping cumulative environmental effects, social vulnerability, and health in the San Joaquin Valley, Californi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5), 830-832.
- Kiernan, K. E., & Mensah, F. K. (2011). Poverty, family resources and children's early educational attain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7(2), 317-336.
- Kurlychek, M. C., & Johnson B. D. (2019). Cumulative Disadvantage in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2, 291-319.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cDonough, P., Worts, D., Booker, C. L., McMunn, A., & Sacker A. (2015). Cumulative Disadvantage, Employment-Marriage, and Health Inequalities among American and British Mother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5, 49-66.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erriam, S.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Rumberger, R. W. (2011). *Dropping out: Why Students Drop out of High School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Wu, G., Feder, A., Cohen, H., Kim, J. J., Calderon, S., Charney, D. S., & Mathé, A. A. (2013). Understanding resilience.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7, 10.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22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마지막으로 수행됨에 따라, 협동연구에서 더욱 다양한 주제로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 대상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활용하여, 질적연구와 학교 밖 청소년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성인이 이행, 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경험, 자퇴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성인이 이행, ② 후기청소년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및 자립과정, ③ 취약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분석, ④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준비 경험에 관한 종단적 질적연구로, 총 4개 주제의 심층분석이 수행되었다. 20대 중·후반의 기존 패널과 10대 중·후반인 신규 패널의 면담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한 사례도 있었으나, 대체로 분석 내용에 맞게 기존 또는 신규 패널의 질적자료를 따로 분석하였다.

각 연구자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합하여 학교를 그만두기 전 단계와 이후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 단계 지원’에서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학교 내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를,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지원’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취약한 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입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핵심어 : 학교 밖 청소년, 질적종단자료, 종단적 질적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성인기로의 이행, 자립, 진로발달

A b s t r a c t

ABSTRACT

As “A Study on Community-based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With a Focus on Qualitative Panel Data” was conducted last in 2022, we attempted an in-depth analysis of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in more diverse topics for cooperative research. To this end, we used the longitudinal interview data on the qualitative panel of out-of-school youth collected from 2018 to 2022 and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with specialized researchers with expertise in qualitative research and out-of-school youth, focusing on their career development, transition to adulthood, and social services.

Specifically, the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in total 4 topics: ① reasons why out-of-school youth dropped out of school and their experiences,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quitting school and transition to adulthood, ② the process of career development and independence of out-of-school youth in adolescence, ③ longitudinal qualitative analysis on the experiences of out-of-school youth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④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on career preparation experience of out-of-school youth who received social services. There were cases in which the interview resul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etween the previous panel of youth in their mid- to late 20s and a new panel of youth in their mid- to late teens, but generally qualitative data of the previous panel or the new panel that meets the contents of analysis was separately analyzed.

Each researcher that participated in the in-depth analysis suggested variou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these contents were integrated in the last chapter of this study, providing policy tasks for before and after dropping out of school. 'Support before dropping out of school' included more systematic management for the process before quitting school, active intervention of in-school experts for youth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enhancement of career education in formal education. 'Support after dropping out of school' included reinforcement of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system, greater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in a vulnerable environment, greater support for college admission, and reform of the negative perception on out-of-school youth.

Keywords: Out-of-school youth,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longitudinal qualitative analysis, out-of-school youth support system, transition to adulthood, independence, career development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황여정·임희진·오승근
- 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 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 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 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 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 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 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 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 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 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 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 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 22-일반02-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 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 22-일반03-0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자체번호 22-일반0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우경 (자체번호 22-일반04-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자체번호 22-일반0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자체번호 22-일반05-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자체번호 22-일반05-0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자체번호 22-일반0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자체번호 22-일반0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해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욱 (자체번호 22-일반0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해정·김미향 (자체번호 22-일반08-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의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자체번호 22-일반08-0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자체번호 22-일반08-0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의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욱·이기연·이복실·안예지 (자체번호 22-일반08-0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 I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자체번호 22-일반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자체번호 22-일반09-01)

수 시 과 제

- 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 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 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 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 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 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탁과제

- 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 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 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 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 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 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 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 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 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 22-수탁10 발달장애에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옥·오욱찬·조양진
- 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 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유미·송현주·김균희
- 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 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 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 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 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 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 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 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유미
- 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유미
- 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 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 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 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 료 집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7호 :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8호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9호 :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0호 :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1호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3호 :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4호 :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64호 :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5호 :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NYPI Bluenote 통계 66호 :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7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68호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NYPI Bluenote 통계 69호 :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70호 : 디지털 성범죄
- NYPI Bluenote 통계 71호 :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NYPI Bluenote 통계 72호 :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7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가나다 순)

◆ 집 필 진 ◆

김 미 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부장)

◆ 자 문 진 ◆

김 은 정 (덕성여자대학교·교수)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유 성 렬 (백석대학교·교수)

정 선 옥 (덕성여자대학교·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연구보고 22-일반04-0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044)866-745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73-2 94330

979-11-5654-371-8 (세트)

연구보고 22-일반04-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V

: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73-2
ISBN 979-11-5654-371-8(세트)